精忠廟誌

雙嶺의 恨







廣州文化院

精忠廟誌

·

雙嶺의 恨

廣州文化院

강인한 민족혼으로 승화시킨
精忠廟誌



쌍령의 恨은 한민족의 恨이요, 조선의 恨이며, 곧 광주 歷史의 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민족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 1,000년의 세월동안 외침을 당하고도 결국 이겨낸 것은 유구한 歷史와 傳統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며, 나라를 지키려는 겨레의 맥과 강인한 민족의 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침 중에서 병자호란은 가장 큰 외침의 하나였고, 그만큼 처절했음에도 제대로 기록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알려지지도 않아 묻혀 있는 사연들이 너무 많다는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사연들을 기록하여 알리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는 역사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역사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일은 사실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작업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내면을 파고들어 진의를 찾고 살리는 일입니다. 비록 치욕을 맞을 때도 있고 한을 남기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면면히, 그리고 도도히 이어온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후세들에게 병자호란 역사에서도 쌍령전투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책무감 때문에 절박했으며, 이제야 발간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쌍령전투에서 순절하신 제장과 군사들의 영령 앞에 이 작은 책 한 권을 봉헌하며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깊은 관심과 자료로 협조하여 주신 후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데 각별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광주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 노구를 이끄시고 경향각지를 답사, 재 답사하신 저자 박광운 향토문화연구소장님의 특별하신 역사관과 향토애에 한없는 존경을 드립니다. 함께 고생하시고 열성을 다해 주신 향토문화연구위원회 한낙교 도유사, 이단우 간사, 홍민자 간사, 하영호 위원에게 각별한 심정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봉사적인 경영철학으로 책의 제작을 쾌히 승낙하고 수고해 준 홍익문화사 김태익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광주문화원장 남 재 호

서 문



정충묘(精忠廟)는 병자호란 당시 광주(廣州) 쌍령(雙嶺)에서 후금의 침략군과 조선 근왕군(勤王軍) 간의 전투에서 순절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許完) 장군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閔栐), 공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李義培) 장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받드는 사우(祠宇)이다. 추후에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 장군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한 역사를 굳이 들추어 민족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필자도 알고 있다. 병자호란 때 인조(仁祖)가 위란(危亂)에 처하여 광주의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입성한 뒤 40여 일을 청군과 항전하다가 삼전도에 나아가 오랑캐 청 태종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고두배(鼓頭拜)로 항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위정자들에 의해 버려졌던 일을 회상하면, 쌍령에서의 조선 근왕군의 패전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굴욕의 역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찬란한 업적을 남긴 것만이 역사는 아니다. 오히려 슬픈 역사일수록 이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슬픈 역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하여 후세에 전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은 단군 이래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다. 때로는 끈질긴 저항으로 승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패하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국권을 침탈(侵奪)당한 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도도히 흐르는 한민족의 맥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고 면면이 이어져 지금까지 나라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악전고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끈질기게 민족혼을 이어 내려왔던 것이다. 반면 병자년(1636)에 조선을 침략하여 승리한 만주의 여진족(女眞族)은 청(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중원을 점령하여 200여 년간 지배하기도 했으나 그 여진족은 이미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고, 그들이 쓰던 문자(文字)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격하게 말해 씨가 말라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병자호란의 개황을 살펴보고, 쌍령에서의 치열했던 전투와 근왕군의 편성 과정, 그리고 여러 장수들의 분전(奮戰)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근왕하던 여러 고을의 의병장들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며 분투한 내용 등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병자호란 후에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근왕군에 대한 조선 조정의 포증(褒贈) 내용을 여러 기록을 토대로 하여 기술하였으며, 순절한 장수들의 후손들을 찾아 직접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노력 하였다.

병자호란의 수난사(受亂史)를 돌아보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국방력의 강화라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위정자들의 그릇된 판단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위정자들의 불협화음은 결국 국력을 소모시켜 민생을 참혹하게 만든다는 것을 간파 할 수 있었다. 현지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비참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은 악몽을 꾸며 대대로 살아야만 했던 쓰라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쌍령에서의 전투로 희생된 생명은 수천에서부터 어떤 기록에는 수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필자가 금번 자료수집 결과 수만이라는 숫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쌍령에서 순절한 제장들과 군졸들의 넋이 아직도 전쟁터를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그들이 쌍령의 산야에서 초목이나 바위가 되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은 정충묘를 참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회이다. 쌍령에서 순절한 제장과 군사들의 영령 앞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바이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2년여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남재호 광주문화원장과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근 1년 동안 필자와 함께 문집과 고서를 번역하고, 삼남지방(三南地方)을 순회하며 순절 장군들의 후손을 심방(尋訪)하느라 수고한 우리 광주향토문화연구소의 한낙교(韓洛敎)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이단우(李湍雨) 간사와 홍민자(洪敏子) 간사, 그리고 하영호(河榮鎬) 위원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하고 싶다. 아울러 쌍령에서 순절한 제 장군 후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저자 박 광 운

목차

발간사 2
서 문 4

••정충묘 개황
정충묘 개관 13
정충묘 제향 23
제향 절차 24
精忠廟 祝文 29
精忠廟 享祀 笏記 30

••병자호란과 쌍령전투
병자호란(丙子胡亂) 45
1. 17세기 동북아 정세와 정묘호란 45
2. 병자호란의 발발과 동기 48
3. 병자호란의 경과 54
4. 병자호란의 결과와 영향 68
병자호란 쌍령전투 71
영남 근왕군의 병력규모에 대하여 72
경상좌병사 허완의 출병 76
경상우병사 민영의 출병 86

精忠廟誌

雙嶺의 恨

도평리에 진을 구축한 좌병사 허완 96
대쌍령리에 진을 구축한 우병사 민영 98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합류 99
김충선의 남다른 출정 101
오랑캐 기병의 공격과 안동영장 선세강의 최후 102
의병장 김충선의 용전분투 107
좌병사 허완의 최후 109
우병사 민영의 최후 110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최후 111
상주영장 윤여임의 혈전 112
창원부사 백선남과 황시헌의 충절 113
경상감사 심연의 본진과 종사관 도경유 115
경상 좌 · 우병사의 쌍령 포진 121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포진 122
쌍령공격 오랑캐 기병의 병력 123
쌍령전투의 시작과 종말 124
쌍령전투 후의 비참한 현장 상황 127
병자호란 쌍령전투의 패인 분석 130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근왕군 병력 133
쌍령전투 순절 제장들에 대한 포증(褒贈) 내용 135

• 쌍령의 恨

경상좌병사 허완의 한 많은 쌍령 순절 ····· 139
경상우병사 민영의 한 ····· 148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쌍령의 한 ····· 154
안동영장 선세강의 쌍령의 한 ····· 161
상주영장 윤여임의 충절 ····· 168
창원부사 백선남의 용전 ····· 173
용장 이억의 한 맺힌 순국과 부인 박씨의 정절 ····· 178
현감 손종로의 분투 ····· 184
민영의 부장 허득량 · 복량의 분전 ····· 191
경상감영 비장 이서우의 충절 ····· 198
안동진 영교 김몽린의 분투 ····· 203
임진왜란의 소년병 박우의 용전 ····· 207
의병장 김엽 삼형제의 충절 ····· 213
안동영장 중군 권극상의 쌍령전사 ····· 217
의성 김득민 부자의 충절 ····· 223
금산(김천) 의병장 이언의와 의마총(義馬塚) ····· 227
청송 의병장 윤충우의 애사 ····· 230
황시헌의 충절과 문창제놀이 ····· 234
김충선의 남다른 충정과 쌍령용전 ····· 238
금한룡 형제의 쌍령 용전 ····· 246
모친상중 쌍령에서 분투한 배시량 ····· 248
함께 전사한 우성적과 노복 귀동이 ····· 251

편집후기 ····· 254

정충묘 개황

여 백

정충묘 개관

정충묘(精忠廟)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87-1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3호선 대쌍령리 우측에 홍살문이 서 있다. 돌계단으로 이어진 산기슭 언덕에 위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작은 사당이다. 현재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충묘에는 병자호란 쌍령전투에서 순국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 장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 장군, 공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 장군, 경상좌도 안동영장 선세강 장군 등 4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고 있다. 정충(精忠)이란 '정충보국(精忠報國)'에서 연유한 것으로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자호란 후 시신을 수습하여 제사를 지낸 쌍령의 전례(典禮)는 사제(賜祭)였다. 사제는 국왕이 나라를 위하고 임금을 위하여 죽은 신하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내주던 일로 당시에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행사였다. 공신(功臣)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주던 제사인 것이다.

쌍령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慰靈祭)로



정충묘 사당

치제(致祭)하는 때도 있었고, 가뭄이 심할 때는 기우제(祈雨祭)의 성격을 띠고 지내기도 하였으며, 전염병이 창궐하여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지내는 여제(厲祭)를 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한이 맺혀 죽은 귀신은 여귀(厲鬼)가 되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데, 죽은 영혼이 제사를 받지 못하면 원한이 사무쳐서 인간 세상에 보복을 하거나 역병(疫病)을 퍼뜨린다' 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선 조정은 1637년(인조 15) 정월 초사흘 쌍령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여 수많은 장졸들이 희생된 것을 애처롭게 여기긴 했으나,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도 미처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해 4월 초에 이르러서야 예조(禮曹)에서 품신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비로소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고, 처음으로 쌍령에서 위령제를 지내게 하였다.[1] 이후 쌍령 치제 등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쌍령 치제에 관한 『조선왕조실록』 기사

시기	기사내용
1637년(인조 15) 4월 7일	예조에서 사람을 모집하여 쌍령(雙嶺)과 험천(險川)의 시체를 매장하고 제사하게 하다.
1637년(인조 15) 8월 23일	왕이 근신(近臣)을 보내 험천과 쌍령에서의 전사자들에게 사제하였다.
1640년(인조 18) 6월 12일	가뭄이 극심하자 근신을 보내 위령제를 지내게 하였다.
1656년(효종 7) 5월 24일	가뭄이 심하자 관리를 보내 쌍령의 전쟁터에서 위령제를 지내게 하였다.
1668년(현종 9) 3월 19일	여역(厲疫)이 몹시 심하여 병자년 싸움터 쌍령에 근신을 보내 여제(厲祭)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1671년(현종12) 4월 19일	대사간(大司諫) 남용익 등이 여역이 가시게 기도하는 제사를 빨리 지내게 하기를 청하니, 상(上)이 따랐다. 쌍령에는 향(香)과 축판(祝板)과 폐백(幣帛)만을 보내고 본도에서 제관을 차출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1674년(현종 15) 1월 21일	우상(右相) 김수흥이 영릉(寧陵) 참배 때 병자년 전적지 쌍령에서 제사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하였다.
1678년(숙종 4) 6월 5일	허적(許積)의 의논을 따라 쌍령과 험천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1688년(숙종 14) 2월 26일	병자년에 쌍령에서 전사한 근왕병(勤王兵)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688년(숙종 14) 2월 29일	임금이 쌍령을 지나다가 민영(閔栐)과 허완(許完)의 자손을 녹용하라 명하였다. 이때 숙종이 감회를 적은 절구(絶句) 한 편이 전해 온다.[2]

1) 『인조실록』 15년 4월 7일 기사.

2) **雙嶺駐駕有感 肅宗御製**

毅魂歸何處　굳센 영혼 어디로 돌아갔나.
悲風嶺上吹　슬픈 바람 고개 위에 부는구나!
停車日欲暮　수레 멈추니 해는 저무는데
回頭益悽其　머리 돌려 바라보니 더욱 구슬퍼

시기	기사내용
1697년(숙종 23) 4월 18일	쌍령과 험천의 전사한 곳과 굶주려 죽은 백성에게 제사하게 하였다.
1708년(숙종 34) 6월 17일	심한 한재(旱災)로 왕이 친히 제문(祭文)을 짓고 근시(近侍)를 보내 쌍령의 전망장사(戰亡將士)에게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1708년(숙종 34) 7월 17일	시독관(試讀官) 조태억이 쌍령에서 전몰(戰歿)한 곳에 찬술한 사실을 단비(短碑)에 새겨 제단 곁에 세워서 충렬을 표창하기를 청하여 시행하였다.
1717년(숙종 43) 6월 1일	예조에서 여제(厲祭)를 건의하였다. 쌍령에 도사(都事) 수령 가운데 가려서 차출하여 제사 지내게 하였다.
1730년(영조 6) 2월 26일	영조(英祖)가 말을 타고 쌍령에 이르러 병자년에 전망한 유허(遺墟)를 바라보고 관원을 보내 치제하고, 한참 동안 말을 멈추고 있다가 출발하였다. 이때의 감회를 적어 지제교에 내려주고 사제의 제문을 지어 보내라고 하였다.[3]
1732년(영조 8) 6월 21일	예조(禮曹)에 명하여 쌍령과 험천의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을 위해 단을 설치하고 사제(賜祭)하여 남모르는 억울함을 위로하게 하였다.
1734년(영조 10) 4월 30일	쌍령의 전망한 자리에 비석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1755년(영조 31) 11월 29일	광주 쌍령에 치제하게 하였다.
1779년(정조 3) 8월 4일	거가(車駕)가 쌍령천(雙嶺川)가에 이르러 머물러 한참 있으면서 병자년에 군사들이 전사한 일을 회고하였다. 제문을 내려 치제하였다.
1779년(정조 3) 8월 9일	쌍령 등지의 전장에서 전사한 자들에게 치제하게 하였다.

3) 上曰, 頃見知製敎製進雙嶺戰亡人賜祭文, 有曰, 有淚如雨, 予心以爲過矣, 今此行幸, 適見其處, 見致祭次設帳處, 若陰魂義魄之留焉, 深有所惻然, 不覺淚落 於是乎始知其句語之不虛矣.
눈물이 비 오듯 하여 내 마음이 지나치도다. 이번 능행 시에는 그곳을 둘러보고 갈 것인데, 치제를 볼 것이니 장막을 설치하여 의에 죽은 혼백들이 머물게 하여 깊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 있으니 눈물이 흐르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모두 허언이 아니로다.

1708년(숙종 34)에 쌍령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숙종은 친히 제문을 지어 내려주었는데, 그 제문 내용이 너무나도 서글퍼 이에 기록해 둔다.

아! 나의 보잘 것 없는 몸이 욕되게 대위(大位)에 있으므로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 지 이에 삼기(三紀, 36년)가 되었다. 다만 그야말로 덕(德)이 적어서 스스로 재이(災異)를 불러 한 번의 한재(旱災)가 가을까지 미쳐서 대지(大地)가 타는 것과 같다. 조금 내린 비[小霈]는 즉시 걷히고 은택이 또 그치게 되었다. 추수의 희망이 끊어졌으므로, 백성들의 명(命)이 그치게 되었다. 근심하는 마음이 불사른 듯하다. 아픔이 마치 내 몸에 있는 것 같다.

예로부터 가뭄을 이루는 것은 원기(冤氣)로 말미암음이 많으니, 조용히 생각하건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병자년 정축년의 난(亂)을 추억(追憶)하여 제론(提論)하면 지금까지도 분하여 이가 갈린다. 사람의 계획이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랑캐의 기병[虜騎]이 갑자기 이르렀다. 강화가 지척(咫尺)이었는데 초계(初計)를 이루지 못하였다. 외로운 성(城)은 달무리처럼 포위되었으니, 군졸은 약(弱)하고 군량(軍粮)은 다 떨어졌다. 산성이 위급(危急)하여 외부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렸더니, 아! 너희 영남(嶺南)의 충의(忠義)의 군사들이 분기(奮起)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 국난(國難)을 구하러 나아간 천리(千里) 길에는 연화(煙火)를 서로 바라보고 행재(行在)를 아주 가까이 해서는 사기(士氣)가 저절로 갑절이나 나므로 천안(天顔)에 희색(喜色)이 있었다. 승전(勝戰)의 보고(報告)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전군(全軍)이 패전(敗戰)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해골(骸骨)을 베개로 삼은 사장(沙場)과 원한을 머금고 있는 구천(九泉)에서 굳센 혼백이 굶주린 지 70년이 넘었으니, 하늘이 음산할 때 귀신이 통곡함을 어찌 이를 들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상(傷)하고 눈앞의 비참함이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는가? 옛날 무진년(1688)에 영릉(寧陵)에 일이 있어 여연(輿輦)이 쌍령(雙嶺)을 지나다가 거기(車騎)를 잠깐 멈추게 되었다. 이

에 보신(輔臣)에게 명하여 손으로 낱낱이 가리켜 보게 하였으니, 어찌 구슬프고 비통함을 견디겠는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씻었다. 세월이 비록 오래 되었으나 한결같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니, 이 끝이 없는 재앙을 만나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친히 글을 지어 번민하고 원통함을 이에 위로한다. 살아서는 이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유명(幽明)은 달라도 한 가지 이치이다. 다만 너희 많은 혼령(魂靈)들은 붕류(朋類)를 끌고 와서 하늘의 화기(和氣)를 인도해 이르게 하여 이 날의 술잔[觶]에 흠향(歆饗)하고, 빨리 감택(甘澤)을 내리게 하여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소생(蘇生)하게 하라.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함이 지금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4]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영조가 여주의 능행을 계획하면서 당시 영의정 김수흥이 "쌍령은 병자란에 경상도 좌우병사와 근왕군이 함몰한 전장인바 전조에서도 역시 치제하였으므로 금번 그곳을 지나게 됨으로 전과 같이 치제토록 함이 어떠합니까?"라고 진언하니, 영조가 "상시 치제하도록 하고 이번 능행 때에도 역시 치제함이 옳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 해마다 치제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정충묘의 향사(享祀)는 병자호란 후 왕실에서 사제(賜祭)하여 받들도록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도 본도에서 제관(祭官)을 차출하여 보내 지내도록 하였고, 조선조 말까지 이어왔다. 그러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 후 전국에

4) 上下親製祭文, 遣近侍, 致祭于雙嶺戰亡將士 其文曰:
噫予眇躬, 忝居大位. 夙夜祗慄, 于玆三紀. 惟其德凉, 自速災異. 一旱涉秋, 大地如燬. 小霈旋收, 膏澤又闕. 西成望斷, 民命近止. 憂心焚灼, 痛若在己. 從古致旱, 多由冤氣. 靜言思之, 豈無所以? 追提丙, 丁, 至今切齒. 人謀不臧, 虜騎猝至. 沁都咫尺, 初計未遂. 孤城月暈, 卒弱糧匱. 白登危急, 外援日俟. 嗟爾嶺南, 忠義之士. 奮不顧身, 赴難千里. 烟火相望, 行在密邇. 士氣自倍, 天顔有喜. 捷書之報, 擧切懸企. 全師敗衂, 曾是不意. 枕藉沙場, 飮恨九地. 毅魄毅而, 餘七十祲. 天陰鬼哭, 寧可聞此? 傷心慘目, 孰大於是? 昔歲戊辰, 寧陵有事. 輦過雙嶺, 少停車騎. 爰命輔臣, 以手歷指, 曷勝悽悲? 爲汝抆淚. 歲月雖久, 一念未弛. 値此極無, 靡所不思. 我親爲文, 煩冤是慰. 生旣殉國, 幽明一理. 惟爾群靈, 携朋挈類. 導達天和, 歆此我觶. 亟需甘澤, 蘇我赤子. 邦家寧謐, 自今伊始. 故玆敎示, 想宜知悉.

서 향사(享祀) 하는 국제(國祭)를 철폐하고, 서원 철폐령을 내림으로써 정충묘 향사는 중단되었다. 그 후로 대쌍령리 마을에서는 전망 장군들의 영령(英靈)을 수호신으로 삼아 위령제(慰靈祭)를 겸한 기복제(祈福祭)로 지냈다.

정충묘 사우(祠宇)의 확실한 건립 연대는 파악 할 수가 없다. 병자호란 후 국왕이 사제(賜祭)할 때 처음에는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지낸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후에는 비석을 세운 기록이 확실하게 있으나 사우를 건립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조선왕실에서 세운 비석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을 주민들에게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정충묘가 훼철(毁撤)되었다는 것과 최근에는 국도 3호선 확장공사 때 원래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로 이건(移建)됐다는 것이다.

한편 6 · 25전쟁으로 정충묘의 사당이 훼손되어 대쌍령리 마을에서 1958년에 정충묘를 중수(重修)하고 현판을 단 기록이 있다. 마을 주민들이 각출하여 정충묘를 중수할 때 초월읍(당시는 초월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정충묘명(精忠廟銘)을 다음과 같이 괘양(掛揚)하였다.

天地萬物 各受一生　　生則所欲 死則所惡
捨生就義 最是難事　　一國之將 抗敵以死
恨及九天 淚滿乾坤　　胡狄僞計 非禮而何
以强凌弱 以私犯正　　精爲不雜 忠爲盡己
二字精神 使敎萬世

천지만물이 각각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나니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함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한 나라 장수로서 죽음으로 오랑캐에 항전하였노라
그 원한은 구천에 이르렀고, 눈물은 건곤(乾坤)에 가득하였을 것이요

오랑캐의 간사한 계략(計略)은 비례(非禮)가 아니고 무엇이랴
강자가 약자를 능욕하였으니 정도를 범한 것이 아닌가
정(精)은 순수하여 잡됨이 없는 것, 충(忠)은 자기 할 일 다 함이니,
두 글자 정신은 가히 천만세에 거울이 되리라

대쌍령리 마을에서 정충묘의 제향(祭享)을 어떤 형식으로 지내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봉안신위 : 경상좌도 병사 허완 장군
경상우도 병사 민영 장군
공청도 병사 이의배 장군

제향일시 : 매년 음력 정월 2일 밤 12~1시 사이 쌍령전투가 벌어졌던 정월 3일을 제향일로 하고, 정월 2일을 입제(入祭)로 하고, 정월 3일을 파제(罷祭)로 하였다. 조선조 말경부터 매년 봉제하여오다가 1980년대부터 격년제로 하였다.

제수진설 : 마을 제사로 제향 할 때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아 제수로 쓰고 시루떡과 조율이시(棗栗梨柿)의 과일을 진설하였으며, 제주(祭酒)는 별도로 담가 썼다.

제향축문 : 국제 때에는 예조(禮曹)에서 제문을 내려주기도 하였으나, 마을제의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維 歲次甲子正月戊辰朔初三日乙丑
廣州郡草月面大雙嶺里 居民代表 ○○○ 敢昭告于

故丙子戰亡功臣贈兵曹判書行慶尙左道兵使忠莊公許完
故丙子戰亡功臣贈兵曹判書行慶尙右道兵使忠壯公閔栻
故丙子戰亡功臣贈領議政行公淸道兵使忠壯公李義培
諸公之靈 忠憤義烈 旣着此土 本村民人 歲薦犧牲
神其赫臨 伏惟尊靈 眷佑一洞 攘灾降福 俾無後艱
謹以淸酌 脯醢用伸 虔告謹告 尙 饗

제향절차 : 제 장군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전망한 장졸들의 영혼을 달랜다는 의미로 입제일인 정월 2일 낮에 농악을 울리며 마을을 돌면서 추렴하고, 밤 12~1시 사이에 제를 지내고나면 마을 사람들이 제수를 각 호마다 분배하였다. 파제일인 정월 3일에도 농악을 울리며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제관은 마을 사람 중에서 부정(不淨)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여 3일간 재계하고 외출을 금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였다가 정충묘에 올라가 제사하였다. 전통적인 향사(享祀)와 민속적인 제향을 혼합하여 지냈다고 볼 수 있다.

대쌍령리 마을에서 제향을 받들어 오던 중 1958년 정충묘 중수 후에 병자호란 당시 경상도 관찰사(감사)였던 심연(沈演)의 위패를 봉안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심연은 병자호란 당시 선발군으로 경상좌우 병사를 보내고, 뒤이어 본진을 인솔하고 오다가 여주에 이르러 쌍령에서 근왕군(勤王軍)이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와 함께 조령(鳥嶺)으로 철수하였다. 결국 호란이 끝난 후 감사(監司)로서 선봉군이 무너졌으면, 본진을 이끌고 진군하여 적과 싸워야 마땅하거늘 미리 겁을 먹고 군사를 돌려 조령으로 철수한 죄를 물어 귀양 갔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위패 봉안을 취소하였다. 반면에 1970년대에 안동영장 선세강 장군 후손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선세강 장군의 위패



정충묘 홍살문

를 정충묘에 봉안하였으며, 이때부터 네 분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이 협의하여 정충묘의 제향을 광주시 공제(公祭)로 봉행하고 있다.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며, 병자호란 쌍령전투에서 제장들이 순절한 음력 정월 초사흘 오전 11시에 관민이 합동하여 제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당이 협소하여 각 위마다 진설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쌍령리에 전해오는 전설로, 낙화암의 비극이 있다. 낙화암은 대쌍령리에서 도평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절벽이다. 도평리에 진을 쳤던 좌병사 허완의 선봉군이던 선세강의 진이 오랑캐의 돌격으로 무너지자, 남은 군사들이 도망을 하다가 이 절벽에 이르러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뒤에서 오랑캐들은 계속 추격해 오므로 수많은 장졸이 얼어붙은 곤지암천의 가마소로 뛰어내려 애처롭게 죽어갔다는 것이다. 그 뒤로 이 절벽을 낙화암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도평리 개울가를 비롯하여 대쌍령리 진새골 골짜기에서는 사람의 우는 소리가 들려 흉흉했다고 한다.

정충묘 제향

현재의 정충묘 제의(祭儀)는 전통 제례의 규범에 따라 광주시의 공제(公祭)로 봉행한다.

정충묘 제향과 분정

제례일시	매년 음력 정월 초3일 오전 11시
제례장소	정충묘 본전(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참사범위	광주시장, 광주시의회의장, 광주문화원장, 성균관유도회 광주시지회장, 보훈단체장, 광주향교 전교, 각급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제례복	헌관 : 흑단령(黑團領) 양관(梁冠)을 착용 집례(執禮) · 대축(大祝) · 찬의(贊儀) : 조선시대 관복에 오사모(烏紗帽)를 착용 집사 : 도포(道袍)에 유건(儒巾)을 착용
제수진설	남한산성 현절사(병자호란 3학사의 제당)의 제수 진설과 대동소이하며, 6변(籩) 6두(豆)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홀기	본 책 31쪽 참고
축문	본 책 30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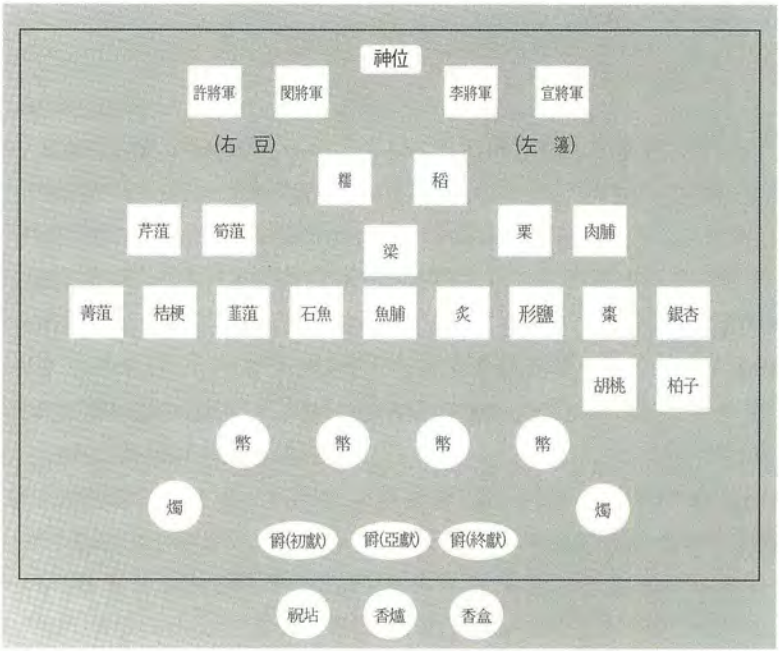
분정	제향일 10일 전에 광주문화원이 주재하는 정충묘 유사회의를 소집하여 분정(分定)한 다음 각 헌관 및 집사자들에게 망첩(望帖)을 발송한다. 분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初獻官) : 광주시장 아헌관(亞獻官) : 광주시의회의장 또는 정충묘 도유사 종헌관(終獻官) : 광주문화원장 또는 유도회장 집례(執禮) : 정충묘 유사 또는 광주향교 장의 대축(大祝) : 정충묘 유사 또는 광주향교 장의 찬의(贊儀) : 정충묘 유사 전사(典祀) : 광주문화원 임원 봉로(奉爐) : 정충묘 유사 봉향(奉香) : 정충묘 유사 봉작(奉爵) : 정충묘 유사 전작(奠爵) : 정충묘 유사 사준(司罇) · 관세(盥洗) : 광주여성유도회원 알자(謁者) : 광주향교 학생

제향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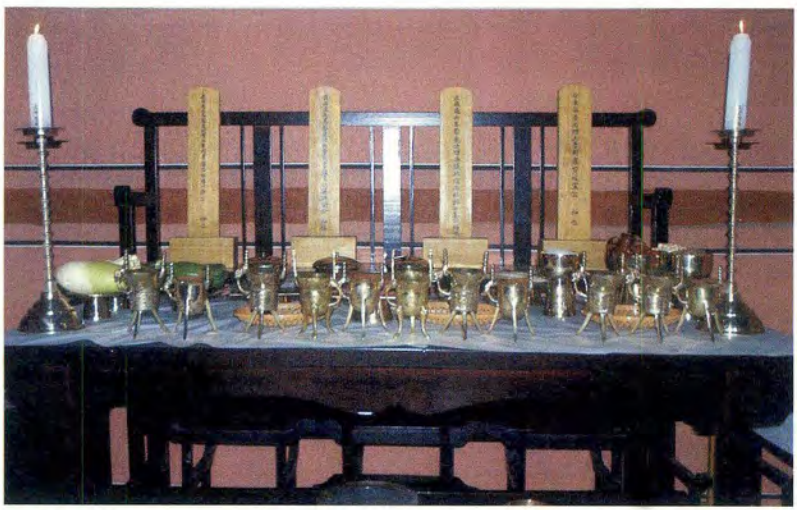
정충묘 제향의 절차는 '진설 → 청 행사 → 참신례 → 전폐례 → 초헌례 → 아헌례 → 종헌례 → 음복례 → 사신례 → 망료례' 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절차의 세부사항은 별지의 홀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1. 진설(陳設)

전사관의 주관 하에 광주여성유도회원들이 제수를 장만하고 제향 당일 오



정충묘 진설도



정충묘 진설

전 10시에 정충묘에 이르러 진설을 시작하여 오전 10시 30분까지 완료한다. 유사들은 사준상(司樽床)을 설치하고, 관세위(盥洗位)도 설치한다. 집례의 홀기 창에 맞추어 제례가 시작 된다.

2. 청 행사

제 집사들이 모이면 환복(換服)하고 초헌관이 도착하여 환복하면 집례는 분정기(分定記)를 낭독하여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들을 호명(呼名)한다.

헌관과 집사들이 도열하고 참사자들이 배위(拜位)에 입취(立就)하면 제 집사가 재배한 후 손을 씻고 맡은 소임의 자리에 선다. 알자는 초헌관 앞에 나아가 행사를 청한다. 집사는 개독(開櫝)하고 점촉(點燭)한다.


삼헌관


헌관서립


헌관 이하 입취배위


제집사 재배

3. 참신례(參神禮)

헌관 이하 모든 참사자 들이 재배한다.

4. 전폐례(奠幣禮)

찬의의 인도로 초헌관이 손을 씻고 제 장군 신위전에 꿇어앉는다. 집사가 헌관 좌우에서 향과 향합을 받들면 초헌관은 향을 세 번 피운다. 대축이 폐백을 초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은 이를 받아 헌폐(獻幣)하고, 다시 대축에게 주면 대축이 신위전에 올린다. 초헌관은 부복했다가 일어나 찬의의 인도를 받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5.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은 찬의의 인도로 제 장군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사준이 술잔에 술을 따르면, 봉작은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준다. 헌관이 잔을 들어 헌작하고 전작(奠爵)에게 주면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제 장군 신위전에 각각 잔을 올린다.



초헌례

독축(讀祝) : 헌관 이하 모든 참사자들이 부복한다. 대축이 축문을 낭독한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 찬의의 인도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6. 아헌례(亞獻禮)

찬의의 인도로 아헌관이 손을 씻고 제 장군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사준이 잔에 술을 따르면 봉작은 잔을 받아 아헌관에게 건네준다. 아헌관은 잔을 들어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아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찬의의 인도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7. 종헌례(終獻禮)

종헌례의 절차는 아헌례와 동일하며, 종헌관이 집행한다.


종헌례

8. 음복례(飮福禮)

집사는 음복상을 차려놓고, 초헌관은 찬의의 인도로 음복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은 첫 번째 올린 잔을 들고 초헌관 옆에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술잔을 초헌관에게 건넨다. 초헌관은 잔을 받아 술을 마신다. 대축은 빈 잔을 본래의 자리에 놓고, 조육을 들고 나와 초헌관에게 건네준다. 초헌관은 조육을 받아 흠향하고 다시 대축에게 건네준다. 대축은 조육을 제자리에 놓는다. 초헌관은 찬의의 인도를 받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9. 사신례(辭神禮)

헌관 이하 참사자 모두가 재배한다.

10. 망료례(望燎禮)

초헌관이 찬의의 인도로 망료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은 축판과 폐백을 들고 망료위로 나아간다. 축과 폐백을 불사르고 흙으로 덮는다. 초헌관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찬의는 초헌관 옆에 서서 읍하고 예필을 고한다. 대축과 제 집사자가 배위로 나와 재배한다.

精忠廟 祝文

維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二年
歲次己丑正月戊午朔初三日庚申
廣州市長 ○○○ 敢昭告于

贈兵曹判書行慶尙左道兵馬節度使 忠莊公 許將軍
贈兵曹判書行慶尙右道兵馬節度使 忠壯公 閔將軍
贈議政府領議政行公淸道兵馬節度使 忠壯公 李將軍
贈兵曹判書行慶尙左道兵營安東營將 忠貞公 宣將軍

精忠偉靈 輔國佐民 丙子殉節 萬古大節 振武東方
褒忠立祠 官民追慕 伏願眷佑 府民安泰 謹以 粢盛牲幣
明薦尙 饗

위대하신 정충의 영령이시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병자년 오랑캐에 항전하시다가 순절하신 크나큰 절개는 동방에 크게 떨치셨음을 우리 관민이 추모하여 사당을 세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우리 시민들이 태평하게 하옵소서. 이에 귀한 곡식과 희생을 진설하여 제를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精忠廟 享祀 笏記

精忠廟祭 今此行禮
지금부터 정충묘 제례를 봉행하겠습니다.

參祀者 廟前 定列立
제례에 참사하신 여러분은 사당 앞에 정렬하여 서시기 바랍니다.

獻官 東階 順次 西向立
헌관은 동쪽에 순차적으로 올라 서향하여 서시오.

大祝 及 諸執事 西階 順次 東向立
대축과 제 집사는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올라 동향하여 서시오.

分定記 呼名
분정기를 호명하겠습니다.

行 參神禮
참신례를 올립니다.

贊儀 詣 初獻官之左 請行事
찬의는 초헌관 왼편에 나아가 행사를 청하시오.

初獻官 檢視陳設 降復位
초헌관은 나아가 진설을 검시하고 내려오시오.

獻官 以下 皆跪 再拜
헌관 이하 모든 참사자들은 무릎을 꿇고 재배하시오.

拜 · 興 · 拜 · 興 · 平身
배 · 흥 · 배 · 흥 · 평신

大祝 及 諸執事 詣 盥洗位 盥手帨水
대축과 제 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大祝 及 諸執事 各就位
대축과 제 집사는 각기 소임의 자리로 가시오.

左右 執事 開櫝 点燭
좌우의 집사는 위패 덮개를 열고, 점촉 하시오.

行 奠幣禮
전폐례를 올립니다.

贊儀 引初獻官 詣 盥洗位 盥手帨水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引初獻官 詣 諸將軍 神位前 跪
초헌관은 제 장군 신위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오.

奉香獻官之右跪奉香盒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우편에 무릎 꿇고 앉으시오.

奉爐獻官之左跪奉香爐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편에 무릎 꿇고 앉으시오.

初獻官三上香
초헌관은 향을 세 번 피우시오.

大祝 四位之幣 授初獻官
대축은 네 분의 폐백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幣 獻幣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 헌폐 하시오.

初獻官 以幣 授大祝
초헌관은 폐백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 受幣 奠于 諸將軍 神位前
대축은 폐백을 받아 제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初獻官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초헌관은 부복 했다가 일어나 평신하고, 본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初獻禮

초헌례를 올립니다.

贊儀 引初獻官 詣 樽所監爵

찬의는 초헌관이 준소에 나아가 감작하도록 인도하시오.

初獻官詣諸將軍 神位前 跪

초헌관은 제 장군 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오.

司罇 斟酒 授奉爵 奉爵 受爵 授初獻官

사준은 술을 따라 봉작에게 주고, 봉작은 잔을 받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초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許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허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再爵 授初獻官

봉작은 두 번째 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초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閔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민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三爵 授初獻官
봉작은 세 번째 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초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李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이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四爵 授初獻官
봉작은 네 번째 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초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宣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선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 興平身 小退跪 參祀員皆俯伏
헌관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으시오. 모든 참사원은 부복하시오.

大祝 詣 獻官之左 東向跪
대축은 헌관 좌편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讀祝
축문을 낭독하시오.

獻官 以下 俯伏 興 平身
헌관 이하 모두 부복하고 일어나 평신하시오.

初獻官 引降復位
초헌관은 본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亞獻禮
아헌례를 올립니다.

贊儀 引 亞獻官 詣 盥洗位 盥手帨水
찬의는 아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하시오.

引詣 樽所監爵
준소로 나아가 감작하시오.

引詣 亞獻官 諸將軍 神位前 跪
아헌관은 제 장군 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오.

司罇 斟酒
사준은 술을 따르시오.

奉爵 受爵 授亞獻官
봉작은 잔을 받아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許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허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再爵 授亞獻官
봉작은 두 번째 잔을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閔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민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第三爵 授亞獻官
봉작은 세 번째 잔을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李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이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第四爵 授亞獻官
본작은 네 번째 잔을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宣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선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亞獻官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아헌관은 부복하고 일어나 본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終獻禮
종헌례를 올립니다.

贊儀 引終獻官 詣 盥洗位 盥手帨水
찬의는 종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하시오.

引詣 樽所監爵
준소로 나아가 감작하시오.

引詣終獻官諸將軍 神位前 跪
종헌관은 제 장군 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오.

司罇 斟酒
사준은 술을 따르시오.

奉爵 受爵 授終獻官
봉작은 잔을 받아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종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許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허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受再爵 授終獻官
봉작은 두 번째 잔을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종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閔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민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受第三爵 授終獻官
봉작은 세 번째 잔을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종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李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이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奉爵 受 第四爵 授終獻官
봉작은 네 번째 잔을 받아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종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宣將軍 神位前
전작은 잔을 받아 선 장군 신위전에 올리시오.

終獻官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종헌관은 부복하고 일어나 본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飮福禮
음복례를 올립니다.

大祝 正位前 第一爵 持參 置於 飮福位
대축은 정위전 제 일작을 음복위에 내다 놓으시오.

俎肉 盛于俎床 出置於 飮福位
조육을 상에서 내다 음복위에 놓으시오.

贊儀 引初獻官 詣 飮福位
찬의는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시오.

初獻官 詣 飮福位 西向跪
초헌관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大祝 詣 飮福位 北向跪
대축은 나아가 음복위에서 북향하고 꿇어 앉으시오.

大祝 以爵 福酒 授初獻官
대축은 음복주 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爵 飮訖
초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시오.

大祝 受虛爵 復於坫床
대축은 빈 잔을 받아 사준상에 놓으시오.

大祝 以俎肉 授初獻官
대축은 조육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俎肉 以授大祝
초헌관은 조육을 받았다가 대축에게 돌려주시오.

大祝 飮福床 置樽所 復位
대축은 음복상을 준소에 놓으시오.

初獻官 大祝 興 引降復位
초헌관과 대축은 일어나 본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辭神禮
사신례를 올립니다.

獻官 以下 參祀員 皆俯伏跪
헌관 이하 참사원은 모두 부복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拜 興 拜 興 平身
배 · 흥 · 배 · 흥 · 평신

左右執事 閉櫝 消燭
좌우의 집사는 폐독하고 촛불을 끄시오.

行 望燎禮
망료례를 올립니다.

贊儀 引初獻官 詣 望燎位 北向立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시오.

大祝 祝板 及 幣 就詣 望燎位
대축은 축판과 폐백을 가지고 망료위로 나아가시오.

初獻官 可燎
초헌관은 불사르시오.

初獻官 大祝 引降復位
초헌관과 대축은 본자리로 내려오시오.

大祝 諸執事 立就拜位 俯伏跪
대축과 제 집사는 배위에 나아가 부복하고 무릎을 꿇으시오.

大祝 諸執事 再拜
대축과 제 집사는 재배하시오.

拜 興 拜 興 平身
배 · 흥 · 배 · 흥 · 평신

贊儀 詣初獻官 之前 告禮畢
찬의는 초헌관 앞에 나아가 예필을 고하시오.

병자호란과 쌍령전투

여 백

병자호란
(丙子胡亂)

1. 17세기 동북아 정세와 정묘호란

17세기를 전후하여 동북아 정세는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명(明)나라는 주변 국가와의 잦은 충돌을 겪어온 데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여 국력이 약화되면서 왕조 말기의 혼란 현상을 나타냈고, 조선 역시 임진왜란의 피화(被禍) 때문에 국내 정세가 몹시 피폐해 있었다. 이 틈을 타 한반도 북방의 만주족이 세력을 강화하면서 명과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다.

1616년(광해군 8) 흥경(興京) 지방에서 후금(後金)을 건국한 누르하치(奴兒哈赤)는 중국 본토를 넘보며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요동(遼東)을 공격하였다. 이에 명(明)이 조선에 구원병을 요청하자, 광해군(光海君)은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1만여 군사를 주어 출병시키면서 전황에 따라 향배를 결정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누르하치에게는 조선의 출병이 명의 요청

에 따라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전하도록 하였다. 1619년 명이 후금을 총공격하였으나 전황은 오히려 명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조선 원군도 많은 희생자를 내자, 강홍립 등 조선 원군은 후금에 투항하였다. 이리하여 후금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없었다. 이후 동북아 정세는 군사적으로 후금에게 절대 유리하게 전개되어 갔으나, 조선은 전통적으로 사대(事大) 외교를 유지해 온 명과의 긴밀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금의 군사적 위협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해군의 대북(大北)정권은 후금과의 외교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었다. 후금은 조선과의 화맹(和盟)을 요구하며 조선과 명의 고리를 끊으려 하였으나, 조선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명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하는 한편, 후금의 동향을 살피고 견제하면서 신중한 외교를 폈다. 즉 광해군은 명과 후금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도 편향적인 외교를 펴지 않으려 하였다. 더불어 군비의 마련, 군사훈련, 성지(城池)의 보수, 병기 수리 등에 소홀하지 않는 등 국방 강화에 적극적이었다.

후금은 중국 요서(遼西) 지방까지 진격하면서 명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였다. 이때 명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후금에게 빼앗긴 요동(遼東) 회복을 노리면서, 평안도 철산(鐵山) 가도(椵島)에 진을 치고 후금의 측면 공격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문룡 군대의 가도 주둔은 후금은 물론이고 조선의 후금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즈음 국내에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1623년 3월 광해군이 축출되고 인조가 즉위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고 서인(西人) 정권이 들어서면서 후금을 배척하는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후금을 자극하였고, 다른 하나는 이듬해인 1624년(인조 2) 1월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반정공신(反正功臣)의 한 사람이었던 이괄은 반정에 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2등 공

신에 들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관군에 패하고 이괄이 죽자 그의 남은 추종자들이 후금으로 도망하여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반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조선 침략을 획책하였다.

조선의 국내 정황이 이렇게 불안할 즈음, 1626년 비교적 조선에 호의적인 누르하치가 죽고 그 아들 홍타이지(皇太極)가 집권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즉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과 배금(排金)정책을 펴는 조선을 먼저 정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627년 1월 홍타이지는 조선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침공이 이른바 정묘호란(丁卯胡亂)이다. 침략의 명분은 왕위에서 부당하게 축출된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정벌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명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서인(西人)정권의 배금(排金)정책과 명의 배후인 조선을 미리 군사적으로 제압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당시 청은 명과의 전쟁으로 교역이 단절되면서 명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끊어지자 조선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했고, 가도에서 후금의 배후를 노리고 있는 모문룡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홍타이지는 아민을 총 지휘자로 삼고 강홍립을 선두로 하여 압록강을 건너면서 조선 조정에 화의를 요구하였다. 후금군이 남침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세자는 전주로, 인조는 강화로 피난하였고, 후금군은 황해도 평산(平山)에 주둔하여 화의 요구에 대한 회답을 기다렸다. 당시 조선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명분 때문에 명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후금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기 때문에 화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화(江華)의 피난 정부는 후금군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결국 후금의 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후금과 화약(和約)하되 명을 적대시하지 않고, 후금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연호(年號)를 쓰지 않으며, 양국은 형제(兄

弟)의 나라로 서로 침범하지 않고, 후금군은 평산(平山)에서 곧 철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약을 맺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란의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해마다 일정한 양의 세폐(歲幣)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해 3월 3일 강화부 성 밖에서 조선과 후금 양국이 서약함으로써 화약이 성립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조선의 손실은 막대하였다. 화의 이후 40여일 뒤에 인조는 강화에서 서울로 환도하였다. 이리하여 만주족이 세운 후금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군사적 맹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병자호란의 발발과 동기

정묘호란의 결과는 조선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웠다. 유린당한 국토는 피폐해 있었고, 오랑캐와 형제의 의를 맺은 것도 커다란 수치인데다 후금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명(明)의 모문룡은 여전히 가도에 건재하여 조선에 군수 물자를 요구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한편 후금의 입장에서도 정묘호란 후 조선과 맺은 화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다. 당초 조선을 침입하려는 동기의 하나가 가도의 모문룡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후금의 배후에 있는데다, 형제의 맹약을 조선에서 순순히 지키지 않고 숭명(崇明)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화약 내용보다 더 많은 세폐의 요구에 조선 조정은 오히려 감액을 요구하는 등 쉽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점차 악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후금은 더욱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명과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다. 조선과는 형제의 의를 넘어서 완전 정복하여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후금은 우선 모문룡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를 제거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진출했을 때 배후세력으로 남아 후환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다. 모문룡이 명을 배반하여 이심을 품고 후금에 강화를 요구하자, 1629년 명의 요동경략 원숭환(袁崇煥)이 불러 살해하였던 것이다.

후금이 조선을 정복하려 했던 또 다른 동기는 조선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많은 물자였다. 정묘화약에 따라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공물(供物) 외에 개시(開市)를 요구하며 조선과의 무역을 강화하려 하였다. 1628년 2월 압록강 하류 난자도(蘭子島)의 중강(中江)개시를 년 2차에 걸쳐 열기로 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함경도 회령에도 개시를 하였다. 그러나 후금과의 무역은 조선에게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개시를 회피하려 하였고, 후금은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개시 외에 사신이 왕래할 때 이루어지는 잠상(潛商)에 의한 밀무역 또한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양국 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국의 국경을 몰래 넘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양국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약초를 캐기 위하여 국경을 넘나들거나, 병역기피나 탈세를 위하여 국경을 넘어 도망하거나, 고의로 도망하여 귀화하려는 경우 등의 쇄환(刷還) 문제가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1627년 정묘화약 후 후금은 조선에 대한 우위적 위치에서 정치적 · 군사적 · 경제적으로 강박을 가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북방지방에서 군사적 공격을 계속하였다. 1632년에는 만주 전역은 물론 내몽골 지방까지 점령하였고, 명의 수도인 북경 공략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동북아에서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후금은 조선 조정에 군사적 협박을 가하며 노골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였다. 첫째, 조선 조정

에 명과 동등한 대우를 강요하였다.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이 가져간 예물을 받지 않는 등 조선에서 명에 사신을 파견할 때와 동등한 예우를 요구하였다. 둘째, 형제의 맹약을 군신(君臣)의 의(義)로 고쳐 조선이 후금에게 신하의 예를 갖출 것(稱臣)을 압박하였다. 셋째, 해마다 공납으로 보내는 예물인 세폐(歲幣)로 금 100량, 은 1,000량, 각종 직물 1만 2,000필 등 막대한 양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정묘화약 이후 조선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후금에 보내는 세폐의 감액을 요구하였지만 후금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또한 정묘화약 후 철군하면서 조선으로 도망한 만주족의 만주 귀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명군이 주둔하던 동강진(東江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조선 땅으로 건너와 농사짓는 일을 금하지 않고 있다는 것, 후금을 배반하고 조선으로 도망 온 장수 유해(劉海)를 명에 넘겨주었다는 것, 국경 무역[開市]을 중단하였다는 것 등을 거론하고 양국 간에 맺은 맹약을 위반하였다며 그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여 트집을 잡았다.

후금은 심지어 1633년 사신 용골대(龍骨大)를 보내 명(明)의 장수로서 후금으로 망명한 공유덕(孔有德) · 경중명(耿仲明) 등의 군병을 위한 군량을 조선에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자신의 고국을 배반한 명의 장수를 지원하는 것은 도리상 할 수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후금은 조선이 후금과 형제의 관계이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세액(歲額)을 높이고 각종 예물을 바치라는 등 강압적 태도를 점점 높여 갔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후금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고 군비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확실한 노선통일이 되지 않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양국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1635년 후금은 북경 북쪽 차하르 지방을 평정하고 원(元)의 전국(傳國) 옥새(玉璽)를 손에 넣으

면서 중국 본토 정복을 향한 야욕을 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636년 2월 16일 장수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몽골의 여러 장수와 함께 의주 부윤 이준(李浚)에게 후금의 한(汗)에게 황제의 존호(尊號)를 올릴 예정임을 말하고 조선과 함께 그 일을 상의하여 처리하려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부윤 이준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후금이 황제의 존호를 칭한다는 이준의 장계를 받고 이어 후금의 사신을 접한 조선 조정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조경(趙絅) · 정온(鄭蘊) · 홍익한(洪翼漢) 등은 강력하게 척화(斥和)를 주장했고, 인조는 후금의 국서(國書)를 접수하지 않았다. 2월 21일, 홍익한은 정묘호란 때 강홍립의 머리를 베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형제의 맹약을 하였다는 억울함, 조선은 본디 소중화(小中華)로서 오랑캐를 섬길 수 없다는 명분, 후금 왕이 황제를 칭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우리 조선과는 관계없는 일인데 조선이 스스로 칭신(稱臣)하여 천자로 추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려는 술책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사신의 목을 베어 그들이 보내온 국서와 함께 명나라 조정에 보내자는 상소를 올렸다. 한편 후금의 사신은 누차 회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고 화를 내며 도망치듯 본국으로 가버렸다. 이어 3월 1일 인조는 백성들에게 척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충의로운 선비는 책략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종군하여 다함께 어려운 난국을 구하라'는 요지의 교지를 내리는 한편, 각 도에 명령하여 군사를 모집하고 의주 등 서도(西道)의 요지에 병기를 모아 보냈다. 그리고 평안 감사에게는 척화의 내용과 함께 방비를 철저히 하라는 교서를 써서 보냈는데 마침 도망치던 후금의 복병에게 붙잡혀 빼앗기고 말았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목격한 후금 사신 일행은 조선의 척화가 심상치 않음을 심양(瀋陽)의 후금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후금의 조선에 대한 공격 결심은 굳어져 갔다.

다음 달 4월 후금의 한(汗)은 황제로 즉위하였다. 국호를 청(淸)이라 바꾸고, 연호를 천총(天聰)에서 숭덕(崇德)으로 개원하여,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尊號)로 즉위하니, 바로 청(淸) 태종(太宗)이다. 이 즉위식에 조선에서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과 회답사(回答使) 이곽(李廓) 등이 참석하였다. 청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신하의 예를 강요하였지만 응하지 않았고, 청 태종은 '대청황제(大淸皇帝)'의 이름으로 이들 사신이 귀국할 때 조선 왕자를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大軍)으로 정벌하겠다는 내용의 국서를 건넸다. 이때 춘신사 나덕헌은 대청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하여 국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청 태종은 무장한 군인으로 하여금 조선 사신을 묶어 국경 밖으로 내몰고, 장수 영아이대(令俄爾岱, 馬夫大의 본명) · 마복탑(馬福塔) · 이감(尼堪) 등을 조선에 파견하여 국호 변경 등의 사실을 알려 왔다. 한편 나덕헌은 태종이 보내는 국서를 귀국 도중 펴보고 그 내용이 너무 패악(悖惡)함을 발견하자, 원본은 잡물 속에 감추어 놓고 대신 사본을 만들어 조정에 올렸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나덕헌과 이곽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서를 받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럽게 받아 오다가 중간에 감춘 사실을 징계하여 나덕헌을 유배하였다.

청 태종의 처사에 조선 조정은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어 혼란스러웠다. 척화론자인 홍익한 · 윤집(尹集) · 오달제(吳達濟) 등은 주화론자인 최명길(崔鳴吉) · 이민구(李敏求) 등을 맹공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에는 나덕헌과 이곽이 즉위식에 참가했을 때 용골대와 마부대로부터 국서를 받고 관례에 따라 열어 보려고 했는데, 용골대와 마부대가 굳이 만류하여 귀국 도중 십리하보(十里河堡)에 나온 다음 열어 보니 국서 표면의 호칭도 종전과 다른데다가 조선을 '너희 나라[爾國]'라는 표현으로 질책하는 내용 등을 발견하고 양국 사이에 맺어진 형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보(堡)의 잡물 속에

두고 왔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국서를 전하였다.

국서를 청국에 전한 후, 조정에서는 변란에 대비하여 군사 모집에 힘쓰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며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의주를 중심으로 북방 경계와 군비를 강화하는 한편, 청의 정세 탐지에 소홀하지 않았다. 더불어 청국에는 계속 형제 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며 군신관계 요구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청이라는 국호와 황제의 호칭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사(兩司)를 중심으로 척화를 주장하는 측과 주화를 주장하는 측이 갈려 논란을 계속하였는데, 주화의 우두머리로 지목받은 최명길이 척화파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조정의 대립 양상이 계속되자 인조는 주화든 척화든 어느 한 쪽을 결정하여 대처하라고 명하였다.

그사이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조정이 혼란한 동안 10월에는 청 태종이 파견한 마복탑(馬福塔)이 의주 부윤 임경업(林慶業)을 접견하고 11월 26일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그 뒤 조선에서 역관을 청에 보냈을 때에도 11월 25일 이전에 왕자와 대신, 그리고 척화를 주장하는 자들을 청국에 보내 화의(和議)를 하지 않으면 대병력으로 침공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역관이 이러한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은 오히려 척화의 분위기가 한층 강해졌다. 심지어 사신 파견에 대한 의견을 꺼낼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청이 요구하는 기일(11월 25일) 안에 사신을 파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시일을 끌다가 12월 초 뒤늦게 박로(朴魯)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청이 조선에 요구하는 군신관계를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 태종은 이미 구왕(九王, 누르하치의 9째 왕자) · 용골대 · 마부대 등 주전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조선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12월 2일 원정의 길에 오른 뒤였다.

요컨대 청이 병자호란을 일으킨 동기는 우선 팽창정책 과정에서 청(淸)으로의 국호 변경과 칭신(稱臣)을 핵심 내용으로 군신의 의를 요구하는 자국의 요구에 조선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청이 명을 공격하기에 앞서 명의 배후세력인 조선을 굴복시켜 명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북경 함락을 수월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을 굴복시킴으로써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와 교역으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인 이익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11월까지 왕자와 대신, 그리고 척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자국에 보내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위협하고, 또 그 이유를 조선이 정묘 맹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죄를 묻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3. 병자호란의 경과

1) 청의 공격과 남한산성으로의 피난

1636년(인조 14) 12월 2일, 10만 대군의 청군은 공언대로 조선 침공을 감행하여 9일 창성(昌城)에서 압록강을 건넜다.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이 백마산성(白馬山城)을 굳게 방비하자 선봉장 마부대(馬夫大)는 이 길을 피해 남하하여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이 때 황해도 정방산성(正方山城)에 진을 치고 있던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은 6일 봉화(烽火)로 적의 공격 소식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며칠을 지체한 뒤 적의 공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장계(狀啓)함으로써, 조정에서는 12일 오후에야 비로소 적의 침입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당황한 조정은 급히 강화(江華)로의 피난 준

비를 서둘렀지만 적병은 이미 개성과 장단에 도착하였다. 이후 전쟁 경과를 편의상 날짜 별로 중요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4일. 김상용(金尙容)과 윤방(尹昉)에게 종사의 신위를 모시고 먼저 강화(江華)로 출발하도록 하고, 한성판윤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檢察使), 부제학 이민구(李敏求)를 부사(副使), 호조참의 남선(南銑)을 찬획사(贊劃使)로 임명하여, 세자빈 강씨(姜氏) · 원손(元孫) · 봉림대군(鳳林大君) · 인평대군(麟坪大君) 등 왕실 가족을 호위하여 뒤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기원(沈器遠)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아 도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날 오후 인조는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데리고 숭례문(崇禮門)을 거쳐 강화로 출발하려다가 적군이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하여 강화로 가는 길을 차단하였다는 급보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이조판서 최명길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할 것을 권하면서 자기가 적군을 맞아 침범의 이유를 묻고 항의를 하여 시간을 벌겠다고 건의하자, 인조는 정묘호란 때 강화로 호종한 경험이 있는 이경직(李景稷)을 대동하고 군사 수십 명의 호송을 받으며 수구문(水溝門)을 지나 남한산성으로 가기로 하였다. 훈련대장 신경진(申景禛)이 다시 강화로 피난하기를 청하였으나 영의정 김류(金瑬)의 뜻에 따라 결국 남한산성으로 출발하였다. 한편 최명길은 사현(沙峴)에 이르러 적장 마부대(馬夫大)를 만나 침공 이유를 묻는 등 담판을 하며 저녁때까지 시간을 끌어 지체시켰다. 최명길의 항의를 접한 마부대는 조선이 정묘(丁卯) 맹약(盟約)을 어겼기 때문에 국왕을 만나 이유를 묻기 위하여 공격하였다고 답하였다.

한편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가려는데 마부가 도망치는 바람에 동궁(東宮) 소현세자가 직접 채찍질을 하여 동현로(銅峴路)를 지나 수구문을 빠져 유시(酉時, 저녁 5~7시)쯤 신천(新川)과 송파(松坡) 나루터에 도착하였고, 초경(初更, 저녁 7~9시)이 지나 겨우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이때 앞에서 선도하는 자

겨우 5~6명이요 수행원은 불과 수십 명이었다. 이경(二更, 저녁 9~11시)이 지나 대신과 시종신(侍從臣)들이 도착하였다. 같은 시각 최명길은 적장과 담판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인조로부터 화의 요구에 대한 회답이 없자, 적군은 남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

2) 청군의 남한산성 포위와 화의 강요

15일. 최명길이 적진에서 돌아와 적장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인조에게 보고하였다. 왕제(王弟)와 대신, 그리고 척화론자만 내주면 철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조는 최명길에게 "경이 속은 것이다. 어찌 세 가지 요구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쳐들어 왔겠는가" 하면서, 강화 목적이 다른 데에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것이 좋은 계책이라고 하자, 대신들은 강화로 피난하자는 의견과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분분하였다. 영의정 김류와 좌의정 홍서봉(洪瑞鳳), 병조판서 이성구(李聖求)는 강화로 피난하자 하였고, 우의정 이홍주(李弘胄)와 승지 이경증(李景曾), 대제학 이식(李植)은 적군이 포위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인조는 과천과 금천을 지나 강화로 가자는 김류의 의견을 따라 다음 날 새벽 은밀하게 강화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군사를 4대문과 요소에 배치하며 임금이 성안에 있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폈다.

16일. 새벽, 어가가 산성 남문을 나와 강화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눈보라와 빙판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강화로의 피난 시도에 실패한 인조는 남한산성 방어 계획을 서둘렀다. 우선 산성의 4문과 요소에 지휘관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당시 성내 군사는 1만 2,000명 정도였다. 성내에는 조정 관리 및 왕실 가족이 400여 명, 노복 300여 명이 있었고, 양식은 피잡곡(皮雜穀) 1만 6,000여 석 정도로 한 달 남짓 먹을

양이었다. 팔도에 교서를 내려 근왕병을 모집토록 하는 한편 명에 구원병도 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명나라는 왕조 말기의 혼란 현상으로 조선의 구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형편이 못 되었다.

이날 아침 적군은 성을 포위하고 왕자와 대신을 보내 화의 논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능봉수(綾峯守) 칭(偁)을 왕의 동생이라 하고, 형조판서 심집(沈諿)을 대신이라 가칭하여 적진에 보냈는데, 심집이 두 사람 직함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이들을 돌려보냈다. 아울러 마부대는 왕의 아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왕자를 요구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17일. 조정에서는 다시 좌의정 홍서봉과 호조판서 김신국(金藎國)을 보내 왕자는 산성에 없고 강화에 피신해 있다고 말하자, 적장은 반드시 세자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화의는 결렬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현세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전 대제학 장유(張維)는 세자가 나아가 적의 요구에 따라 칭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김상헌(金尙憲)은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인조와 세자는 조정 신하들의 분열을 우려하여 서로 힐책하지 말라 하였고, 세자는 굳이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하였다.

18일. 포위를 당한 가운데에서도 아군은 성 밖으로 출전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니, 이날 북문 대장 원두표(元斗杓)는 군사를 몰고 나가 적병 6명을 죽였다. 인조는 몸소 성을 순시하며 백관과 군민(軍民)들에게 방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더불어 전 참봉 심광수(沈光洙), 의창군(義昌君) 광(珖),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승지 이경증(李景曾) 등은 척화를 주장하며 최명길을 참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화의를 반대하는 상소를 왕에게 올렸다. 인조는 성안에서 장사들을 모아 방어를 효유하거나, 직접 백관들을 성첩(城堞)에 배치하여 지키게 할 정도로 수성(守城)에 앞장섰다. 그러나 성 밖은 적의 군사

가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었고, 삼남(三南)과 통하는 길이 적군에 막혀 남한산성은 완전히 고립되어 군량 수송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19일. 삼남으로 통하는 요해처인 이현(梨峴, 이배재)을 어떻게 적으로부터 다시 수복하는가를 놓고 대신들과 논의하였다. 그러나 성안의 군사가 적어 이 작전 또한 수월치 않았지만, 남성(南城) 대장 구굉(具宏)이 군사를 모아 출병하여 적군 10여 명을 죽여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다. 왕은 사대부들을 모아 백관과 함께 허술한 성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때 병조판서 이성구(李聖求)는 길이 뚫리면 다시 강화로 피난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이 날 군사 9,300명이 새로 입성하였다.

20일. 인조는 도원수 김자점과 부원수 신경원(申景瑗), 그리고 삼남지방 각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시급히 구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적진에서 조선 출신 통역을 맡고 있던 정명수(鄭命壽, 평안도 殷山縣 官奴였는데 1618년 강홍립 파병 때 출정하였다가 후금에 항복하여 청의 역관으로 활동함)를 보내와 화의를 청하였으나 문을 열지 않고 중개인을 통하여 말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즈음 아군은 여러 번 적군과 접전하여 승리하였다. 이날 다시 청군이 화의를 요구하여 김신국과 이경직을 보내 정명수를 접대하였는데, 정명수는 전에 요구한 세자를 철회하고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면 화의를 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 회담에서 청군 측에서는 지난 11월 25일까지 조선에서 사신을 안 보낸 이유, 지금 성 밖에서는 청군과 말이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조선이 돌보지 않는다는 것, 최명길에게 요구한 조건에 회답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질책하였다. 그리고 수일 안으로 청 태종이 직접 출정에 나서 이곳에 도착 할 텐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협박을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인조는 방어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성안의 군량미와 말먹이

풀 등을 점검하였다. 이 날 군사 1만 여 명이 다시 입성하였는데 호조판서 김신국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성안에 있는 군사가 3만 3,000여 명, 조정 관료는 400명 정도였고, 쌀과 콩이 1만 4,000여 석으로 2개월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먹이 풀이 크게 부족하였다.

3) 인조의 결전과 고투

21일. 적군이 징병을 못하도록 성을 포위하자 허수아비까지 만들어 세웠고, 서성(西城)에서는 어영별장 이기축(李起築)이, 동성(東城)에서는 신경진(申景禛)이 적 여러 명을 사로잡거나 죽였다. 그러나 기회를 보아 적과 결전을 벌이자는 신하들의 건의에 영의정 김류는 따르려 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공청(軍功廳)을 두자는 김신국의 건의에 인조가 허락하였다.

22일. 청군이 화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인조가 김류에게 적과의 결전을 명령하였지만 김류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날 적과 싸워 전과가 많았고, 말먹이 풀이 없어 말이 굶어죽자 말고기를 군사들에게 먹였다.

23일. 네 개의 진영에서 출병하고 인조가 직접 북문에 나아가 싸움을 독려하였다. 이날 피아간 부상자가 많았다.

24일. 눈비가 많이 내리자 인조와 소현세자는 노도(露禱)를 지내며 눈비가 그치도록 기원하였다. 인조는 입던 가죽옷과 털이불을 조각내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날도 전과가 많았다.

26일. 성의 식량을 관장하던 관향사(管餉使) 나만갑(羅萬甲)이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싸우던 화친하던 빠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인조에게 간하였다. 화친과 척화로 분분한 가운데 군령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의 기강도 해이해 있었던 것이다. 구원병이 오기를 고대하였으나 병졸 모집이 어렵거나 출정한 원군도 적군에 막혀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날 강원도 영장 권정길(權井吉)의 군대가 검단산(黔丹山)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패하였다.

27일. 청군 진영에 이항복(李恒福)의 아들 이기남(李箕男)을 시켜 소 2마리와 술 10병을 보냈으나 거절당하였다. 적장은 이기남에게 청 태종이 출병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28일. 김류가 한편으로는 화의를 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접전을 독려하다가 대패하여 사기가 떨어져 조정 관리들의 분위기가 화친하는 방향으로 더욱 기울기 시작하였다. 즉, 김류가 남쪽 성의 적진이 허술하다고 판단하자, 장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격을 감행하다가 적의 매복과 유인작전에 말려 300명의 아군을 잃고 대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 패전으로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였고 비변사에서는 화의에 응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29일. 공청(公淸)감사 정세규(鄭世規)가 군사 8,000명을 이끌고 헌릉(獻陵) 아래에 당도하자 적에게 막혀 험천(險川)에 진을 쳤는데, 적의 공격을 받고 싸우다가 포위 작전에 많은 군사를 잃었다.

30일. 청 태종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도착하자, 군의 사기가 더욱 떨어져 전의를 상실하였다. 인조는 옷을 벗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일용품이 몹시 궁핍하였으며, 특히 말먹이가 부족하였다.

4) 척화파와 주화파의 격론

1637년 1월 1일. 김신국과 이경직을 적진에 보내 세시(歲時)의 예를 갖추게 하였다. 대신들 가운데 김류는 칭신(稱臣)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식과 이경직은 맹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스스로 칭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 반대하였다.

2일. 홍서봉 · 김신국 · 이경직을 적진에 보내니 용골대가 정묘 맹약을 조선이 위배했다는 것, 청을 오랑캐라고 부른다는 것 등을 질책하며, 국서(國書)를 '조유(詔諭)'라 하면서 4배(拜)의 예를 갖춘 다음 가지고 가도록 협박하였다. 적진에서 홍서봉은 용골대에게 전과 같이 정묘 맹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인조에게 적이 화친에는 별 뜻이 없고 본국에서 더 많은 군사가 오기를 기다려 조선의 기를 꺾으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인조에게 보고하였다. 이 날 경상도 좌병사 허완(許完)과 우병사 민영(閔栐)이 군사 4만여 명을 이끌고 광주 쌍령(雙嶺)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었다.

3일. 전날 받아온 청국의 조서에 대한 답서 문제로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적의 교만한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홍서봉과 이경직이 답서를 가지고 적진에 전달하였다. 적장은 몽골 왕과 왕자들이 오는 대로 상의하여 알리겠다고 하면서 회답서를 주지 않았다. 홍서봉이 인조에게 칭신(稱臣)을 건의하는 발언을 하자, 이지항(李之恒) · 유계(兪棨) · 김홍욱(金弘郁) 등이 반대하였다.

이날 쌍령에서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구원병과 적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이 전사하였는데, 적장 악탁(岳託)의 부하 요토(要土)가 300기로 좌우 진영을 격파하였다고 한다.

4일. 유백증(兪伯曾)이 병란의 책임을 물어 윤방(尹昉)과 김류를 참수할 것을 청하다가 오히려 파직 당하였다. 사간원 관원들이 최명길에게 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5일.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의 군사가 충청도 직산에, 그리고 함경도 병사(兵使)가 이끄는 군사가 양근(楊根)에 도착하였다. 전라 병사 김준용(金俊龍)이 수원 광교산에서 매복 작전을 펴 전과를 올렸으나 군량이 부족하여 궤멸 당하였다.

8일. 어전회의에서 구원병의 패배와 군의 사기 진작 문제, 군량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때 군량은 2,800석 밖에 남지 않았다.

9일. 적군은 산성의 안과 밖이 서로 통하는 것을 알고 소나무 성[松城] 수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호(畿湖) 지방을 횡행하며 남한산성을 구원하려는 삼남의 구원병 소탕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노략질이 심하였다. 김상헌이 적진에 사신 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10일. 예조판서 김상헌의 건의로 백제 시조 온조(溫祚)에 제사하였다.

11일. 인조의 생부 원종(元宗)에게 제사하여 승전을 기원하였다.

12일. 홍서봉 · 최명길 · 윤휘(尹暉) · 허한(許僩)을 적진에 보내 국서를 전달토록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3일. 다시 홍서봉 등을 적진에 보내 국서를 전달토록 하였다. 이 국서에

는 황제[惟皇帝垂察焉]라는 칭호를 썼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以小事大 乃理之常]'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실상 신하의 예를 갖추어 칭신(稱臣)을 하였던 것이다. 적장이 정묘 맹약을 어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묻자, 최명길은 조정 신하들의 죄라고 하였다. 홍서봉 · 최명길 · 윤휘가 조선 출신 청국 역관 정명수에게 은 1,000냥,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3,000냥을 주도록 건의하였다. 홍서봉이 적진에서 돌아와 화의 성사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14일. 식량이 겨우 20일 분밖에 없어 배급량을 감하였다.

15일. 도원수 심기원(沈器遠)이 장계를 올려 여러 구원병의 패전보를 보고하였다.

16일. 홍서봉 등이 국서에 대한 답서를 받기 위해 적진으로 갔다. 이때 적장이 강화(江華)를 공격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17일. 청군 장수가 성 아래에 와 답서를 받아가라고 전하자 홍서봉이 적진에서 답서를 받아 왔다. 그 답서에 왕이 성을 나와 귀순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성을 나와 싸우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8일. 적군이 산성의 사방 문 앞에서 속히 왕이 출성하여 화친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9일이나 21일 격전을 치르자고 협박하고 곧장 돌아갔다. 이에 최명길이 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청국관온인성황제(大淸國寬溫仁聖皇帝)'라 표기하고, 또 '온 나라가 명을 받들어 번방(藩邦)과 대등하게 되는 것뿐[擧國承命 得比諸藩而已]'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우의정

이홍주, 대사헌 김수현(金壽賢)이 반대하여 삭제하였고 예조판서 김상헌이 보고 격분하여 찢어 버렸다. 병조판서 이성구는 김상헌의 척화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신 적진에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화를 냈다. 이날 국서를 다시 작성하여 홍서봉과 최명길에게 전하도록 하였는데 적장이 돌려보냈다.

19일, 이홍주 · 최명길 · 윤휘를 적진에 보내 국서를 전달토록 하였는데 답서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참판 한여직(韓汝溭)이 국서에 클 '거(巨)' 자를 쓰지 않아 답장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 하자, 최명길이 눈치채고 '신(臣)' 자를 쓰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날 한밤중에 적이 동성(東城)에 침입하여 함락될 뻔하였다.

5) 주화파의 칭신(稱臣)과 척화파의 인질 자청

20일, 이홍주 등이 답서를 받아 왔는데 주된 내용은 왕이 성을 나와 항복할 것과, 그에 앞서 척화를 주장하는 신하 2~3명을 보내라는 것이다. 최명길과 김류가 왕에게 국서에 칭신(稱臣)하도록 권하였고, 이조참판 정온(鄭蘊)은 최명길의 매국죄(賣國罪)를 통렬히 규탄하였다.

21일, 이홍주 · 최명길 · 윤휘 등이 국서를 가지고 적진에 갔다. 이 국서에 '황제폐하[皇帝陛下]'라 썼고, '이미 신하로 항복하였다[今已臣服]' 하였으며, '군신간의 대의로써 척화파를 용서해 달라[今陛下方以君臣大義 風動一世 則若此輩者 似宜在矜恕中矣]'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적장은 왕의 출성과 척화를 주장하는 자를 잡아 보내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답서를 주지 않았다.

22일, 최명길이 화친을 배척한 사람 스스로 자수하도록 왕에게 건의하였

다. 비변사(備邊司)가 척화를 주장한 우두머리로 홍익한을 지목하였고, 참판 정온과 사간 이명웅(李命雄)이 자청하고 나섰다. 소현세자 또한 출성하겠다고 자청하였다. 이날 강화가 함락되었다. 청의 구왕(九王)이 바다를 건너 강화를 공격하자 검찰사와 유수는 도망치고 왕실 가족은 포로가 되었으며, 전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은 자결하였다.

23일. 홍익한이 척화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평양 서윤(庶尹)으로 있다는 내용의 국서를 적진에 보냈다. 18일 국서를 찢고 물러나 단식하고 있던 김상헌이 척화를 주장한 사람들을 적에 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적진에 가기 위하여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교리 윤집과 수찬 오달제가 척화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적진에 가기를 자청하였다. 이 밖에 부호군 윤황(尹煌), 부사과 윤문거(尹文擧) 등이 자청하여 적진에 가겠다고 나섰다. 밤에는 성을 함락하려는 적과 교전하여 격퇴시켰다.

24일. 적군이 종일토록 행궁(行宮)을 향하여 맹렬히 포격을 가하여 성안의 시설물이 크게 부서지고 인명도 살상됐다. 식량도 거의 바닥났다. 한낮에 서문 밖에서 적군이 신속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결말지을 것을 소리쳤다.

25일. 적군이 국서를 도로 주면서 청 태종이 내일 귀국하려 하는데 만일 왕이 성을 나오지 않는다면 화친이 되지 않을 것이라 통첩하였다. 적은 이날도 하루 종일 포격하여 성이 크게 부서졌다.

26일. 신경징과 구굉이 장졸을 이끌고 궐문 아래에서 척화를 주장하는 신하를 내어주기를 청하였다. 인심이 흉흉한 가운데 성을 지키는 군졸마저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날 저녁 홍서봉 · 최명길 · 김신국이 적진에 갔을

때, 적장 용골대와 마부대는 강화가 이미 함락되어 왕실 가족이 남한산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왕이 출성하면 세자와 대군만 데리고 심양으로 회군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적장이 대군의 친필을 내주어 받아가지고 귀환하여 인조에게 보이자 편지를 본 인조는 체념하고 출성할 결심을 굳혔다.

27일. 이홍주 · 최명길 · 김신국이 국서를 가지고 적진에 가서 왕이 성을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상헌과 정온이 자결을 시도하였다.

28일. 김류는 척화신으로 김상헌 · 정온 · 윤문거 · 오달제 · 윤집 · 김수익(金壽翼) · 김익희(金益熙) · 정뇌경(鄭雷卿) · 이행우(李行遇) 등 되도록 많은 사람을 적진에 보내자는 생각이었으나, 인조가 허락하지 않았고, 또한 대사간 박황(朴潢)이 두세 사람만 보내자고 요구하자 그에 따랐다.

6) 치욕적 맹약과 인질 압송

29일. 최명길이 국서를 지닌 채 윤집과 오달제를 데리고 적진으로 갔다. 이날 밤 용골대와 마부대가 답서를 가지고 왔다. 답서에는 명과의 수호를 끊고 청국 연호를 쓸 것, 세자와 봉림대군, 그리고 대신의 아들이나 아우를 볼모로 보낼 것, 명나라를 정벌할 때 원군을 보낼 것, 기타 사신을 보낼 때의 예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었으며, 매년 조공할 품목과 수량을 제시하였다.

30일. 인조와 세자, 그리고 대신들이 삼전도(三田渡)에 나아가 청 태종 앞에서 항복의식을 행했고, 저녁에 강화에 피신해 있던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왕실 가족과 함께 한양 창경궁(昌慶宮)으로 돌아왔다. 세자와 빈궁, 봉림대군과 부인은 인질로 심양(瀋陽)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적진에 남았다.

2월 1일. 남한산성내 군대를 해산하였다.

2일. 청군이 철수를 시작하였다.

8일. 세자와 봉림대군이 그들을 호송하는 수행원과 함께 심양으로 떠났다. 이때 호종(扈從)하여 심양까지 간 사람은 박로(朴魯) · 정뇌경(鄭雷卿) 등 19명이었다. 정뇌경은 1639년 4월 18일 본국 조정을 괴롭히던 역관 정명수 제거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심양에서 처형되었다. 그에 앞서 1637년 4월 19일에는 윤집과 오달제가 심양에서 처형당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은 1627년 정묘호란을 겪고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뒤, 재침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도 없이 숭명배청(崇明排淸)을 계속하다가 청의 불만과 의심을 키워 병자호란을 당하였다. 사전에 침공의 예고를 받고도 대비를 소홀히 하여 공격을 받자 방어는커녕 강화 천도도 실패하고 남한산성으로 긴급히 피난하기에 바빴다. 장기전에 대비하기에는 군사와 병기는 물론 군량미도 부족하였으며, 각 도의 원군에 기대하였으나 갑작스런 편성으로 훈련이 부족했으며, 기마병으로 무장한 청군에 비해 기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적의 공격에 쉽게 패전하는가 하면, 성안과의 협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성안에서는 문관 대신들의 전투작전능력 부족과 소극적인 대처로 전의(戰意)를 상실케 하여 오히려 군이 화의에 동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군의 강압적인 화의 요구에 조정 대신들은 화이(華夷) 사상에 숭명(崇明)의 대의명분을 굽히지 않는 척화파와 이약복강(以弱服强)과 이소사대(以小事大)의 논리로 생존을 추구하려는 주화파로 분열되어 사실상 적과 대적할 수 없는 힘의 불균형에서, 국란을 헤쳐 나갈 획기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시 조정은 주화파가 적진과의 화의 추진을 주도하

면서 국왕 인조를 움직여 적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 결국 군신(君臣)의 맹약을 낳았다. 강한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 버티려던 인조의 의지도 강화 함락으로 꺾여 투항을 결심하게 되었다.

4. 병자호란의 결과와 영향

군신의 맹약으로 청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조선으로서는 참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이미 1592년(선조 25)부터 7년에 걸친 임진왜란과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으로 큰 타격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발한 병자호란으로, 특히 서북지방은 청군의 약탈과 살육까지 겹쳐 크게 황폐해졌다. 그리고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는 한편 청의 국호와 연호를 사용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심양에 인질로 보내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조정의 위신은 크게 추락하였고, 외침에 대처하지 못한 조선 유교정치의 사상적 기반인 주자학(朱子學)은 위약성(萎弱性)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조선이 떠안은 부담이 컸다. 정묘호란 때보다 더욱 굴욕적이고 가혹하여 경제적 부담이 3배에 이르러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때 이루어진 청국과의 조공관계는 1644년 북경 함락 이후 점차 감액되기는 하였지만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맹약 조건으로 매년 세폐(歲幣)로 결정된 품목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황금(黃金) 100량, 백은(白銀) 1,000량, 수우각궁면(水牛角弓面) 200부(副), 호대지(好大紙) 1,000권, 호소지(好小紙) 1,500권, 표피(豹皮) 100

장, 수달피(水獺皮) 400장, 녹피(鹿皮) 100장, 청서피(靑黍皮) 300장, 차(茶) 1,000포, 호초(胡椒) 10근, 소목(蘇木) 200근, 호요도(好腰刀) 26파(把), 순도(順刀) 20파, 오조룡문렴석(五爪龍文簾席) 4장, 잡채화석(雜彩花席) 40장, 백저포(白紵布) 200필, 각색면주(各色綿紬) 2,000필, 각색세목면(各色細木綿) 10,000필, 각색세마포(各色細麻布) 400필, 마포(麻布) 1,400필, 미(米) 10,000포

그 밖에도 청은 명을 정벌하는데 쓸 원군과 병기 및 군량미를 요구하였고, 조선은 여러 구실로 회피하려 하여 청의 의심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청은 포로로 도망 온 자, 국경을 넘어 귀화한 청나라 사람들, 중국인으로서 조선 국경을 넘어온 자들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었다.

병자호란의 결과는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과 함께 조선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주자학을 공부한 사림(士林)들의 유교정치가 외침을 막아내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자학의 취약성에 대한 백성들의 의구심을 피할 수 없었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자학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일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17~18세기에 크게 유행된 실학풍(實學風)도 양란, 즉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 침체된 조선 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서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피폐한 백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동법(大同法)이나 균역법(均役法) 등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였고, 지식인들은 안민(安民)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양명학(陽明學)이나 서학(西學)과 같은 새로운 사조에 관심을 두는 등 주자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병자호란으로 맺은 군신 관계 때문에 조선은 표면적으로 청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북방 민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과 더불어 전통적인 존화양리(尊華攘夷)의 숭명사상(崇明思想)은 청에 대한 보복심

을 키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 시설을 보수하거나 군사를 양성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써 효종(孝宗) 때에는 북벌(北伐)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의 조선은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개혁과 재정비가 요구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 참고문헌 |

『남한지(南漢志)』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산성일기(山城日記)』

『심양일기(瀋陽日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 일조각, 1995

朴光雲, 『忠貞公 鄭雷卿傳記』, 대학사, 2007

全海宗, 「女眞族의 侵寇」,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姜世求, 「雲溪 鄭雷卿의 殉國에 관한 一考察」, 『문명연지』 제19집, 한국문명학회, 2007.

| 강세구 | 실학의 둥지 회장

병자호란 쌍령전투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파천했던 인조를 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벌어진 북방의 오랑캐 군과의 전투는 모두 비참하게 패하였다. 1637년 정월 초사흘 광주 쌍령에서 벌어진 쌍령전투는 영남에서 급조된 근왕군이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하다가 30여 리를 앞두고 오랑캐 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삼남(三南)의 근왕군이 궤멸(潰滅)하다시피 한 최악의 패전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자진하여 충분(忠奮)한 마음으로 참전하여 순절한 호국의 역사이건만 지금까지 어느 역사학자도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본고의 초점은 쌍령에서 순절한 3도의 병마절도사와 그 휘하 장수들의 고결한 충성심과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을 현양하고, 쌍령에서 원혼(冤魂)이 된 수많은 조선 병사들의 용전분투 사실을 조명하며, 패전의 원인과 전투상황을 살펴보는데 두었다.

지금까지 쌍령전투에 대하여 기록된 여러 자료라고 하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당시 조정 신료들의 기록들, 즉 나만갑(羅萬甲)의 『병자일기』, 남급(南磳)의 『신안세고(新安世稿)』 내의 『난리일기』, 정조(正祖)의 명에 의하여 찬술된 이의준(李義駿)의 『존주휘편(尊周彙編)』과 이긍익(李肯

翊)의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그밖에 많은 개인들의 행장 또는 문집 등과 『교남지(嶠南誌)』에서 자료를 구하고,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장수들의 비문이나 각 문중에 전해오는 전망자들의 실기(實記) 등의 사료들을 바탕으로 엮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

영남 근왕군의 병력규모에 대하여

당시 영남의 근왕군, 즉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許完) 휘하의 병력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閔栐)의 병력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으며, 병력의 규모를 4만 명으로 기록한 것이 많다. 그러나 누구의 기록도 믿을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민영이 충주에서 보낸 장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근왕군 8,000을 영솔(領率)하고 충주를 경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식문서에서 밝혀진 병력의 규모이다. 그런데 『연려실기술』이나 『병자일기』 등에서는 모두 4만이라고 하였고, 경상감사 심연의 묘비문에는 3만 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김시양의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에서는 3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좌병사 허완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는 1만여 병력을 이끌고 참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에서 1986년에 펴낸 『병자호란사』에서는 영남 근왕군의 규모를 총 8,000명으로 기록하고, 허완과 민영은 2,000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선발로 진군하여 쌍령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당시 조선 8도의 정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자.

1598년(선조 31) 7년간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 사후에 광해군이 왕위

에 올라 초토화된 국토를 재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양병(養兵)에 힘쓸 여력이 없었으므로 광해군은 북방 오랑캐들의 준동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명의 눈치를 보아가며 그들과의 외교관계를 비공식으로 원만하게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정(失政)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광해군이 퇴위하고 서인정권(西人政權)이 탄생하면서 1622년 왕위에 오른 인조는 반정공신들 틈에서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이괄(李适)의 난이었다. 1624년 반정에 앞장섰던 이괄이 논공행상에서 2등공신이 되어 북방의 병사로 나가게 되자, 반감을 품고 난을 일으킨 것이다. 당시 조선의 국방정책은 북방 오랑캐의 강성함을 인식하고, 왜구의 침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파악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방어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괄이 평안도의 군사를 포섭하여 난을 일으켜 일거에 도성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평안도의 병력을 빼고 나면 도성까지 오는 도중에 반란군에게 맞서 싸울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조는 공주로 파천하는 신세가 되었고, 도원수 장만(張晩)이 여기저기서 근왕군을 편성하여 도성을 점령하고 있는 이괄을 격퇴시켜 난은 평정했으나, 조선의 정예 군사들을 상당수 잃어 국가적인 피해는 대단히 컸다. 다만『조선왕조실록』이나 여타 국가문서에도 당시 병력의 피해상황을 기록 해 놓은 것은 찾지 못했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서인정권은 반정의 구실인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을 내세워 북방 오랑캐인 후금을 무시하고, 소원하였던 명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광해군 때와는 달리 조정의 공론은 후금과는 화의하지 않겠다는 척화(斥和)를 기본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이괄의 난 3년 후인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발하였다. 후금

은 명을 침범하여 중원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조선이 장애가 된다는 판단 아래 그해 겨울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3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범한 것이다.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고 세자는 전주로 피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평안병사 남이흥이 지휘하던 안주성이 함락되고, 평양감사 윤훤(尹煊)을 비롯한 군사들은 병력 8,000명이 수비하고 있었지만 적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도망하여 후금군은 평양성에 무혈 입성하였다. 조선의 병력은 실로 한심한 수준이었고, 지휘관들도 무능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묘호란의 결과로 후금과 화의를 맺었는데, 형제지국의 의를 맺고, 세폐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후금이 명을 정벌하려 할 때에 조선군 1만 명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조건이었다.

그 후 조선은 북방의 각 성을 재정비하고, 군사를 양성하려 하였지만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원만히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금을 국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명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훌륭한 장수들을 북방에 배치하였고, 삼남지방에는 원로 장수들을 배치하였는데, 영남 · 호남 · 호서지방의 병력배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정예군사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사』에서는 병자호란 발발 직전 조선의 지방군을 청천강 지역군 4,000명, 황해도군 2,000명, 하삼도군 1,600여 명 등 총 병력 8,000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조선의 병력은 북방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조정의 공론이 척화로 확정되면서 북방의 오랑캐들이 침노할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남지역의 병력은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인 허완(許完)은 나이가 68세였다. 왜 이런 노장을 병사(兵使)로 삼았을까. 노년의 장군이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백전노장이

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공청도(公淸道) 병마절도사 이의배(李義培)는 당시 환갑의 나이였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은 54세였다. 그리고 그들의 휘하에 정예군은 몇 백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경상감사 심연(沈演)이 1636년 12월 20일경 조정의 납서(蠟書)를 받고 급히 좌·우 병사를 불러 근왕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여 양 병사로 하여금 확보된 병력을 이끌고 선발군으로 남한산성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때의 병력이 얼마인지는 확실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허완의 신도비에서는 1만 여라고 하였고, 선세강의 행장에서는 수천이라고만 기록하였다. 민영의 장계에 나오는 8,000의 근왕군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심연의 비문에는 3만의 군사를 양 병사에게 주어 선봉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호란이 끝난 후 심연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어 유배를 당하였으니, 허위보고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쌍령의 지형으로 볼 때 4만의 군사가 주둔하고 진을 구축할 지세가 아니었다고 본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소위 군사들이라면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무장을 하였을 것이며, 군수품도 갖추었을 텐데 쌍령 땅의 면적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산 밑에 진을 친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실하게 발견되므로 도평리 일대와 대쌍령리 산 밑이라면 2,000~3,000명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경상감사 심연이 우선 출발하라는 명을 내려 행군을 시작한 선발대는 수천 병력에 그쳤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가 삼남지방을 약 8개월간 순회하며 『존주휘편』 제신사실(諸臣事實)에 기록된 제장(諸將)들의 후손을 만나보고, 그 가문에 전해오는 기록들을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의 영남 근왕군은 의병 또는 속오병(束伍兵)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퇴역한 군관이나 무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지 않은 출

신(出身)[5]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 향리 인근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주휘편』에는 기록이 없으나 『교남지(嶠南誌)』나 각 읍지(邑誌)에 기록된 참전 전사자들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아도 당시 정규군의 숫자는 각 진영(鎭營)마다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병력이다. 따라서 각 고을 현감(縣監)과 현령(縣令)들에게 근왕군(勤王軍)의 모집을 독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을 감안 할 때 훈련이 안 된 급조된 의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영남 근왕군의 규모를 여기에서 자세히 기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혀 둔다. 다만 영남 각지에서 솔선하여 의병을 일으킨 무관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고, 또한 근왕군이 남한산성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농민 중에서 장정들을 모집하여 근왕군에 편입시켰다는 사실도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 되었다.

경상좌병사 허완의 출병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許完)이 청나라의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범해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636년(인조 14) 12월 22일 새벽이었다. 경상감사 심연(沈演)이 비변사(備邊司)로부터 12월 21일 밤 납서(蠟書)[6]로 근왕병(勤王兵) 출병 명령을 하달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우리나라가 명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은 지 이미 200년이나 되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공덕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그에 대

5) 여기에서 출신이란 무과에 급제하였지만 관직을 받지 못한 무관을 말한다.
6) 납서 :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중요한 지시사항을 잔글씨로 써서 밀로 봉하여 보내는 극비 문서.

한 대의(大義)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랑캐가 명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마땅히 이를 같은 원수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 형세가 급박해짐에 따라 오랑캐와 화약(和約)을 맺었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임시방편이었다. 단지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그런데, 저 오랑캐가 외람되게 황제라고 일컫고, 우리에게 군신(君臣) 관계를 강요해 오니, 이는 차마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형세의 강약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배척한 것이다. 이는 다만 만고의 대의를 밝히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내가 시종일관 생민(生民)을 위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소중히 여김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분명한 것이니, 이는 이 나라의 모든 사민(士民)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저 오랑캐가 갑자기 포학(暴虐)한 기병을 휘몰아 돌진해 오니, 나는 하는 수 없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와 이를 사수할 것을 기약하고 있으나, 위급한 현세(現勢)는 경각에 달려 있다. 너희 사민들은 모두가 명나라와의 대의를 중히 여기고, 오랑캐와의 화약을 수치로 여긴 지 오래이다. 더구나, 지금 군부(君父)가 이처럼 위급한 환난에 빠져 있으니, 이때는 바로 충신과 의사(義士)가 몸을 바쳐 보국(報國)할 때이다. 아!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질지 못하여 너희 사민을 저버린 바가 많았도다. 그러나 이번의 환란은 내 스스로 취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오직 명나라와의 대의를 저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의 이 마음과 이 의리를 천하 상하가 다 아는 바이거늘, 너희 또한 어찌 군부의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이 위급하고 어려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을쏘냐!

너희는 각자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의려(義旅)를 규합하거나, 군량과 병기를 협조하고, 용기를 발휘하여 북으로 진군할 지어다. 그리하여, 대란(大亂)을 평정하고, 인륜 도덕을 부식하고 공명을 세운다면, 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니리오. 이에 교시하노니, 잘 생각하고 알아서 행하여 주기를 바라노라.[7]

숭정(崇禎) 9년(1636) 12월 19일

7) 『병자호란사』, 『인조실록』.

울산의 좌병사(左兵使) 허완과 진주의 우병사(右兵使) 민영(閔栐)에게 즉시 근왕군을 편성하여 진군하라고 전하였던 것이다. 청나라 오랑캐 군의 난입이 갑작스럽게 닥쳐 임금이 강화로 피신하려다가 이미 마부대(馬夫臺)가 이끄는 기병 6,000의 선봉대가 강화로 들어가는 길목을 김포의 양촌에서 막아,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황급히 피신하였고, 오랑캐 군은 10만이 넘는 병력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으니, 하루속히 근왕병을 이끌고 성안에 갇혀 있는 인조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좌병사 허완은 당시 나이가 68세의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을 겪고 북방에서 무관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한 맹장으로서, 휘하의 군관들을 다그쳐 속히 대오를 갖추게 하고, 속오병(束伍兵)을 소집하여 부족한 병력을 충원토록 하며, 각지의 현령과 현감으로 하여금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출사하였던 군관들과 미처 출사하지 않은 출신(出身)[8]들로 하여금 급히 창의(倡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지들을 설득, 군량미를 조달 받고, 화약을 준비하여 속히 선봉부대를 편성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백전노장의 장수라지만 휘하의 정병은 수백 명이 고작이었다.

경상감사 심연은 우선 선봉부대로 최소한 8,000병력을 확보하여 속히 출발 할 것을 양 병사(兵使)에게 지시하고, 자기는 뒤에서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하여 본진을 삼아 뒤쫓아 가겠으니 하루속히 선봉부대를 이끌고 출발하라는 독촉이 추상같았다.

전 평양서윤(平壤庶尹) 도경유(都慶兪)가 모친의 병이 위독하여 사직하고

8)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하고 출사하지 않은 군관들을 말한다.

향리에 있다가 호란의 소식을 듣고 감사 심연에게 달려와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扈從)하러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심연은 도경유에게 본도 좌·우병사가 곧 출병할 것이니, 감사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좌병사 허완(許完)과 우병사 민영(閔栐)을 독전(督戰)하여 우선 확보된 병력을 이끌고 조속히 남한산성으로 출발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좌·우 군영(軍營)의 총 지휘권을 그에게 일임하였다. 심연은 계속 병사를 모집하여 뒤이어 출발 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확보된 병력을 출발시키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편 심연은 달성 녹동에 거주하고 있던 김충선(金忠善)에게도 창의하여 병력을 확보해 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충선은 본래 일본 장수인데, 임진왜란 당시 가토기요마사(加藤淸正)의 휘하 장수로 조선에 왔다가 귀화한 사람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많은 전공을 세워 선조로부터 사성(賜姓)을 김해김씨(金海金氏)로 받았다. 그 후 이괄의 난 때에도 항왜(降倭)군을 동원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 당시 환갑을 지난 나이였으나 호란의 소식을 듣고 즉시 150여 명의 군사를 인솔하여 남한산성으로 출정[9]하였다.

이때 좌병사 허완의 관할 구역에서 창의(倡義)하거나 출정한 장수와 의병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은 좌병사(左兵使)로부터 출정 준비 지시를 받고 곧바로 관내의 장수들을 소집하여, 유력한 선비들에게 즉시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안동 진영에는 원래 정병 2,500명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500명 정도가 고작이었으므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제일 먼저 달려온 장수가 권극상(權克常)이었다.

한편 안동진의 영교(營校) 김몽린(金夢麟)으로 하여금 새로 모집한 의병들

9) 『慕夏堂集』에서 인용하였다.

에게 조총의 사용법 등을 교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무기와 군수품 등을 준비하기에 분주하였고, 군량미도 부족한지라 안동부사에게 군량확보를 의뢰하고, 속오군(束伍軍)[10]을 소집하였으나 지지부진하였다.

안동의 권극상(權克常)은 1621년(광해군 13)에 무과에 급제하고 영변에서 무관으로 있었으나, 광해군의 인목대비(仁穆大妃) 폐출(廢黜)에 반대하여 낙향한 무관이었는데, 우병사 민영으로부터 "북쪽의 오랑캐들이 침노할 기세가 있으니, 만일 국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군사력이 미약하여 대항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 미리 속오군(束伍軍)을 소집하고, 지역의 장정들을 모아 훈련시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언질을 받고, 틈틈이 장정들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12월 22일 장정들을 소집하여 활쏘기와 조총 사격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던 중에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으로부터 청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안동진(安東鎭)으로 달려 나가니, 영장 선세강은 즉시 중군(中軍)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집에 돌아와 가묘(家廟)에 고하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나의 의기(義氣)로 어찌 살기만을 탐하겠느냐. 나는 왼손에 칼자국이 있고, 우측 다리에 흑점이 7개가 있으니 나중에 시체를 찾을 때에 이것으로 징험(徵驗)을 삼으라" 하였다. 며느리 주씨(朱氏)는 울면서 솜을 두텁게 넣어 수갑과 조끼를 만들어 드리고, 시어머니의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꿰매어 징표로 삼게 하였다. 그의 외아들 감(鑑)이 쫓아가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고 집을 나섰으나, 아들이 군복을 입고 검을 찬 채 따라왔다. 그러나 권극상은 아들을 야단쳐서 돌아가게 하고, 장정들을 인솔하여 영장 선세강 군진에 합류했다.[11]

권용휴(權用休)는 안동부의 향리로서 용력이 뛰어났는데, 자청하여 난에

10) 조선시대의 지방군을 말하며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있었다.
11) 『訥隱集』에서 인용하였다.

뛰어들었다. 그는 군기를 책임지고 군사들에게 배분 할 조총과 각궁 그리고 화약을 보급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쌍령으로 출발하는데 동참하였다.

청송(靑松)의 윤충우(尹忠祐)는 1621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訓練院) 첨정(僉正)에 이르렀으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에 회의를 느껴 사임하고, 향리인 청송에 낙향하여 있던 중 호란(胡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후배 신수(申樹)와 함께 분연히 일어났다. 우선 자기 집안의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출정시키고, 이어 인근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놓고, "국가가 오랑캐의 침입을 당하여 위기에 처해 있으니, 여러 젊은 동량(棟梁)들이 아니면 누가 나라를 구하겠느냐"고 호소하면서 의병으로 나설 것을 설득하니, 순식간에 100여 명이 모였다. 또한 지역의 선비들을 독려하여 군량을 확보하고,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신수를 부장(部將)으로 삼아 즉시 좌병사 허완의 지시대로 안동진(安東鎭)으로 달려가 남한산성으로 직행하였다. 신척(申滌)도 무관이었는데, 윤충우의 부장으로 출정하였다.[12]

경주의 손종로(孫宗老)는 1618년(광해군 10)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과 남포현감(藍浦縣監)을 역임하고, 낙향하여 고향에 머물던 중 감사 심연의 격문을 받고, 모친에게 고하고 출정을 결심하였다. 그의 모친은 아들의 말을 듣고 쾌히 승낙하면서, "참으로 조손(祖孫)의 마음이 한 결 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뜻이 같구나. 너의 조부님께서도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우셨으니, 속히 병사들을 모아 출정하라"고 격려하며 풀솜으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혀주었다. 손종로는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머니를 잘 모셔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후일 나의 시신을 찾을 때에 식별하기를, 왼팔에 검은 사마귀가 있고, 어머니가 입혀주신 방탄조끼로 징험을 하라"고 일렀다. 경주 양동지

12) 『雙槲殉節錄』에서 인용하였다.

방에 거주하고 있던 무관 박홍원(朴弘遠), 신적뢰(申適賚)를 소집하여 경주 강동지방에서 1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노비 억부(億夫)를 데리고 남한산성을 향하여 출정하였다.[13]

안동의 김몽린(金夢麟) · 김몽웅(金夢雄) 형제는 1621년(광해군 13)에 권극상과 함께 무과에 급제한 동료로서 교위(校尉)로 임명되었으나 출사(出仕)하지 않고 안동진에서 영교(營校)로 있다가 호란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인근의 장정들을 규합하여 일단의 의병대를 구성하여 형제가 함께 안동진에 들어가 선세강과 더불어 속오병을 교육시키고 허완 진영의 선봉장이 되었다. 박안제(朴安濟)와 남서(南恕)도 무관으로 안동진에 합류하였다.[14] 선세강은 향리(鄕吏) 권용휴(權用休)를 군기색(軍器色)으로 삼아 군기(軍器)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그의 아들 중영(仲英)도 부친을 따라 나섰다.

이기욱(李起郁)은 나이가 30세였으나 문무(文武)를 겸비한 사람으로 광해군 때 혼정(昏政)에 염증을 느껴 벼슬길을 단념하고, 고향에 은거하던 중 안동부(安東府)에서 "호란이 일어나 재주 있고 용감한 젊은이를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맏형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집에서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면서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위패에 고유(告由)하고 의기충천하여 자진 선세강의 안동진에 들어가 권극상과 함께 허완의 진영에서 중군(中軍)이 되었다.[15]

금한룡(琴漢龍)은 안동 예안(禮安) 사람으로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출사하지 않고 모친의 상을 당하여 시묘(侍墓) 중이었다. 그러던 중 예안(禮安) 현감

13) 『仁祖實錄』, 『尊周彙編』 『樂善堂實記』에서 인용하였다.
14) 『洛厓實記』에서 인용하였다.
15) 『殉義錄』에서 인용하였다.

으로부터 호란의 소식을 듣고, 그의 아우들과 함께 모친의 묘소에 가서 통곡하고 상복을 불태우며 "모자간의 정분이 두텁기는 하나, 국가의 존망 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해룡(海龍), 막룡(漠龍) 두 아우와 더불어 3형제가 인근 동리의 장정을 모아 안동진에 합류하였다. 그 밖에도 안동권씨 문중에서는 여러 사람이 의병으로 참전하였다.[16]

양석남(梁碩南)은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를 역임하였으나, 광해군 때 미움을 사 파직당하고 낙향하여 있던 중에 호란의 소식을 접하고 인근에서 수십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허완의 진영에 들어갔다.[17]

울산의 정대업(鄭大業)은 1594년(선조 27) 무과에 급제하여 북방의 위수장(衛戍將)으로 있었으나 광해군 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고향 언양(彦陽)에서 기거하다가 호란(胡亂)의 급보를 접하였다. 그는 같은 지역에 사는 동료 윤천록(尹天祿)과 함께 인근의 장정 수십 명을 모집하고 의병장이 되어 허완(許完)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는 체력이 뛰어나 호걸스럽고 활을 잘 쏘았으며 사냥을 잘 하였는데, 북방에서 맹수를 맨손으로 결박하기도 하여 육진(六鎭)에서는 장사로 불렸다. 당시 정대업의 나이 43세였다. 그에게는 젖먹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부인에게 서찰을 띄우기를, "장부가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아들이 장성하면 이글을 잘 보관하였다가 보여주시오" 하고 장도에 올랐다.[18]

오연(吳演)은 용양위 부사용(副司勇)을 지내다가 향리인 영양(英陽)에서 거

16) 『朝鮮王朝實錄』, 『尊周彙編』에서 인용하였다.
17) 『尊周彙編』, 『朝鮮王朝實錄』에서 인용하였다.
18) 『尊周彙編』, 『朝鮮王朝實錄』에서 인용하였다.

주하고 있던 무관인데, 호란의 소식을 접하고, 근동의 청년들을 모아 일단의 의병대를 구성하여 허완의 진영으로 출정하였다.[19]

영덕(盈德)의 강계남(姜誡南)은 노복(奴僕) 돌쇠를 데리고 창의하여 1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허완의 진영으로 들어갔다.[20]

조형도(趙亨道)는 선조 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역임하고, 경주영장을 3년간 지냈다. 광해군 때 사직하고 청송(靑松) 향리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으나, 호란의 소식을 듣고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허완의 진영으로 보냈다.[21]

영해(寧海)의 남무성(南武成)은 무과에 급제하고 봉사(奉事)직을 역임하였다가 사직하고 향리에 있던 중에 창의(倡義)하였다. 임진왜란 때 장병이 무수히 희생되어 창의하기가 몹시 힘든 고장이었으나 1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출정하였다.[22]

권숭립(權崇立)은 무관은 아니었으나 안동부사의 연락을 받고, 군량미 확보에 나서 안동진 군사들의 군량을 보급하였다. 아울러 의병을 모집하여 직접 나서려 했으나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어 그의 아우가 만류하여 직접 참전하지는 못하였다. 그의 아우가 모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병을 확보하여 안동진으로 보냈다.[23]

19) 『嶠南誌』, 『英陽邑誌』, 『醉睡堂集』에서 인용하였다.
20) 『尊周彙編』,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21) 『尊周彙編』,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22) 『尊周彙編』, 『朝鮮王朝實錄』,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23) 『尊周彙編』, 『嶠南誌』『安東邑誌』에서 인용하였다.

예천(醴泉)에서는 김호(金護)라는 진사(進士)가 창의하여 의병 수십 명을 이끌고 안동영장 선세강의 진영에 합류하였다.[24]

영천(永川)에서는 황만주(黃萬朱)가 창의하여 200여 명의 의병을 모집, 민영의 중군이 되어 출정하였다. 김윤려(金潤礪) · 김광려(金光礪) 형제도 무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함께 창의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25]

이처럼 경상좌도에서는 병마절도사 허완을 중심으로 병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2,000여 명의 병력을 확보하였으나 무기와 군수물자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안동지방의 유지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군량을 확보하여 보냈으나, 병사들에게 입힐 군복도 없어 의병들은 갑옷이나 투구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각자 조총이나 각궁(角弓)을 휴대하고 행군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상감사 심연은 종사관 도경유를 통하여 하루속히 진군하기를 독전하고 있었고, 명령을 받은 도경유는 확보된 병력으로 우선 출발하면 뒤에 감사 심연이 더 많은 병력을 마련하여 무기와 군수물자도 보급 할 것이니 속히 출발하라고 허완에게 엄한 지시를 내렸다. 당시 허완의 진영(鎭營)은 지금의 울산에 있었다.

1636년 12월 24일 울산을 출발한 허완의 본대는 새벽에 출발하여 그날 저녁에 안동에 도착하였다. 안동영장 선세강은 하루 먼저 1,0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발하여 충주에서 허완의 병력과 만나기로 하고 떠났다. 허완의 부대는 하루 뒤 안동에서 군수품을 보급하여 즉시 출발하였다.

24) 『尊周彙編』,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25) 『尊周彙編』,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경상우병사 민영의 출병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이 감사 심연으로부터 격문을 받은 것은 12월 22일 저녁이었다. 진주의 병영에는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 정규 군사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당황하였다.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으로는 당장 출정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주는 임진왜란 때 초토화되어 장정이 별로 없었고, 마땅히 모집할 의병도 없었다.

민영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한지 1년이 되었을 때였다. 막막한 현실에서 그는 창원부사 백선남(白善男)에게 김해영장이 병중에 있으니 대신하여 출병하도록 우선 요청하고, 감사 심연에게 병력의 규모를 물었으나 쓸만한 병력이 별로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므로 속오병을 소집함과 동시에 의병을 모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을 인솔하고 진주에서 대구로 출발하였다.

대구에 있던 감사 심연은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자기는 계속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하여 본진을 만들어 뒤쫓아 가야하니,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의 군사들을 통솔하여 급히 동행하라고 도경유에게 명령하였다.[26]

대구의 허득량(許得良)과 허복량(許復良)은 종형제(從兄弟)간이었는데, 허득량은 문무를 겸비한 장수였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문사(文士)가 되었으나, 한편으로 무예(武藝)를 닦아 신경진(申景禛)에게 사사하여 용무(勇武)가 탁월하였다. 1620년(광해군 12) 문무(文武) 양과에 급제하고, 도총부(都摠府) 도사(都事)와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하였으며, 1624년

26) 『朝鮮王朝實錄』, 『練藜室記述』에서 인용하였다.

이괄(李适)의 난 때에도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이괄 일당을 소탕하는데 공을 세워 절충장군이 되었다. 1628년(인조 6)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있던 중, 호란의 소식을 듣고, 두 형제가 급히 병사 100여 명을 모아 심연의 대구감영(大邱監營)으로 달려갔다. 그의 종제(從弟) 복량(復良)도 무과에 급제한 무관이었는데, 향리에 있다가 종형 허득량과 함께 창의(倡義)하였다.

심연은 허득량을 보자 반갑게 맞으며, 이 난국을 타개할 묘안을 물었다. 허득량은 심연에게 거침없이 말하기를, "병사 5,000만 주면 오랑캐의 남한산성 포위망을 뚫고 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감사 심연은 당장 내어 줄 수 있는 병력도 없거니와 있다고 해도 그에게 선뜻 내어 줄 수도 없었다.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종사관 도경유가 허득량의 요구대로 하자고 하였다. 허득량의 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인물이니, 그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한 것이다. 심연은 고민 끝에 당장 5,000의 병력은 없고, 좌 · 우병사의 병력을 합해야 8,000정도의 병력이니, 우선 그들과 함께 출정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허득량은 곧 민영의 군진으로 합류하였다.[27]

상주영장 윤여임(尹汝任)은 폭약 제조에 조예가 깊고, 조총을 만드는 데도 우수한 기량이 있어 광해군 시절에 조총 900여 자루를 제조하여 포상을 받아 선전관이 되었다. 1636년 봄에 상주영장(尙州營將)으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휘하에도 병력은 변변치 못하였다.[28]

윤여임은 부장 권박(權璞), 군관 강운서(姜雲瑞)와 함께 근왕병 출병의 격문을 받자마자 속오군(束伍軍)을 소집하고, 상주와 인근 지방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병력 확보에 나섰다. 강운서는 비록 군관이었으나 아무런 직책 없이 집에서 소일하다가 호란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내

27) 『朝鮮王朝實錄』, 『尙武軒遺稿』에서 인용하였다.
28) 『尊周彙編』, 『朝鮮王朝實錄』에서 인용하였다.

비록 직책은 없으나 임금이 난을 당하여 피해 있는데, 내 어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의 조카 기업(起業)을 데리고 상주영(尙州營)으로 향하였다.

윤여임은 전라도 김제(金堤) 출신으로 그와 동향인이자 절친한 사이였던 창원부사 백선남(白善男)에게 연락하여 창원 김해지역의 군병과 창의하여 확보한 의병을 속히 보낼 것을 부탁하였다. 상주진영에 합류한 의병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의성(義城)에서는 신적도(申適道) 의병장이 창의하였는데, 그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에도 의병장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었다. 세수는 70의 고령이었으나, 왕이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으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의기충천하여,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출사(出仕)를 대기 중이던 김엽(金燁)·욱(煜)·찬(燦) 등 3형제를 설득하여 김엽을 의병장으로 삼아 100여 명의 의병을 상주진영으로 보냈다.[29] 이사운(李士雲)은 동생 사립(士立)과 함께 창의하여 민영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김득민(金得民)은 광해군 시절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한 후 향리인 의성에서 살다가 호란의 소식을 듣고 창의하여 아들 호영(鎬榮)과 함께 일단의 의병을 모집하여 상주 군진으로 합류하였다.[30]

김천에서는 이언의(李彦儀)를 의병장으로 하여 정은신, 허흥인, 김진백 등이 8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민영의 진으로 출병하였고, 김대홍(金大鴻)·김대봉(金大鳳) 형제가 창의하여 100여 명의 의병을 확보하여 민영의 진으로

29) 『尊周彙編』, 『洛匡實記』, 『嶺南誌』에서 인용하였다.
30) 『兩世忠孝錄』, 『義城邑誌』에서 인용하였다.

합류하였다. 배시량(裵時亮)은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사람인데, 마침 모친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고향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상주의 군진으로 달려가 영장 윤여임과 합류하였다.

창원에서는 김해영장(金海營將) 황이중(黃履中)이 병중에 있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창원부사 백선남(白善男)이 대신하여 출병하였다. 12월 27일에 격문을 접하고, 상주영장 윤여임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정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나무를 깎아 작은 명패(名牌)를 만들어 성명을 써서 상투에 꽂아 넣고 무늬가 있는 옷감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은 후 두 아우를 불러놓고, "이번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니, 후에 내 시신을 찾을 때 이것으로 식별 하라"고 일렀다.[31]

그는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털모자 하나와 가벼운 옷 한 벌을 걸치고 확보한 병력 500여 명을 인솔하고 12월 28일 김해를 출발하여 밤새워 북쪽으로 달려갔다. 정규군은 많지 않고, 조덕유(曺德裕), 주선남(周善男) 등 무과에 급제한 군관 몇 명만이 있으므로 급히 속오군을 소집하였으나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병들은 방한복도 없이 허름한 복장으로 출발하였다. 상주에 도착하여 보니, 영장 윤여임은 이미 출발하였다. 떠날 때 산하 현령(縣令)과 현감(縣監)들에게 계속 모병하여 감사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추일(秋逸)이란 사람은 젊은 장정으로 분의(奮義)하여 의병을 모집,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창원부사를 따라 나섰다.[32]

칠곡(漆谷) 출신 이서우(李瑞雨)는 감사 심연의 막비(幕裨)로 500명의 경상감영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였는데, 그는 인조 초기에 무과에 급제한 후 용양

31) 『尊周彙編』, 『昌原邑誌』에서 인용하였다.
32) 『尊周彙編』, 『昌原邑誌』, 『仁祖實錄』, 『金堤邑誌』에서 인용하였다.

위(龍驤衛) 부사과(副司果)를 역임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교위(校尉)가 되어 경상감영의 감사 막비(幕裨)로 있으면서 감사의 명령을 받고, 즉시 출발하여 상주영장 윤여임과 합류하였다.[33]

청도(淸道)의 박우(朴瑀)는 무관으로 임진왜란 때 17세의 나이로 그의 숙부와 종형제들과 함께 창의하여 공을 세운 임진왜란 청도 14의사의 한 사람이다.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이괄의 난 때에도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일등에 녹훈되었다. 그 공으로 남포현감(藍浦縣監)을 지내다가 임기를 마치고 고향 청도에서 우거(寓居)하고 있다가 호란의 소식을 듣자 서자 상룡(尙龍)과 노복 둘을 데리고 며칠 늦게 청도를 출발하여 직접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그때 그의 나이는 환갑이었다.[34]

진주의 하계인(河繼仁)은 인조대 초기에 무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출사를 대기 중에 소식을 듣고, 민영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정복초(鄭復初)도 하계인과 더불어 창의하여 의병 수십 명을 모아 민영의 진영으로 합류하였다.

산청(山淸)의 홍성해(洪成海)는 임진왜란 때에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던 의병장이었으나 고령으로 직접 출정할 수가 없어, 지역의 유지들을 설득하여 군량미를 확보하여 민영의 진영으로 보냈다.

의령(宜寧)에서는 심눌(沈訥)과 그의 종형제 심양(沈諒)이 함께 출정하였다. 심눌은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을 역임하다가 향리에 내려와 있었

33) 『朝鮮王朝實錄』, 『尊周彙編』, 『廣州李氏族譜』, 『副正公實記』에서 인용하였다.
34) 『朝鮮王朝實錄』, 『尊周彙編』, 『淸道14義士錄』,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다. 그들은 1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민영의 군진으로 들어갔다. 심눌의 부친은 임진왜란 때에도 창의하여 순절한 심언청(沈彦淸)이고, 심양의 부친 심언명(沈彦明)도 임진왜란 때에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35]

고령(高靈)에서는 김영달(金永達)이 창의하였는데,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정유재란(丁酉再亂)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몸을 던져 자결한 김천일(金千鎰) 장군의 손자이다. 남한산성에 인조가 포위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가 내가 죽을 자리이다"라고 하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민영의 군진으로 향하였다.[36]

민영은 각 고을에서 창의한 의병들을 상주가 가까운 지역은 상주영장 윤여임 휘하로 편입시키고, 대구가 가까운 지역은 경상감영(慶尙監營)으로 집결시켜 허득량 휘하로 편입시켰다.

심연은 계속 모병하여 뒤따라 올라갈 것을 약속하고, 좌 · 우 병사로 하여금 확보된 병사들을 이끌고 하루속히 출발하도록 하라고 종사관 도경유(都慶兪)에게 지시하였다. 감사 심연이 파악한 군사력은 좌 · 우 병사의 군졸과 의병의 수를 합하여 선봉군으로 보낼 병력을 모두 합하여 8,000명을 넘지 못하였다.

좌병사 허완은 당시 나이가 68세의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을 겪은 맹장으로서 휘하의 군관들을 다그쳐 속히 대오를 갖추게 하였다. 속오병(束伍兵)을 소집하고, 부족한 병졸을 모집하기 위하여 각지의 현령과 현감으로 하여금 의병을 창의(倡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지들을 설득하여 군량미를 조달 받고, 화약을 준비하는 등

35) 『嶠南誌』, 『宜寧邑誌』에서 인용하였다.
36) 『尊周彙編』, 『朝鮮王朝實錄』, 『嶠南誌』에서 인용하였다.

선발대를 조직하여 출동하도록 온갖 힘을 기울였다. 안동영장 선세강은 우선 확보된 병력을 인솔하여 12월 24일에 출발하였는데, 중군 이인남(李仁男), 초군 허응상(許應詳), 의병장 정대업(鄭大業), 의병장 신흘(申屹), 의병장 양석남(梁碩南) 등이 함께하였다. 정규군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로 하여금 잠시 이기는 하지만 의병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무과출신 이기영(李起榮)을 군관(軍官)으로 삼고, 초관(哨官) 이택(李擇)으로 하여금 새로이 모집한 의병들에게 조총의 사용법과 활 쏘는 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허완은 오랑캐의 병력이 10만 대군인 것을 감안 할 때, 그들의 용맹스런 기병(騎兵)을 상대하여 전투를 하려면 자기 휘하에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에서 마냥 병력확보를 위하여 지체할 수는 없어 우선 안동진의 병력을 출발시켰다.

안동진에서는 선세강 영장(營將)이 자기 휘하의 병력이 불과 500여 명밖에 되지 않자 지역의 유력 인사로 하여금 의병을 모집하도록 요청하고, 휘하의 군관인 김몽린(金夢麟), 김영달(金英達) 등을 독려하여 휘하 정병(精兵)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의병장 권승립(權崇立)과 권재(權縡), 권세익(權世益) 등 안동권씨 가문의 의인들이 의병을 일으켜 선세강 진영에 합류하였고, 의병장 강봉일(姜鳳逸), 강순(姜恂) 등도 함께 의병을 일으켜 안동진에 합류하였다. 이홍조(李弘祚)는 문관으로서 사직하고 향리에 내려와 있던 중 호란의 소식을 접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수백의 의병을 모아 안동영장 휘하로 보내고 계속해서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리하여 선세강은 휘하에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출발하였다.[37]

37) 『安東邑誌』, 『嶠南誌』, 『五忠祠誌』, 『尊周彙編』에서 인용하였다.

상주영장(尙州營將) 윤여임(尹汝任)은 휘하의 군사와 의병장들의 병력을 합하여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확보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밖에 전식(全湜)은 문신(文臣)이지만 의병을 모집하여 윤여임의 군대에 합류하여 일부를 보내고, 의병을 더 모집하여 감사와 함께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1636년의 12월 겨울 추위는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폭설이 이어지고 살을 에는 추위가 계속되었으며, 길은 눈으로 덮여 발걸음을 내딛기가 힘들 정도였다. 경상도 좌우 병사의 군병들은 추위에 견딜 방한복조차 입지 못하였으며, 군량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출발하는 바람에 행군 도중에 식사 제공조차 어려웠다. 종사관 도경유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행군하기를 재촉하다보니 낙오자도 발생하고, 질병에 걸리는 자도 속출하였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무리한 줄 알면서도 행군은 계속되어 5일간을 주야로 달려 행군하니 군병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비록 이들 의병이 싸울 의지는 굳셌지만 실제 전투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병사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숫자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고, 행군하면서 제대로 급양이 되지도 못했으며,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자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었다. 결국 민영의 진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군관 박충겸(朴忠謙)이 우병사 민영과 좌병사 허완에게 이르기를, "장군님 이대로 무리하게 진군하다가는 병사들이 지쳐서 비록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오랑캐 진영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전투를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여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워 기력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 병사가 하는 말이, "그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세. 그러나 종사관의 성화가 저러니 어찌하겠나?"하였다.

종사관 도경유는 군령(軍令)이 지엄한데 일개 군관이 불복한다고 하면서 박충겸을 불러내어 군율로 다스리겠다며 즉결처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허병사(許兵使)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도경유가 칼을 뽑아 군관 박충

겸을 참수하고 말았다.[38] 주위에 있던 군관들이 모두 놀라고 기가 막혔으나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무리한 행군은 계속되었다. 감사의 종사관이란 경상감사의 지휘권을 위임받아 좌 · 우 병사를 통솔하는 직책이어서 병사(兵使)들은 그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충겸은 합천 출신으로 우병사 민영의 군관인데, 박충겸을 따라나선 그의 두 아들이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였고, 도경유를 증오하기에 이르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허완과 민영, 그리고 선세강, 윤여임 등 장수들은 종사관의 무리한 행군 명령을 보고 탄식하였다. 병법(兵法)을 모르는 문관(文官)이 무리한 행군만을 독촉하니, 이 전투의 결과가 불안하다고 탄식하였다. 물론 촌시가 급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백전노장인 허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는 탄식하기를, "이번 전쟁은 승리하기 어렵겠구나. 병법(兵法)도 모르는 문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니, 오랑캐와 접전하게 되면 어찌 승리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문관으로서 병법을 전혀 모르는 종사관 도경유가 감사 심연의 지시에 따르느라 군졸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군을 하였으니, 남한산성에 도착하여 적과 조우(遭遇)한들 싸울 기력이 있을 리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39]

그러나 양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행군을 강행하였고, 민영은 선발대를 이끌고 주야로 달려 출발한지 4일 만에 충주 땅에 도착하여 남한산성에 장계를 올렸다. "8,000의 근왕병(勤王兵)을 이끌고 충주 땅까지 왔는데, 곧 적진을 뚫고 산성에 도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8,000의 병력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

38) 『朝鮮王朝實錄』, 『練藜室記述』에서 인용하였다.
39) 『朝鮮王朝實錄』, 『江漢集』, 『練藜室記述』에서 인용하였다.

되지만 이 숫자는 『인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한편 종사관 도경유의 행동에 대한 왕조실록(王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헌부가 아뢰기를, "병란(丙亂) 때 경상감사 심연(沈演)이 종사관 도경유(都慶兪)를 좌우 병사의 진중에 보내 전투를 독려하게 하였는데, 접전이 시작되자 도경유가 먼저 도주하여 전군이 놀라 무너졌으므로 온 도내의 사람들이 그의 살점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심연은 사정에 구애되어 즉시 효시(梟示)하지 않았으므로 물정이 분하게 여김이 오랠수록 더욱 격렬합니다. 도경유를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마침내 평해군(平海郡)으로 정배되어 양지(陽智)에 도착했는데,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 이보다 앞서 도경유는 합천(陜川) 사람 박충겸(朴忠謙)과 혐의가 있었다. 심연의 종사관이 되었을 때 박충겸은 마침 민영(閔栐)의 관하에 있었는데, 도경유가 머뭇거린다는 핑계로 박충겸을 참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도경유의 아들 신승(愼昇)이 자기 아비의 죽음은 박충겸의 아들 유길(有吉) 등 세 사람의 보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격쟁(擊錚)하여 옥사를 일으켰는데, 끝내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해가 되도록 결정을 못하다가 대신이 의옥(疑獄)을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모두 풀어주었다.[40] (『인조실록』 1637년 5월 21일)

경상도의 근왕군 선봉대가 광주(廣州)의 쌍령(雙嶺)에 도착 한 것은 병자년(1636) 섣달 그믐날이었다. 쌍령은 남한산성에서 동남쪽 30여 리 떨어진 작은 고개가 연달아 둘이 있는 곳인데, 지금의 광주시(廣州市) 초월읍 대쌍령리(大雙嶺里)와 도평리(島坪里), 그리고 지월리(池月里)의 현산(見山) 마을이 있는

40) 憲府啓曰: "丙亂時, 慶尙監司沈演, 送從事官都慶兪於左右兵使陣中, 使之督戰, 則接戰之時, 慶兪身先逃走, 以致全軍驚潰, 一道之人, 欲食其肉, 而沈演拘於私情, 不卽梟示, 物情駭憤, 久而愈激 都慶兪請拿鞫" 上從之 遂定配于平海郡, 行到陽智, 爲人所殺 先是, 慶兪與陜川人朴忠謙有嫌 及爲沈演從事官, 忠謙適在閔栐管下, 慶兪稱以逗遛, 斬忠謙 至是, 慶兪之子愼昇, 以其父之死, 出於忠謙子有吉等三人之報復, 擊錚起獄, 竟因證左不明, 累年不決 大臣以疑獄, 不可輕斷, 遂皆釋之. (仁祖 15年 5月 21日).

곳이다. 좌 · 우 병사가 도착하였을 때에 경상도의 각 지방에서 먼저 출발한 병력은 그 전날 쌍령에 이르러 병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쌍령에 도착하여 더 이상 전진을 못 하였을까?

그것은 쌍령 고개를 넘으면, 광주 경안역(慶安驛)이 있는 곳인데, 비교적 평지이며 경안천이 흐르고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목으로 적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이곳을 지나면 바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오랑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중부면 오전리와 불당리, 그리고 동문 밖 엄현(奄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면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랑캐 진영과의 거리가 불과 10여 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사관 도경유는 남한산성으로 전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하였다. 30여 리나 떨어진 이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각 병사(兵使)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라고 하였다.[41]

도평리에 진을 구축한 좌병사 허완

좌병사 허완은 일단 도평리 일대에 진을 치기로 하였다.[42] 이곳의 지형은 마을 뒤로 쌍령 고개의 능선이 흘러 동산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곤지암천이 곡선을 그리며 흐르고 있고, 고개 너머에는 경안천이 흐르고 있다. 방어하기에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한 것은 군사들이 추위를 견딜만하게 아늑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41) 『江漢集』의 「許完行狀」에서 인용하였다.
42) 여러 기록에 허완은 좌강, 민영은 우강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임금이 있는 도성에서 볼 때 좌측을 지칭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좌강은 도평리에 해당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강은 대쌍령리가 되는 것이다.

허완은 진을 치기 전에 참모들을 모아 의논하였다. 안동영장 선세강을 비롯하여 중군장 이인남(李仁男), 경주의 의병장 손종로, 안동진의 중군 권극상, 영교 김몽린 군관 이택 등은 "지금 설한(雪寒)에 더하여 광풍(狂風)이 불고 있으나, 오랑캐의 진이 불과 20여 리 앞에 있으므로 평지에 진을 치면, 언제 그들의 기병(騎兵)이 기습을 할지 모르니, 마을 뒤의 능선에 진을 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좌병사 허완의 의견은 달랐다. 병사 2,000여 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병 아니면 훈련이 안 된 속오병인데, 이 추위에 능선에 진을 치게 되면 병사들은 방한복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태반이 동사하고 말 것이니, 마을 앞 평지에 진을 치고 목책을 치는 것이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종사관 도경유가 좀 더 남한산성 가까이 진군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오랑캐군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허완은 쌍령에서는 하루 내지 이틀만 있다가 진군하려고 하였다. 선세강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산위에 진을 치자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지휘권은 허완에게 있으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장수들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목책을 세우고 평지에 진을 치게 하였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서둘러 목책을 세우고, 병사들을 사방으로 배치하면서 1차로 조총수들에게 화약 2냥씩을 지급하고, 적이 50보 이내로 다가오기 전에는 절대로 발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조총의 유효사거리는 50~60보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허완은 안동영장 선세강의 안동진 군사들을 진의 맨 앞쪽에 배치하여 선봉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른 의병장들과 중군들도 배치하여 외곽을 경비하게 하고, 중앙의 본부에는 정예포수 300여 명을 배치하여 방비하게 하였다. 이에 선세강과 다른 장수들은 허완에게 건의하기를, 정예포수들을 전진 배치하여 적이 침범 할 때에 초전에 제압해야 하는데, 정예포수가 중앙에 배치되면, 오랑캐 기병의 습격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허완의 생각은 달랐다. 지휘부가 있는 중앙을 제대로 방비하여야 전위부대가 붕궤되더라도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 할

수가 있으므로 중앙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장수들에게 휘하 병력을 점검하라고 하여 병졸들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쌍령까지 오는 도중에 많은 수의 병졸이 이탈하여 상당수가 도망간 것을 파악하였다. 출발 할 때의 병력은 2,000여 명이었으나 진을 칠 때의 병력은 1,500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는 감사 심연이 곧이어 본진을 인솔하고 올 것을 믿고 있었으므로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때 해가 바뀌어 정축년(1637)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대쌍령리에 진을 구축한 우병사 민영

우병사 민영은 12월 30일 쌍령에 도착하였는데, 선봉대 일부는 이미 도착하여 있었다. 민영은 도평리에서 이웃하고 있는 쌍령 고개의 한편인 대쌍령리에 진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민영의 군진에서는 배시량(裵時亮), 허득량(許得良), 백선남(白善男), 허복량(許復良) 등 쟁쟁한 참모진이 있어 허완의 진영과는 달리 참모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형을 살펴보면, 뒤로 백마산(白馬山)의 줄기가 늘어져 내려와 있고, 앞으로는 쌍령 고개를 내려다보고 있어 적이 고개로 다가오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 할 수 있도록 진을 구축하였다. 민영의 군진에는 허완의 진영보다 조총수가 많았고, 따라서 조총에 사용할 화약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화약상자를 진의 중앙에 보관한 후 화약을 감시하고 분배 해줄 감관 2명과 병사 20여 명을 배치하였다. 진을 구축한 후 포군인 조총수에게 화약 2냥씩을 분배하여 주었다. 허득량의 종제인 허복량을 선봉장으로 삼아서 쌍령고개 너머 경안천 주변의 경안역이 있는 주막리 일대를 순찰하게 하였다. 정월 초이틀 아침에

허복량이 경안천변으로 나갔다가 오랑캐의 기병을 발견하여 몇 명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끌고 돌아왔다.[43]

민영은 기뻐하며 그를 칭찬하였다. 오후에 다시 허복량이 나갔다가 매복하여 있던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부하들이 그를 업고 진으로 돌아왔으나 끝내 운명하고 말았다. 민영은 큰 장수 하나를 잃어 슬픔에 잠기면서 진중 언덕에 가매장하고 제문을 지어 제를 올려 주었다.

狂虜勢陸梁　미친 오랑캐 세력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愧我無籌策　나는 부끄럽게도 대책이 없구나
復矢招英魂　돌아가 영혼을 부르려하나
蒼茫曉月黑　멀고 아득 하기만 하여 새벽달이 검게만 보이누나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합류

1635년 공청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한 이의배(李義培)는 이듬해인 1636년 12월 19일에 조정으로부터 격문을 받았다. 호란의 소식을 듣고 즉시 지방의 속오병을 소집하여 병력이 2,000명 가까이 되자 바로 출정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해미영장 이근영(李根永)과 부장 이차형(李次衡), 그리고 비장(裨將)으로 이억(李檍), 종제(從弟)인 이천배(李天培) 등 쟁쟁한 군관들이 있었다. 특히 이천배는 17세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당시 나이 19세의 약관이었다.

가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부인에게 백주(白紬)로 행전을 만들게 하여 청금(靑錦)으로 바지 속 양 다리에 동여매니,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묻는 말에 "전

43) 『尙武軒遺稿』에서 발췌하였다.

쟁에 임하여 사생을 알 수 없는데, 후일 이것으로써 내 시신을 알아차리게 함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고군(孤軍)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향하였다. 당시 충청도에는 청주에 충청감사가 있었고, 공주에는 영장이 있었다. 남한산성이 가까운 청주에서 감사 정세규는 청주영장을 비롯하여 인근의 병력을 모아 일찍 출정하였으나, 이의배는 당시 감영이 서산의 해미에 있었으므로 떠칠 늦어졌던 것이다.

12월 24일경 이의배의 병력은 죽주산성[44]에 도착하여 산성에 머무르면서 선봉장 이근영으로 하여금 적정을 살피도록 지시하였다. 죽주산성에서 남한산성을 가려면, 용인의 백암을 거쳐 곤지암을 경유 경안역을 통하여 동문을 향하는 길이 있고, 용인 백암에서 현 용인 양지를 거쳐 구갈과 수지를 경유 탄천을 지나 남문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이의배는 이곳에서 탄천 일대에 수만의 오랑캐 기병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 휘하의 병력으로 그 오랑캐 진영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남한산성의 조정에서는 이의배가 죽주산성에 머무르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진군하기를 꺼리고 있으니, 그를 참수하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 해미영장 이근영과 이차형은 이의배에게 건의하기를,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으므로 내일 미명에 우리 선봉대가 성을 나가 백암을 거쳐 탄천 쪽으로 진격 하겠다고 하였다. 이의배는 패전이 뻔한지라 그들을 보낼 수도 없고 아니 보낼 수도 없어 일단 선봉대를 출정시켰다. 선봉대가 출발 한지 불과 한나절 만에 급히 전령이 왔는데, 선봉대가 용인 어느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오랑캐 군이 양쪽에서 기습을 가하여 전군이 몰살당하였다는 보고였다. 그 무렵 영남의 근왕군이 쌍령에 도착한다는 전갈이 왔다. 이의배는 즉시 휘하 군사들을 독려하여 쌍령을 향하여 출진하였다.

44) 현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산성이다. 병자호란 당시는 죽산현이었다.

쌍령에 도착한 이의배의 병력은 1,000명이 되지 못하였다. 도중에 경상도 청도에서 몇 십 명의 의병을 이끌고 올라오는 전 현감 박우(朴瑀)를 만났다. 이의배는 박우가 영남 근왕군이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발하였으나 미쳐 동행하지 못하였으니, 충청병사 진영에 합류 하자고 하여 그를 맞아들였다. 이의배의 충청도 근왕군이 쌍령에 도착한 것은 정월 초하루였다. 그는 민영을 만나 비록 적은 병력이나 우병사 민영의 진지 옆에다 진을 구축하고 함께 싸우자고 제의하여 서로 합의하였다. 이의배의 군사들은 궁수(弓手)와 포군(砲軍)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병은 전혀 없었다. 포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인데,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였다.

김충선의 남다른 출정

김충선(金忠善)은 본래 일본 장수였다. 일본 이름은 사야가(沙也可)로서 1592년 임진왜란 때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휘하 장수로 2,000여 병력을 이끌고 부산포에 상륙하여 싸우다가 명분 없는 전쟁을 포기하고 일본보다 훨씬 예의바르고, 문명이 발달한 조선을 동경하여 귀화한 장수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조총의 제작법을 전수하여 조선에서 조총을 생산하였으므로 그 공이 인정되어 선조임금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고, 본관을 사성김해(賜姓金海)로 하도록 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 때도 공을 세워 정헌대부(正憲大夫)의 관직을 하사받고, 경상도 달성의 우록동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고, 병자호란 당시에 66세의 고령이었다.

1636년 겨울, 만주의 오랑캐들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범했다

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150여 명의 의병과 수하 장수를 이끌고 한양을 향하여 출정하였다. 그의 휘하 장졸들은 모두 조총(鳥銃)과 도검(刀劍)으로 무장하고 경상 좌우병사의 군사들보다 먼저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때 폭설과 한파로 행군은 매우 어려웠지만 주야로 달려 남한산성 앞에 도착하였으나 적세가 풍우(風雨)와 같아 산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경상도 근왕군이 광주 쌍령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곳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을 만났다. 그들은 김충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좌 · 우 병사는 제각기 자기 진영에서 싸워 줄 것을 요청하므로 입장이 곤란해진 김충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스스로 최전방에 서기로 하고, 좌 · 우 진영보다 앞쪽인 경안천 부근 길 옆 숲속에 독자적으로 진을 쳤다.[45]

오랑캐 기병의 공격과 안동영장 선세강의 최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던 오랑캐군은 동문 밖 불당리와 검복리 일대에 패륵(貝勒) 악탁(岳託)[46]의 기병 6,000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영남에서 근왕군이 쌍령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공격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2월 30일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몹시 심해 앞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날씨가 험악하고 추위가 극심한 틈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영남군의 숫자가 많아 인해전술로 다가온다면 방비하기가 어려울 것도 생각하였을 것이다. 오

45) 慕夏堂集에서 인용하였다.
46) 패륵은 오랑캐의 계급명이고, 악탁은 이름인데 이는 후금의 개국자인 누르하치의 손자이자 청 태종 홍타이지의 조카이며, 홍타이지가 왕위에 오르는데 적극 활약한 자로 알려져 있다.

랑캐들은 근왕군의 동태를 세밀히 파악하고 있었고, 좌 · 우 병사의 진지 구축 상황도 면밀히 파악하였다.

그들의 공격 루-트를 알아보기로 하자. 당시의 도로상황은 남한산성에서 영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의 중부면 검복리 · 불당리 · 오전리(둔전말) · 목현1통(새오개) · 회덕동 · 탄벌동 · 경안역(현 역 1통) · 경안교 · 쌍령동 · 대쌍령리 · 곤지암리 · 묵방리 · 넉고개를 경유해서 이천을 경유하여 여주를 거쳐 충주 조령을 넘어 영남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오랑캐의 기병부대 일부는 동문 바로 밖인 검복리(黔伏里)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일부는 불당리(佛堂里)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불당리에 주둔하고 있던 기병들이 정월 3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쌍령의 조선군을 공격해 왔다. 불당리를 출발한 기병들은 대로를 따라 오전리(梧田里)의 둔전말을 넘어 새오개(鳥峴)를 거쳐 경안천(慶安川)에 이르러 병력을 둘로 나누어, 일부는 얼어붙은 경안천을 따라 지금의 지월리(池月里) 방면으로 진출하여 현산(見山) 마을로 진입하였다.(104~105쪽 지도참조)

척후병으로 30명을 먼저 근왕군 진지로 보내 탐색전을 벌이게 하였다. 이어 300의 기병을 보내 좌진을 공격하게 하였다. 좌병사가 진을 치고 있는 도평리 뒷산과 옆 마을 현산(見山)에서 내려다보고 활을 쏘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근왕군 좌병사 진의 목책(木柵) 뒤에서 조총으로 반격하니, 접근하던 오랑캐들이 즉사하였다.

한편 오랑캐군의 남한산성 동문 본진에서는 3,000여의 기병이 불당리에서 오전리를 거쳐 조현(鳥峴, 현 목현리)을 넘어 탄동(현 탄벌동)을 경유하여 경안천에 이르렀다. 이어 정월 초사흘 미명에 일부는 얼어붙은 경안천을 따라 지금의 지월리를 돌아 현산 마을을 넘어 쌍령의 좌진(허완의 진)을 공격하였으며, 또 다른 오랑캐군은 경안교를 건너 쌍령고개를 넘어 진격 해왔다. 적들의



쌍령전투 근왕군의 포진(일러스트 민유이)



쌍령전투 오랑캐군의 공격 루-트(일러스트 민유이)

기습에 당황한 선세강의 선봉군은 일제히 조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2냥의 화약으로는 5~6발을 쏘고 나면 그만이었다. 화약이 떨어지자 선봉군 진영에서는 빨리 화약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오랑캐 군진에서 이 소리를 들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책을 부수며 1,000여 기병이 돌진하여 아군 진영으로 쏜살같이 들이닥쳤다. 선세강의 선봉군은 화약이 떨어지자 사수들이 활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랑캐의 창검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병사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검을 쓰는 군관도 많지 않아,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지도록 활을 쏘았지만 적 기병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좌진의 선봉장 선세강은 당초에 이곳에 진을 친 것을 후회하였다. 그는 아무리 추위가 견디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평리 뒷산(국수봉) 능선에다 진을 쳐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장(主將)인 허완의 명령으로 산 아래에 진을 구축하고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 적의 기습을 받고 보니 너무도 방어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그의 휘하 병사들은 정예포수들이 아니었다. 병사 허완이 진의 중앙에 정예군을 배치하고, 미숙련 포수들을 전진 배치하였으므로 적이 나타나자, 사거리 내에 적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발사 명령도 없이 마구 조총을 쏘아댔던 것이다. 처음 오랑캐 기병 몇은 조총을 맞고 쓰러지기도 하였다. 화약이 떨어져 조총을 쓸 수 없게 되자 활로 공격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활은 근접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목책 부근의 최전방 병사들이 적의 창검에 쓰러져 갔다. 목책을 넘어 도망가려는 병사와 적의 창검을 맞고 쓰러진 병사가 뒤엉켜 목책 앞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선세강은 휘하 장수들에게 차고 있는 검으로 대항하여 적의 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면서 손가락이 헤어지도록 연거푸 활을 쏘았다. 그러나 그의 화살은 적들의 목방패에 걸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선세강의 몸에는 적의 화살이 수없이 박혔다. 힘이 점점 빠지는 와중에 적의 화살 하나가 다시 그의 몸에 명중하였다. 중군 권극상과 영교(營校) 김몽린이 달려와 보니, 선세강은 이미 숨

을 거두고 있었다. 권극상과 김몽린의 노복이 말을 끌고 와서 위태한 지경이니, 빨리 이 말을 타고 탈출하라고 하였지만 권극상은 노복에게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이다"라고 하면서 부하 몇 명과 함께 검을 빼어들고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의 칼에 오랑캐 병사 몇 명이 쓰러졌다. 김몽린도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전하랴" 하면서 계속 적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러 10여 명의 적을 죽였으나 오랑캐의 창검에 그의 몸 10여 군데를 찔렸다. 이때 그의 아우 김몽웅(金夢雄)도 함께 오랑캐 창검에 찔려 쓰러지고 말았다. 경주의 전 현감 손종로의 막하 박홍원이 손종로에게 다가와 소매를 끌면서 목책을 넘어 살 길이 있으니,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고 하였으나 손종로는 "장수가 죽을 곳을 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복을 불러, "너는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다오" 하면서 노복을 보냈다. 이어 또 다른 노복 억부(億夫)와 함께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적에게 화살을 날려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적의 위세가 워낙 강하여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47] 이처럼 선세강의 선봉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유린당하여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의병장 김충선의 용전분투

김충선(金忠善)은 의병 150여 명을 이끌고 쌍령고개에서 경안천 쪽으로 내려와 경안교 부근 길옆 산속에 진을 치고 있었다. 김충선은 그의 휘하 병사들에게 화약과 창검을 충분히 나누어주고, 적의 기병이 지나갈 길목 숲속에 매

47) 『樂善堂集』에서 인용하였다.

복하여 유효사거리인 50~60보 앞에 오면 일제히 사격하도록 지시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1637년 정월 초사흘, 날이 새기 전인 자시(子時)와 축시(丑時) 경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리며 아침까지 이어졌다. 날이 밝아 살펴보니, 철갑(鐵甲)을 한 오랑캐 군사들이 구름 같고 개미떼 같은데, 경안천(慶安川)변으로 가득하고 창검이 해를 가릴 만큼 숫자가 많았으며, 계속하여 쌍령고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김충선의 군사들은 모두 정예 포수였다. 김충선은 부하 군졸들에게 엄중하게 호령을 하기를, "대오를 엄히 정돈하고 군기(軍旗)를 100보 앞에 꽂으라" 하고, "적이 깃발 안으로 들어오면 발포하되, 그전에 발포하는 자는 참할 것이다" 하면서 대오를 3대로 나누어 총을 장진하여 먼저 1대가 발포하고 뒤로돌아 다시 장진하고, 2대가 앞으로 나아가 발포하고 돌아서면, 3대가 나아가 발포하는 방식으로 연속 발포하여 적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조총은 한 번 발사하고 다시 발사하려면 화약을 장전하는데 약 3분 내지 5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대오를 셋으로 나누어 앞줄에서 사격하고 물러나면 뒷줄이 앞으로 나가 발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던 것이다.[48]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오랑캐군이 방패를 들고 징소리와 북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깃발을 휘두르며 진격을 해오는데 그 위세와 살벌한 기세는 대단하였다. 김충선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적을 향해 발포를 명하였다. 오랑캐의 앞선 군사가 낙엽 지듯 쓰러졌다. 얼마가 죽었는지 셀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랑캐의 후군이 맹렬하게 질풍같이 이어서 들이닥쳤다. 김충선은 친히 북을 울리며 군졸들을 지휘하였는데, 날이 밝으면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사격을 계속하였다. 적의 시체가 진 앞에 산같이 쌓이고, 피가 도랑

48) 『慕夏堂集』에서 인용하였다.

에 가득하게 흘렀다. 적은 시체를 치우느라 야단이었고, 김충선의 진영에서는 계속 발포하므로 드디어 오랑캐들이 퇴각하였다. 김충선은 경안교까지 뒤쫓아 사살한 적의 코를 베게 하여 전대(戰袋)에 담았는데, 수효를 셀 수가 없었다. 김충선은 휘하 군사들에게 이제부터 적진에 들어가 수급을 많이 가져오는 자는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부장 김계충(金繼忠), 김융수(金戎守), 김성인(金誠仁), 김귀성(金貴成) 등 용맹한 장수들이 적진에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여 이르는 곳마다 오랑캐들을 풀 베듯 하였다. 수급을 많이 베어오자, 김충선은 용기를 주어 또다시 적진으로 돌격하여 더 많은 수급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싸우던 김성인도 힘이 다해 오랑캐에게 포위되었고 적들의 칼 아래 죽고 말았다.

잔여 병력만으로는 오랑캐의 대군과 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김충선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입성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앞서 나간 오랑캐군이 좌병사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병사의 진을 공격할 즈음 아군의 진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우병사의 진도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경상도의 근왕군이 무너지면서 김충선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군사를 데리고 달성의 우록동으로 돌아갔다.[49]

좌병사 허완의 최후

선봉장 선세강의 안동진이 무너지고, 오랑캐의 기병 수천 명이 들이 닥치자 허완의 중군(中軍)인 이인남(李仁男)은 겁을 먹고 휘하 병사들을 데리고 진

49) 김충선의 『慕夏堂集』과 아들 金敬元이 쓴 「병자호란실기」에서 발췌인용하였다.

밖으로 도망하였다. 또 선세강의 남은 군졸들도 거의 도망하고 말았다. 정예 포수들로 구성된 허완의 중앙 진지에서도 갑자기 밀려오는 오랑캐 기병의 돌격에 제대로 총을 쏴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허완이 손수 북을 치며 독전하여 정예 포수 300여 명을 진 밖의 산 위로 포진하게 하고, 사수 200여 명을 동시에 포진케 하여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적의 숫자가 워낙 많고, 기병으로 돌격해 오니 제대로 대항하지를 못했다. 허완의 군관 성응천(成應天)이 군졸을 불러 말을 가져오게 하고 허완에게 건의하기를,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빨리 말에 오르십시오." 허완이 대답하기를, "그래 네 말이 옳다. 내 나가마. 너희들은 걸어서 가야하니 속히 나가거라" 하였다. 성응천과 군졸이 진 밖으로 뛰어나가며 뒤를 돌아보니, 허완이 패도를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고 있었다. 이는 곧 패전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스스로의 목숨으로 대신한 것이리라.[50]

우병사 민영의 최후

정월 초사흘 아침 허완의 좌진을 공격하여 무너뜨린 오랑캐의 기병이 이번에는 민영의 우진을 공격해왔다. 우진은 좌진과는 달리 방비가 튼튼하였다. 군사들은 정예 포수도 많았고, 병력도 좌진보다 많았다. 처음 오랑캐 기병이 목책 앞에 왔을 때, 준비된 포수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총 공격을 하여 상당히 많은 기병이 쓰러지자 오랑캐군은 주춤하고 물러섰다. 그러나 다시 적이 공격 해 오는데, 화약이 떨어진다는 포수들의 소리가 들려 지휘부에

50) 「許完神道碑文」, 『仁祖實錄』, 『尊周彙編』에서 인용하였다.

서는 포수들에게 빨리 화약을 분배하라고 소리쳤다. 민영의 진에서도 화약을 2냥씩만 분배하여 금방 소진되었기 때문에 진 중앙에 쌓아 두었던 화약을 군사들에게 더 분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화약더미에 불붙은 화승이 떨어져 폭발이 일어났다. 뇌성벽력과 같은 폭음과 함께 화약을 배분받으려던 병사 1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하고, 화약을 배분하던 감분관(監分官) 2명도 폭사하였다. 진중에는 연기가 자욱하여 앞을 분간 할 수가 없었고, 놀란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군진의 질서는 무너졌고, 장수들은 우왕좌왕하였다. 이틈에 돌격 해오는 오랑캐 기병들을 활로 대항 하거나 창검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민영을 비롯한 허득량, 윤여임, 백선남 등 영장과 장수들이 최후까지 물러서지 않고 오랑캐와 싸웠으나 모두 순절하고 말았다. 감사 심연의 종사관 도경유가 가장 먼저 진을 이탈하였고, 많은 속오군과 의병들이 도망하기에 바빴으며, 남은 군사들은 배시량(裵時亮)이 수습하여 충주방면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51]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최후

죽주산성에서 부장 이근영과 이차형을 잃은 이의배는 남은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쌍령에 도착해 민영의 진 옆에 배치하고, 그의 종제 이천배(李天培)와 비장 이억(李檍), 안삼오(安三五)와 더불어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바로 옆 민영의 군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휘하의 군사들이

51) 『尙武軒遺稿』, 『練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 등에서 인용하였다.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오랑캐의 기병들이 돌격해 들어왔다. 사태가 이미 기운 것을 간파한 이의배는 이곳이 나의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고,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활을 쏘아댔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그의 비장 안삼오와 노복 조축생이 말을 대령하고 속히 탈출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화살을 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진중에는 이미 화살이 동이 났다. 그는 검을 가져오라고 외쳐 칼을 들고 적과 대적하여 오랑캐 여러 명을 죽였으나 결국 적의 창에 맞아 순절하고 말았다. 당시 그의 나이 환갑이었고, 때는 1637년 정월 초사흘이었다.

병사 이의배가 전사한 후에도 이천배는 남은 병사 100여 명과 비장 이억의 의병 수십 명을 데리고 사력을 다하여 적과 싸웠다. 이억은 손가락이 헤지도록 활을 쏘아 많은 적을 죽였고, 화살이 떨어지자 검을 잡고 적과 싸웠으나 검마저 부러지는 바람에 적의 창에 찔려 순절하고 말았다. 이천배는 휘하 군사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오랑캐와 싸우다가 1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순절하고 말았다.[52] 이천배는 불과 19세의 청년이었다.

상주영장 윤여임의 혈전

상주영장 윤여임은 민영의 우진 중군으로 참전하였다. 그는 출정 할 때에 순국을 맹서하고, 미리 붉은 비단 천으로 다리와 정강이를 싸서 묶어 후일 시신을 찾을 때 징험을 하도록 집안사람들에게 이르고 출정하였다. 그는 민영의 진에서 선봉군을 지휘하며 허득량과 함께 맨 앞에서 싸웠다. 이때 쌍령에

52) 『仁祖實錄』, 『練藜室記述』, 『承政院日記』, 『尊周彙編』, 「李義培神道碑文」 등에서 인용하였다.

서 적세를 살펴보니, 대단히 사나워서 대적하기가 어려움을 간파하였다. 병사 허완의 좌진이 무너지고 오랑캐군이 우진으로 공격해오자 그는 애마의 안장을 풀어 놓아주고,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죽을 때라고 마음먹고 결사항쟁을 준비하였다. 데리고 온 노복과 군졸에게 화살을 준비하라 명하고는 활을 쏘며 적과 싸웠다. 활에 화살이 머무를 사이도 없이, 손가락이 모두 찢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활을 쏘아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그는 옷소매를 찢어 흐르는 피로 '許身殉國不得終孝'[53]라고 쓴 후 가동(家僮)에게 주면서 "너는 돌아가 내 노모에게 전하여라" 하고 계속해서 활을 쏘았으나 마침내 화살이 떨어졌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무기는 검이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달려가 여러 명의 오랑캐를 죽였으나 그의 몸에도 적의 창을 수없이 맞아 장렬히 순절하였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아른 아침의 일로 그의 나이 56세였다.

창원부사 백선남과 황시헌의 충절

창원부사 백선남(白善男)은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지내다가 창원부사로 승진하여 부임한지 1년이 채 안되어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원래는 김해영장 황이중(黃履中)이 출정하여야 하지만 그의 병이 중하여 대신 백선남이 출정하게 되었다. 창원은 남한산성과 워낙 거리가 멀어 가장 늦게 도착했는데, 백선남의 군사들은 1637년 정월 2일에야 쌍령에 도착하였다. 경상도 좌진과 우진은 이미 진을 구축하고 있었고, 맨 나중에 도착한 공청

53) 이미 나라 위해 바친 몸, 종내 효도 못 하겠습니다.

병사 이의배의 진이 우병사 민영의 진 바로 옆에 있었다. 백선남의 군사는 병력도 적고 군세도 약하여 이의배의 진에 가까이 진을 쳤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새벽에 적의 기습을 받았는데, 좌진이 먼저 무너지고 우진으로 공격해오자 처음에는 조총으로 맞서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민영의 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우진이 동요하면서 군사들이 도망하고, 종사관 도경유도 도망하여 적의 날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백선남은 도망하는 군사들을 힐책하며 최후까지 목숨을 버리고 싸우자고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창원부리(昌原府吏) 황시헌(黃是憲)은 백선남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적의 사나운 공격에도 끝까지 이탈하지 않았다.

백선남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였다. 두 아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 전쟁에서 생환하기 어려울 것이니, 내가 지니고 가는 목패(木牌)와 몸에 감고 있는 오색반의(五色班衣)로 나중에 시신을 찾으라"고 하였다.

정월 초사흘 새벽에 근왕군을 기습한 오랑캐와 한나절이 지나도록 치열한 격전을 벌였는데, 백선남의 진에서는 오후에야 격전이 벌어졌다. 저녁때가 되면서 적은 백선남의 군진 뒷산에서 홀연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격해 왔다. 그 기세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듯 하여 백선남의 군졸들이 무수히 전사하였다. 그러나 백선남은 물러나지 않았으며, 장검을 빼어들고 오랑캐의 진영으로 달려 들어가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순절하고 말았다. 운명하기 직전 옆에 있던 부리 황시헌에게 창원부의 부인(符印)을 넘겨주며, "이 부인을 네가 잘 간직하였다가 새로 부임하는 부사에게 전하거라" 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황시헌은 넘겨받은 부인을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았으며, 오랑캐들이 손에 쥔 것을 빼앗으려고 하자 더욱 꽉 움켜쥐고 내 놓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오랑캐가 황시헌의 오른팔을 칼로 내리치자 황시헌은 왼손으로 부인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오랑캐들이 황시헌의 왼팔마저 칼로 내리쳐 결국 부사와 부리 두 사람이 함께 순절하고 말았으니 크나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백선남

은 56세, 황시헌은 31세였다.[54]

경상감사 심연의 본진과 종사관 도경유

경상감사 심연은 허완과 민영, 두 병사(兵使)를 종사관 도경유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여 선봉군으로 삼아 급히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고, 후방에서 더 많은 군사를 확보하여 본진을 구성하여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그는 각 지방의 수령들을 독촉하여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확보하여 양 병사의 뒤를 쫓아 행군을 시작하여 1637년 정월 6일경에 여주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영남의 근왕군 선봉이 쌍령에서 패전하여 궤멸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전의를 상실하고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조령으로 후퇴하였다. 선봉군이 패하였으면, 본진을 이끌고 선봉군에 이어 적과 맞서 싸워야하거늘, 그는 도망치다시피 조령으로 후퇴하였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감사 심연은 오랑캐군이 자기를 뒤쫓아 오는 줄 알고, 조령을 급히 넘어 잠을 잘 때에도 신발을 벗지 않고,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하였다고 한다. 『연려실기술』의 심연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경상감사 심연이 충주(忠州) 목계(木溪)에 와 있으면서 끝내 전진하지 않다가 여주(驪州)에 이르러 쌍령의 패전 소식을 듣고 조령(鳥嶺)으로 달아나서 창의대장(倡義大將) 전식(全湜)과 회합하였는데, 전식이 인솔하고 있는 군사는 선비와 종 수백여 명에 불과하였고, 그 군사도 참모관들에게 나누어주어 거느리게 하고 전식은 다만 사대부 6~7명과 더불어 조령과

54) 『朝鮮王朝實錄』, 『嘉周彙編』, 『湖南丙子倡義錄』, 『靑谷祠立案』, 『金堤邑誌』, 『昌原邑誌』에서 인용하였다.

죽령(竹嶺) 사이에 숨어 다녔다.

심연은 말안장을 풀지 않고 자는 곳도 자주 바꿔 항상 자객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적이 온다고 잘못 전했기 때문에 감사 이하가 각자 말을 채찍질하며 달아나다가 거짓임을 깨닫고 모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심연은 뒤에 임파(臨陂)로 귀양 갔다.[55]

한편 심연의 종사관이었던 도경유는 무리한 행군을 독촉하였다. 각 지역에서 창의한 의병들이 미처 모이기도 전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행군을 강행하여 병사들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하여 군관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허완은 병법(兵法)도 모르는 문관이 저와 같이 독촉만 하니, 우리 군사가 남한산성에 이르러 적과 싸운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였다. 1637년 정월 2일에도 도경유는 남한산성으로 빨리 진격해야 한다며, 허완과 민영에게 다음 날인 정월 초사흘 아침 일찍 출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록에서 나온다. 도경유에 관한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심연이 전 서윤(庶尹) 도경유(都慶俞)를 종사관으로 삼아서 군중의 일을 일임하였다. 도경유가 우병사의 군관 박충겸(朴忠謙)의 목을 베어 위엄을 보이고, 너무 급하게 진군하기를 독촉하여 먼 고을의 군사는 반 이상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군량(軍糧)이 후방에 있었으나 부득이 진병하였다. 군졸이 의장(衣裝)을 모두 버리고 입고 있던 홑옷도 짧게 자르고 해가 질 때까지 행군하니, 얼고 굶주려 군사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쌍령(雙嶺)의 패전 원인이 모두 도경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경유는 쌍령의 군진에서 화약이 폭발하고 진이 무너져 사졸들이 도망가

55) 『練藜室記述』, 『龍洲集』에서 인용하였다.

고 아수라장이 되자 군진을 이탈하여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병사(兵使)들과 각 영장(營將), 그리고 여러 의병장들은 목숨을 초개(草芥)같이 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순절하였으나 쌍령전투의 최고 책임자 두 사람은 자기 몸을 아껴 피신하기에 바빴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도경유는 결국 쌍령전투의 책임을 물어 유배되어 가다가 용인 양지에서 누군가의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다음은 남급(南礏)의 『신안세고(新安世稿)』, 『난리일기』에서 발췌한 쌍령전투에 대한 기록을 요약한 것이다.

> 12월 그믐께 광주 쌍령에 적진과 불과 30리 상거에 진을 치니 척후를 보내지 아니하여 적의 군마가 이미 아군을 포위한 것도 알지를 못하였다. 해가 저물 때 허완은 남쪽에 진을 치고, 민영은 북쪽에 진을 쳤다. 일등 포수와 정예 초군에 령을 내려 군진 앞에 세워 방위하게 하고 하등(下等) 포수로는 외곽에 진을 치게 하였다. 이에 한 사람당 화약 2냥 씩 지급하였다. 초관(哨官)으로 있는 이택(李澤)이 큰소리로 일등 천총을 부르니, 배극인(裵克仁)과 이기영(李起榮)이 말하길, 외곽이 든든하지 않으면 중심도 지키기가 용이 하지 않다고 한다. 그때에 이기인이 허 병사(許兵使)의 앞에 섰는데, 허 병사가 말하길, "일등이 많지를 않아서이다" 하면서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3일 되던 날 해가 뜬 뒤에 적은 붉은 깃발을 산위에 세우고, 한 병졸이 병기(兵器)도 없이 다만 목방패(木防牌)만 가지고 깃발을 휘두르며 앞서서 전진해 오고, 그 뒤로는 병기를 가진 자들이 연하여 2~3인이, 그다음은 5~6인이, 그다음 점점 많게 무릇 33인이 연속으로 전진하므로 아군 사수 포수 50~60인이 나가 맞아 싸워서 적의 용맹스런 한 병사가 탄환을 맞고 즉사를 하였다. 포수 등이 연속으로 어지럽게 쏘아대니 적이 공격을 못하였다. 화약이 다 떨어졌다. 화약을 더 달라고 말하려는데 일등 군과 정예 초군이 화약을 더 보내달라는 소리를 군중이 일제히 소리치니, 적이 들어 알고 목책을 넘어 돌입하였다.

아군은 수라장인데 일등 포수나 정예 초군이 총 한 방, 화살 한 대를 쏘지 못하고 무너졌다. 허완 장군은 말에 오르려다 세 번이나 실패를 하고 말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거듭 떨어지기만 한다. 드디어 무너져 흩어지고, 졸병들은 목책에 이르러 넘어가지를 못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에 온 자도 또 그 위에 자빠지니 시체가 쌓이기를 목책 높이와 같았다. 그런 뒤에도 목책으로 올라가니 높은 산더미 같아 아래로 떨어져 혹은 죽고 혹은 살기도 하여 나갔다.

좌군이 패망하고 적은 우군으로 진격해가니 포수 등이 일제이 총을 쏘아 적이 맞아 죽으니 감히 진격을 못하였다. 아군이 이긴 것 같은 형세였다. 우군도 화약을 2냥씩을 지급하여 다시 급히 분배를 받아야 할 즈음에 화승(火繩)을 잘못 떨어뜨리어 화약더미에 불이 붙어 3인이 타죽었다. 군진이 크게 혼란한 틈을 타 적은 아군에게 곧바로 처들어오니, 드디어 크게 패하고 민영(閔泳)도 죽었다.
처음에 감사 심연의 종사관 전 서윤(庶尹) 도경유(都慶俞)가 군중의 일들을 모두 위임 받았다. 도경유는 우병사의 군관 박충겸(朴忠謙)의 목을 베어 위엄을 보이며, 몹시 급하게 진군(津軍)을 독려하였다. 군병들은 의장들을 모두 버렸고, 입고 있는 옷도 짧게 잘라버리고 걸음을 빨리해서 쉬지 않고 행군하였고, 또한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였다. 때에 날씨는 극심하게 추워 동상과 굶주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 군대의 정황이 쌍령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기가 무너진 고로 사람들은 쌍령에서 패하지만 않았다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심연이 충주 목계천에 이르러 여러 날을 묵다가 여주에 이르러 쌍령전투에서 패하였음을 듣고 조령으로 달아나 말의 안장도 풀지를 않고 자주 잠자리를 바꾸니, 자객이 곁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 하루는 적이 왔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심연이 엎드러지며 황급히 말을 달려 도망하다가 헛소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운 낯빛을 하였다. 도경유가 뒤에 귀양 가는 도중 총에 맞아 죽으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박충겸의 노복과 아들이 복수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병자호란 쌍령전투에 참가한 영남과 공청도(충청)의 근왕군으로 쌍령에서 순절한 병사(兵使)와 영장(營將), 그리고 무관들의 명단은 표와 같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 휘하 장수

구분	성명	나이	비고
병사	허 완	68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영장	선세강	61	안동진 영장
의병장 중군	권극상	51	전 무관(안동)
안동진 영교	김몽린	53	안동진 영교(풍산)
안동진 군관	김몽웅	50	전 무관(풍산)
의병장	윤충우		전 군관(청송)
의병장	손종로	40	전 현감(경주)
의병장	이기욱	29	한량(예안)
의병장	금한룡		전 무관(예안)
의병장	양석남		전 무관(서천)
의병장	정대업	43	전 무관(언양)
의병장	오 연		전 무관(영양)
의병장	강계남	39	전 무관(영덕)
의병장	남무성		전 무관(영해)
의병장	김 호		전 무관
의병장	황만주		전 무관
안동부리	권용휴		안동부리(안동)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 휘하 장수

구분	성명	나이	비고
감사 종사관	도경유		전 평양서윤(대구)
병사	민 영	55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영장	윤여임	54	상주토포사겸 영장
부사	백선남	54	전라좌수사겸 창원도호부사
중군	우성적		상주영 중군
의병장	허득량	40	전 호군(대구)
의병장	허복량	37	전 군관(대구)
비장	이서우	54	감사 심연의 비장(칠곡)
의병장	김대홍		전 참의(김천)
의병장	배시량		전 군관(김천)
의병장	이언의		전 군관(김천)
의병장	허응상		전 군관
의병장	김영달		전 군관
의병장	김득민	51	무관 출신(의성)
의병장	김 엽	51	무관 출신(의성)
의병장	강운서		전 무관(상주)
의병장	김충선	66	항왜 장군(달성)
의병장	심 눌		전 무관(의령)

공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 휘하 장수

구분	성명	나이	비고
병사	이의배	61	공청도 병마절도사
전봉장	이근영		해미영장
부장	이차형		이의배 중군
의병장	이 억	23	무관 출신(덕산)

구분	성명	나이	비고
의병장	이천배	19	무관 출신(예산)
비장	안삼오		이의배 비장
의병장	박 우	61	전 현감(청도)

경상 좌 · 우병사의 쌍령 포진

경상 좌병사 허완 진영의 위치는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좌강(左岡)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은 지금의 초월읍 도평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경상 우병사 민영의 진지는 우강이라고 되어 있다. 우강이라면 허완의 좌강 도평리에서 서북쪽에 있는 대쌍령리의 골짜기를 끼고 산 밑이나 중턱에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쌍령리 마을 뒤로 '진새골'이라는 곳이 있다. 이 지점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고, 고개를 넘으면 오포읍 양벌리에 해당된다. 만약에 적에게 포위되더라도 이 고개를 넘어 탈출할 수도 있는 지형이다. 안동영장 선세강과 휘하 의병장들의 주장은 현산 마을 뒷산 능선에 진을 치자고 하였다. 현산은 지금의 지월리 현산 마을로 도평리에서 동쪽으로 작은 고개를 지나 국수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도평리는 곤지암천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굽이쳐 흐르고 있어 마치 섬 모양 같다고 하여 섬뜰[島坪]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이 마을 어귀인 국도에서는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 절벽과 같은 작은 산봉우리가 있어 여기에 초소를 세우면 침입자를 감시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허완과 선세강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당시 북풍설한에 군사들을 굶기다시피 하며, 잠도 안 재우고 주야로 달려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도평리 뒷산이나 현산 뒤 국수봉 능선에 진을 친다면, 동사자가 속출할

것이 뻔하였다. 그러므로 허완은 능선 위에 진을 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세강의 말대로 능선 위에 진을 쳐야 한다는 것을 허완이 몰랐을리 없다. 『남한일기』에 12월 그믐날 폭설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병자일기』에서도 남한산성에서 군사가 동사하는 일이 생겼다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허완은 할 수 없이 산 밑에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포진

병사 이의배의 공청도(충청도)군은 목적지가 쌍령이 아니라 죽주산성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는 병영인 서산 해미에서 조정의 격문을 받고 근왕군을 급조하여 출발, 죽주산성까지는 불과 사흘거리라 12월 26일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적세가 워낙 강함을 감지한 이의배는 호남의 근왕군을 기다렸다가 합세하여 진군할 결심이었으나, 남한산성으로부터 조속히 공격하지 않고 죽주산성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의배를 참수하라는 조정 신료들의 상소가 빗발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할 수 없이 부장 이근영(李根永)과 이차형(李次衡)을 선발로 출진시켜 진군하였다. 그러나 성을 나가자마자 오랑캐 매복병의 기습을 받아 전원이 궤멸하고 말았다. 이의배는 남은 절반의 병력으로 진군하여 적과 전투를 벌여봐야 승산이 없음을 판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영남의 근왕군이 쌍령에 도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남은 병력을 이끌고 쌍령으로 달려가 우병사 민영을 만나 민영의 진 옆에 자기의 병력을 배치하여 진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쌍령공격 오랑캐 기병의 병력

청병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쌍령의 근왕군을 공격해 온 병력은 남한산성 동문 밖 검복리와 불당리에 주둔하고 있던 6,000의 기마병이었다. 좌익군(左翼軍)의 페륵(貝勒)은 청 태조 누루하치의 손자이자 청 태종 홍타이지(皇太極)의 조카인 악탁(岳託)인데 용맹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들은 매우 잘 훈련된 정예 기병으로 편성 되었고, 수시로 영남에서 조선의 근왕군이 올라올 것을 대비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경안역(지금의 역동)은 물론 쌍령 너머까지 수색하고 있었다. 당시 경안천은 완전히 얼어있어서 기마병이 활동하기에 적합하였으며, 도평리 앞의 곤지암천도 얼어있었기 때문에 기병들의 움직임은 매우 좋았을 것이다.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보면, 처음 33인이 쌍령의 영남 좌병사 허완의 군진을 습격하고 뒤에 300의 기병이 좌 · 우 병사의 진을 궤멸하였다고 했는데, 이 기록은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믿을 수가 없다.

황경원의 『강한집(江漢集)』에서는 적기(敵騎) 수천이 공격해 왔다고 적고 있고, 선세강의 『오충사지(五忠祠誌)』 기록에도 수천의 오랑캐군이 쳐들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충선의 『모하당집』에는 새벽부터 적 기병의 말발굽소리가 뇌성벽력과 같이 울리며 우리 군진 앞으로 달려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적의 지휘관은 누루하치의 손자 악탁(岳託)이었고, 그가 몇 백 명의 군사로 영남군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병자호란사』에서 언급한 3,000의 병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쌍령전투의 시작과 종말

쌍령에서의 최초 전투 당시 조선군은 진영 내부에서 적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조선군 50~60명이 진영 밖으로 나가 33명으로 구성된 청나라 기병 선봉대의 척후병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급의 『난리일기』에서는 "五六十人出迎與戰(50~60인이 나아가 싸웠다)"라고 했으므로 외면 포수 중 일부 병력이 진영 밖으로 나가 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3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청군 선봉 척후들이 물고기를 꿴 것처럼 일렬로 줄지어 접근해 왔으므로 조선군 일부가 병력의 우위를 믿고 진영 밖으로 나가 사격한 것이 틀림없다. 이때 청군 병사 1명이 총알에 맞아 즉사한 것으로 보아, 청나라 기병 척후 중 일부와 진영 밖으로 나간 조선군 병력 사이의 거리는 100m 이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용인 험천(險川) 전투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오랑캐들이 30여 명의 척후를 보내 아군의 동정을 살핀 정황이 있다. 청군 기병 중 1명이 즉사하자 그들은 더 이상 조선군 진영으로 접근하지 못했는데 조선군이 '砲手連續亂放' 다시 말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았다. 즉 조선군이 대략 10발로 추정되는 탄환을 모두 쏠 때까지 청군은 더 이상 조선군 진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청군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는데 화약은 이미 떨어졌다"고 기록한 것은 그런 사정을 설명한 것이다.

안동영장 선세강은 활을 쏘며 저항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사수 병력 대다수는 활을 쏘지도 못한 채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있었다. 다시 말해 총으로 무장한 포수뿐 아니라 활을 쏘는 사수도 미처 공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영이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좌병사 허완에게는 중군이 2명 있었는데, 안동영장 선세강과 허완의 직속 중군인 이인남(李仁男)이다. 선세강의 휘하 부대를 좌진의 외곽에 배치하고 이인남의 휘하 부대를 본진으로 삼았는데, 선봉에서 조총을 남발하는 바람에 화약이 소진되었다. 급하게 화약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은 오랑캐가 이틈을 이용해 목책을 부수고 돌입하여 백병전(白兵戰)이 벌어졌으며, 선봉군에는 대항할 무기조차 변변치 않아 혼란이 야기되면서 도망가려는 군졸과 사수하려는 군관들이 뒤엉켰다. 오랑캐들은 창검으로 마구 찌르며 공격하는데, 우리 진에서는 화약 떨어진 조총만 들고 있거나, 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외곽의 진이 무너지면서 선세강과 그의 휘하 의병장 및 군관들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나 모두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경주의 손종로, 안동의 권극상, 의성의 김득민, 풍산의 김몽린, 언양의 정대업, 청송의 윤충우, 예안의 이기욱, 의성의 김엽 삼형제, 예안의 금한룡 형제 등 의병장들은 모두 선봉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던 것이다. 좌진의 목책에는 쌓인 시신이 산 같다(積屍如山)고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가 전사하였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한편 본진의 중군 이인남은 그 정황을 목격하고, 그의 휘하 군졸들을 이끌고 진을 탈출하여 본진에 남은 군사는 허완의 비장과 몇몇 군졸뿐이었다. 오랑캐가 선봉 선세강의 진을 궤멸시키고 중앙의 본진을 공격하니, 본진에 배치하였던 정예 포수나 사수들은 제대로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거나 전사하고 만 것이다.

허완은 그의 비장과 노복이 말을 대령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탈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허완은 "너희들은 먼저 나가거라" 하고는 차고 있던 패도를 꺼내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다. 총지휘관으로서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고 결정한 참사였다.

좌진을 정벌한 오랑캐들은 곧바로 우진으로 달려들었다. 우진에는 좌진과 달리 경험이 많은 군관들도 있었고, 군사들도 비교적 정규군이 많아서 진을 구축할 때에도 산중턱과 골짜기를 이용하여 단단히 해놓았으므로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또한 경안천 부근에서 김충선의 잘 훈련된 의병에게 공격을 받은 적들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민영의 진 주위를 돌면서 산발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 민영의 우진에서는 적이 다가와도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발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은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쌍방 간에 몇 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으나 신통치 않았다.

드디어 오랑캐들이 총공세로 나왔지만 민영의 군진에서는 잘 훈련된 포수들이 3열로 대오를 지어 다가오는 적을 향해 조준 발포하여 적의 기병이 수없이 쓰러졌다.

그러나 우진의 포수들도 2냥씩 받은 화약이 다 떨어져 급히 화약을 분배하려는데, 쌓아두었던 화약더미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약을 나누어 주는 군관인 감분관(監分官) 두 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하고, 주변에서 화약을 분배받으려던 군졸 100여 명이 또한 죽고 부상하는 불상사가 났으며, 군진에는 화약 연기와 폭음에 놀란 군졸들이 도망하기에 바빴다.

오랑캐들은 이틈을 놓치지 않고, 쇠북을 치면서 총공격을 가했고, 당황한 민영의 군진은 일시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군졸들은 도망가고 군관들은 도망가는 군사들을 붙잡으려고 호령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게다가 총책임자인 감사의 종사관 도경유는 어느 틈에 말을 타고 도망가고 말았다. 결국 민영을 비롯한 상주영장 윤여임, 창원부사 백선남과 허득량, 허복량, 우성적, 이서우, 김대홍 형제, 심눌과 심양, 양석남, 창원부리 황시헌 같은 용장들은 최후까지 물러서지 않고 적과 싸웠으나 순절하고 말았다.

민영의 군진 옆에 소규모의 병력으로 진을 치고 있던 공청병사 이의배도 우진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휘하의 군졸들이 대부분 도망하여 비장 이천배,

이억, 안삼오 등 몇몇 군관들만 남았는데, 비장 안삼오가 말을 대령하며,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당장 이곳을 탈출하자고 하였으나, 이의배는 끝까지 대항하여 수십 명의 적을 쏘아죽이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쌍령전투 후의 비참한 현장 상황

쌍령전투에서 세 병사(兵使)와 두 영장(營將), 그리고 의병장 대부분은 장렬히 순국하였다. 적의 병력은 강력한 기병으로 편성된 정예 군사들이었고, 영남의 근왕군은 전투 경험이 없는 의병이 대부분으로 오합지졸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오직 나라를 위한 충성심 하나로 사력을 다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끝까지 항전한 장수들이 있는가 하면, 적이 공격 해오자 당황하여 도망간 장수들도 많았다. 이인남(李仁男)은 허완의 중군이자 주력부대의 지휘관인데도 불구하고 선봉군이 무너지자 곧바로 장졸들을 데리고 도망을 하였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의병장 배시량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충주로 철수하였고, 많은 의병들은 전투가 벌어지자 도망하기 바빴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당시 조선의 의병장들은 오직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는 왕을 구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복이나 군졸들이 말을 대령하며 탈출하자고 해도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전장에서 죽는 것이 도리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의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도록 활을 쏘며 대항한 의지는 가히 칭송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쌍령에서의 전투는 비참하게 끝이 났고,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그들의 부친이나 형제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하

여 각지에서 쌍령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오랑캐들은 전사한 근왕군의 시신에서 군관들이 입고 있던 의복과 소지품을 탈취하고, 그 시신 위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형체를 분간할 수가 없어 유족들은 자기 가족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가지고간 수의(壽衣)나 의관(衣冠)으로 초혼(招魂)하고 고향으로 귀향하여 의관으로 장례를 치른 일이 무수히 많았다. 결국 장례는 치렀으나 묘는 허묘(虛墓)로 봉분을 만들었던 것이다.

전투가 벌어졌던 도평리와 대쌍령리 일대의 주민들도 대부분 오랑캐가 쳐들어와 조선군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남부여대하여 아군 진영으로 들어가 피신하였다. 그러나 적이 몰아치자 산 위로 도망갔으나 적의 추격이 계속되어 도평리 어귀의 산봉우리에서 곤지암천으로 떨어져 죽은 주민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한다. 그 산봉우리에서 절벽을 이룬 바위들을 '낙화암'이라고 부른다. 당시 낙화암 밑에는 '가마소'라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오랑캐에게 쫓겨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절벽 아래로 투신하였다는 것이다.

정월 초사흘에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한 병졸들의 시신은 그해 4월이 되도록 거두어 매장하지 못하여 쌍령지역의 산야에는 여기저기 시신이 널려 있어 도평리와 대쌍령리 일대의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형언 할 수 없었다. 1637년 4월 7일 『인조실록』에 기록된 참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조가 사람을 모집하여 쌍령(雙嶺)과 험천(險川)에 쌓인 시체를 거두어 묻고 관원을 보내 제사 올리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승정원일기』의 같은 날 예조(禮曹)에서 올린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서흠이 아뢰기를, 신이 왕래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쌍령과 험천의 길에는 쌓인 시신이 산과 같아서 지나는 사람들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쌍령은 경상 좌우병사가 패전한 곳이고, 험천은 충청감사가 패한 곳입니다. 두 곳에서 사망한 군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백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길바닥에 널려 있어 새와 개들이 뜯어먹고 있어서 백골이 나뒹굴고 있으니, 어찌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근실한 승려들을 모아 수령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어 속히 시신들을 수습하여 매장 하도록 하고, 그 수령을 맡은 승려를 계문하여 논상(論賞) 하도록 하소서. 또한 여제(厲祭)[56]를 지내되 예문관에서 별도로 제문을 내리고, 본도에서 제물을 갖추어 수령으로 제관을 삼아 지내도록 하며, 향과 제문(祭文)을 하송하고 정결한 곳에 제단(祭壇)을 만들도록 함이 조정에서 가련한 혼령들을 위로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날을 잡아 설행하도록 본도 감사에게 지시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하였다.[57]

당시에 대쌍령리는 영남에서 서울로 통하는 대로변이었으므로 그곳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는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1637년 8월에 인조가 근신을 보내 쌍령과 험천에 제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전후에 쌍령에서 너무나 많은 장졸들이 전사하여 그 원

56) 여역(厲疫) 또는 역병이라 하여 전염병의 일종으로 장질부사나 천연두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지금처럼 예방주사도 없어 전염병이 발생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여제(厲祭)를 지냈는데, 역병을 막아 달라고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다. 전쟁 후에는 전염병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57) 睦敍欽以禮曹言啓曰, 臣因往來之人, 得聞雙嶺·險川之路, 積尸如山, 不忍過去云. 雙嶺乃慶尙左右兵使敗軍處也, 險許川亦忠淸監司敗軍處也. 兩處軍兵死亡者, 不知其幾, 而尸身收拾者, 僅百分之一, 其餘暴露於路, 任他烏犬之聚食, 白骨縱橫, 所見寧不慘惻乎? 著令京畿監司, 募得諸僧中所推重者, 定爲領首, 使之論以慈悲之意, 率諸寺僧人, 速往收拾掘埋後, 其領首僧人, 啓聞論賞. 且依厲祭之例, 令藝文館別製祭文, 本道略備祭物, 以守令差定祭官, 香·祭文臨時下送, 淨潔處築壇, 不卜日設行, 以示朝廷憫憐之意, 似爲宜當. 以此意, 本道監司處行移, 何如? 傳曰, 依啓. 承政院日記 15年 4月 7日.

혼을 달래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죽음을 나라에서 위령제로 원혼을 달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군관이나 의병장들은 증직(贈職)을 주어 포상하는 것, 또는 정려(旌閭)를 내려 명예를 보훈하는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노복(奴僕)에게까지도 정려를 내린 기록이 있다. 밝혀진 의병장들과 참전 의병들의 개인별 증직과 정려 등의 포상 내용은 책 후반부의 개인별 행장과 전공에서 밝혀 두었다.

유가족들은 며칠을 헤매며 전사한 가족의 시신을 찾기에 분주하였다. 찾다가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자기 아버지의 애마(愛馬)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먹지도 않고 며칠 만에 죽었다는 애화도 많이 전해오고 있다.

병자호란 쌍령전투의 패인 분석

청의 군대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병들이고 대부분이 기병들이었다. 그들은 만주 벌판에서 명나라 군대와 많은 전투를 벌여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오랑캐의 사기는 충천하여 있었다. 이처럼 막강한 군사를 보유한 청의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략하여 최단 시일 내에 항복을 받아,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조선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의주성의 임경업이 성 밑으로 오랑캐의 기병이 대로를 따라 한양으로 진격하는 것을 성안에서 내려다보고 도성으로 치계(馳啓)하여 보고한 것 밖에는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오랑캐 기병의 위력은 막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홍타이지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면서 조선군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너희는 산성에서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대로(大路)를

따라 진격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큰소리를 쳤을 정도였다.

한편 영남과 충청의 근왕군의 편성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정규의 정예 전투요원은 그 병력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병장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출병하였고, 각 진영에서는 속오병을 소집하여 급조하였기 때문에 여러 기록들을 점검해 보아도 정예 군사로 편성된 근왕군은 아니었다.

근접전에 약한 조선군의 단점은 조정에서도 일찍부터 논의가 있었다. 『중종실록』에는 "왜구(倭寇)가 검을 빼어들고 수군의 배에 올라타면, 용감한 병사가 10명이 있어도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언급이 있으며, 『선조실록』에도 "우리나라의 병사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오직 고함을 지르며 활을 쏘다가 적이 다가오면 달아나고 맙니다"라는 탄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조정에서는 기마와 궁술에 치우쳤던 종래의 군제를 탈피하여 조선에 파병 온 명나라 장수들이 전해 준 보병 전술인 '절강 병법'을 토대로 한 삼수병 체제를 새로이 만들어 채택한 것이다.

삼수병 체제에서는 종래에 도외시되었던 창과 검술을 다루는 근접 전문 보병인 살수(殺手)와 임진왜란 때 맹위를 떨친 조총(鳥銃)을 사용하는 포수(砲手)를 중요 병과로 채택하였다. 창검술은 명의 장수들이나 조선에 투항한 항왜(降倭, 김충선 같은 왜장)들이 주로 도맡아 가르쳤다. 조총의 경우는 임진왜란 중에 왜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을 쓰다가 김충선의 조총 제조기술 전수(傳授)로 기술을 습득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조총의 사격 방법은 항왜들로부터 전수받았다. 반면 여태까지 조선 전력의 핵심이던 활을 쓰는 사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고,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관들은 쌍령전에서 김충선을 제외한 어떤 군관들도 조총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영남의 군사들은 기본 무기로 조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왔으나, 그 사격술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좌병사 허완이나, 우병사 민영은 화약을 아껴 쓰기 위하여 1인당 2냥(약 5~6발)씩만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조총의 사거리는 짧아서 적이 50~60미터 정도 앞에 나타났을 때 발사해야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화약을 많이 분배해 줄 경우 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군 병사들이 마구 사격을 하여 화약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충선이 그의 부하에게 지시하기를, 100보 이내에 적이 나타나기 전에 발포하는 자는 참한다고 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영남 근왕군의 선봉대인 안동영장 선세강의 휘하에서는 적이 다가오자 명령도 없이 마구 발포하여 일시에 화약이 떨어졌고, 군졸들은 화약을 더 달라고 소리쳐 화약을 추가 분배하는 와중에 적들에게 틈을 보인 것이다. 결국 적들은 기병을 앞세워 아군의 진지로 돌진하여 목책을 부수고 창검으로 공격하면서 백병전을 벌였는데, 아군에는 살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속수무책이었다. 군졸들은 도망하기에 바빴고, 미처 도망하지 못한 군졸들은 무수히 희생된 것이다.

하지만 쌍령전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번연히 패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상 좌 · 우 병사 허완과 민영, 그리고 이의배 공청 병사 등 세 병사가 조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순국한 사실이다. 세 병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관들도 전쟁터를 탈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순절한 점은 당시 조선군의 강렬한 충성심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상징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종사관 도경유의 강압적인 행군과 쌍령에서의 허완에 대한 진군 명령이 『강한록(江漢錄)』에서 확인된다.

1637년 정월 2일 도경유는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라고 허완에게 명하였는데, 허완이 말하기를, "날씨가 매우 춥고, 사졸들이 주야로 달려와 기운이 소진하였으므로 내일 진병하는 것은 적을 만나게 되면 불행이 닥칠 것이니, 산 위로 진을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밥이라도 먹여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경유가 노발대발하며 "남한이 불과 30리인데 날이 밝는 대로 진병시켜라. 거역하는 자는 참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허완이 제장들에게 이르기를, "종사관이 병법도 모르면서 삼남의 근왕군을 지휘하고 있으니 국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한탄하였으나 다음 날 날이 새기 전에 발진을 하게 되었다. 적의 경기병(輕騎兵)이 북쪽 산에 매복 해 있다가 산 위에서 달려오니, 허완 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58]

쌍령에서의 전투는 이처럼 허무하게 끝이 났으나, 참전 했던 삼도(三道)의 병사(兵使)들과 영장(營將)들, 그리고 의병장들의 순국정신은 두고두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충보국(精忠報國)한 위대한 넋은 지금도 쌍령 골짜기에서 나무가 되고 바위가 되어 천년토록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근왕군 병력

쌍령과 험천에서 전사한 조선 근왕군의 병력을 여러 역사기록에서 살펴보

58) 至雙嶺 觀察従事都敬俞來督諸軍 令明日昧爽進兵 完曰 天寒 士卒晝夜馳 無不氣索 明日晨 未蠶而進 與虜遇必無幸矣 不如移陣就山上 飯士而進 敬俞怒曰 南漢未滿三十里 何必乃爾 晨卽進兵 否者斬 完謂諸將曰 從事不知兵法 而妄自指揮三軍 國事去矣 明日晨前 軍旣發 淸輕騎伏於山北 馳上山 完軍大亂 會安東兵號於陣曰 硝藥盡淸人聞之 卽合兵急攻完軍 節度中軍李仁男 解甲遁去 獨世綱力戰死之.

면, 4만의 군사가 궤멸(潰滅)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적시여산이라고 표현한 기록도 있으나, 확실한 병졸 수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인조실록(仁祖實錄)』 1638년 1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충청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치계하기를, "남한산성과 금화(金化)에서 전사한 군사들에게는 모두 급복(給復)하고 모조(耗租)를 주었습니다. 본도의 험천(險川) · 쌍령(雙嶺) · 강도(江都)에서 전사한 자들이 도합 2천 6백여 명이니, 똑같이 휼전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또한 전사한 군사 중에 부모가 있는 자는 마땅히 조정의 분부에 따라 모조를 지급해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합니다. 원곡(元穀)을 첨가해 각각 2석씩 지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59]

이 내용으로 볼 때 충청도의 근왕군이 험천, 쌍령, 강화도 전투에서 순절한 숫자가 2,600여 명이라는 것이다. 충청도의 근왕군은 감사 정세규가 이끌고 험천에서 오랑캐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병력과 이의배 병사가 죽주산성에서 선봉군이 전사한 병력, 그리고 쌍령에서 영남 근왕군과 함께 전몰한 병력에 더하여 강화도에서 전사한 병력을 모두 합쳐 2,600여 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영남 근왕군의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병력도 이 숫자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쌍령의 지형이나 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2,000여 명의 병력이 전몰하였다면 그야말로 적시여산(積屍如山)이었을 것이다.

59) 己卯/忠淸監司鄭太和馳啓曰: "南漢及金化戰亡事, 竝皆給復與租矣. 本道險川 · 雙嶺 · 江都戰亡者, 合二千六百餘人, 似當均施恤典矣. 且戰亡軍有父母者, 當依朝廷分付, 給以耗租, 而其數不足, 請添以元穀, 各給二石" 上從之.

쌍령전투 순절 제장들에 대한 포증(褒贈) 내용

성명	당시의 관직		호란 후 증직 내용		
허 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병조판서	諡 忠莊	정려
민 영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병조판서	諡 忠壯	정려
이의배	공청도	병마절도사	영의정	諡 忠壯	정려
선세강	경상좌도	안동영장	병조판서		정려
윤여임	경상우도	상주영장	병조참판	封 鈴原君	정려
백선남	경상우도	창원부사	병조참판		정려
허득량	경상우도	절충장군	병조판서		
허복량	경상우도	전 현감	병조참판		
손종로	경상좌도	전 현감	승정원좌승지		정려
이서우	경상감영	감사막비	군기시 부정		
우성적	경상좌도	중군	사복시 정		정려
강홍신	경상우도	군관	훈련원 첨정		
정대업	경상좌도	의병장	호조 좌랑		
권극상	경상좌도	의병장	훈련원 첨정		정려
김몽린	경상좌도	안동영교	사도시 주부		
김득민	경상우도	의병장	승정원좌승지		
김호영	경상우도	김득민의자	동몽교관		
김영달	경상우도	의병장			
금한룡	경상좌도	의병장	군기시 첨정		
금해룡	경상좌도	의병장	군기시 첨정		
김 엽	경상우도	의병장	훈련원 첨정		
김 욱	경상우도	의병장	사도시 주부		
김 찬	경상우도	의병장	사도시 주부		
권용휴	경상좌도	안동향리	군자감 주부		정려

성명	당시의 관직	호란 후 증직 내용
이 억	공청도 의병장	병조참의 정려
조축생	공청도 이의배노복	정려
이근영	공청도 중군	병조참의
황시헌	경상우도 창원부리	군자감정 정려
권용휴	경상좌도 안동향리	군자감 주부
심 눌	경상우도 의병장	형조참판
박 우	공청도 의병장	호조참의
이언의	경상우도 의병장	충장위
이기욱	경상좌도 의병장	어모장군
귀 동	경상우도 우성적 노복	정려
억 부	경상좌도 손종로 노복	정려



쌍령의 恨

쌍령에서 순절한 제장들의
행장과 충절

여 백

경상좌병사 허완의 한 많은 쌍령 순절


허완 영정

허완(許完)의 본관은 양천이고, 자(字)는 자고(子固)요,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1569년(선조 2) 부친 허기(許芑)와 모친 성주이씨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질이 뛰어나 장난치며 노는 것이 여느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자라서 당숙부(堂叔父) 허성(許筬)에게 글을 배웠는데,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암송(暗誦)을 잘 하였으며, 특히 필법(筆法)에 능하였다. 그러나 재략(才略)을 좋아하여 장구(章句)나 배우는 학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반면 한때 이름난 무인(武人) 유비(柳斐), 성우길(成佑吉) 등과 활쏘기와 말타기를 경쟁하니, 다들 잘한다고 칭찬하였다.

25세(1593)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남쪽 변방에 수자리로 가니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한번 보고 남다르게 생각하여 일반 군사와

달리 대우하며 장수의 재목으로 여겼다. 수자리에서 돌아와 선전관(宣傳官)을 제수 받았는데, 재주와 덕망이 있어 비변사(備邊司)의 낭관(郎官)에 뽑혔다. 상국(相國) 유성룡(柳成龍)이 축성(築城)의 편의(便宜)를 조목별로 올린 것이 수천 어(語)인데, 허완이 어려움 없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받아썼다. 상국이 훗날 사택(私宅)에서 만나 우리나라 지도를 주면서 권면하기를, "장수된 사람은 지리(地利)의 험요(險要)를 알아야 하니, 지키고 이기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하고 임금에게 추천하니, 차례를 뛰어넘어 남평현감(南平縣監)을 제수하였다. 4년 뒤에 어머니 상(喪)으로 벼슬을 떠났다가 상을 마치고 나서 다시 비국랑이 되었으며, 도총부(都摠府)의 도사(都事)와 경력(經歷)을 거쳐, 1604년(선조37)에 단천군수(端川郡守)가 되었다. 이때에 오랑캐가 변방을 자주 노략질하여 우리 변장(邊將)을 죽이므로, 임금이 북도 절도사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치게 하였다. 허완이 평소 사이가 좋은 우후(虞候) 성우길과 같이 전봉(前鋒)이 되어서 적진에 깊이 쳐들어갔는데, 후군(後軍)이 오랑캐에게 포위되자, 급히 돌아와서 적(賊)을 격파하고 모든 군사를 무사히 구하여 돌아왔다. 이에 상이 특별히 활과 검과 갑옷과 투구를 하사하고 절충장군으로 승진시켜 무산진첨절제사(茂山鎭僉節制使)로 옮겨 제수하여 오랑캐를 막게 하였다. 3년 뒤에는 훈련원 중군으로 들어갔다. 1613년(광해군 5)에 호서수군절도사(湖西水軍節度使)가 되었는데, 훈련원 중군의 군사들이 항시 허완을 사모하므로 병조(兵曹)가 임금에게 아뢰어 다시 중군을 제수하였다.

1614년(광해군 6)에는 호남수군절도사(湖南水軍節度使)가 되었는데, 광해군의 실정으로 정치가 문란해지자 벼슬을 즐겁게 여기지 않아 한산(閑散)한 지위에 9년이나 있었다.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고 나서 허완이 사졸(士卒)에게 인심을 얻은 것을 알고 불러서 중군을 제수했고, 곧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되어 다시 호남에 나갔는데, 권력을 쥔 신료들에게 밉보여 1년 만에 파직되었다.

1627년(인조 5) 정묘년에 후금의 오랑캐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임금이 강화도(江華島)로 거둥하였을 때 허완을 다시 중군으로 삼았다. 오랑캐가 물러간 후 왕을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상을 주었는데, 공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어 영남우절도사 겸 진주목사(嶺南右節度使兼晉州牧使)가 되었다.

1629년에는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를 제수받았다. 당시 오랑캐와 항상 무역하여 물건을 교역(交易)하였으므로 풀어 두고 막지 않았는데, 공은 약속을 엄히 하여 외문(外門)을 만들어 말을 탄 오랑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말에서 내려서 감히 공에게 거만하게 굴지 못하였다. 한번은 공이 사냥을 나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오니 오랑캐가 마침 관(館)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부(府)의 병력은 겨우 수백이었다. 공이 군사로 하여금 동문(東門)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서문(西門)으로 나왔다가 다시 동문으로 들어가도록 순환하여 오랑캐에게 보이자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부병(府兵)이 어찌 이렇게 많을까?"하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한편 임금은 이러한 공에게 통치(統治)를 잘했다 하여 표리(表裏,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옷의 겉감과 안감)를 하사하였다.

3년 뒤에는 남도절도사(南道節度使)로 승진되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전에 모후(母后, 인목대비를 말함)를 폐할 때 문무백관을 소집하여 물었는데, 그때 아무개는 죄인들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여 죄를 얻을 뻔하였다, 장자(長子) 허장(許將)이 상소하여 송사하니, 왕부(王府, 의금부의 별칭)에 간직되어 있던 그 당시의 상의(上議)를 들춰 본 뒤에 문제가 해결되어 남도에 나가 호서(湖西)의 수병(水兵)을 거느리게 되었다.

1636년 병자년에는 영남좌절도사(嶺南左節度使)가 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북방의 오랑캐가 10만 대군의 병력으로 쳐들어 왔고, 인조는 다급히 남한산성으로 거둥하여 40여 일 동안을 포위당해 있었다. 허완이 보졸(步卒)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임금을 위하여 죽기로 맹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졸의 마음을 격려하자, 사졸이 모두 사력(死力)을 다하기로 각오하였다. 허완이 가복(家僕)들을 불러놓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장차 나를 호위하여도 전세가 불리하면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 너희들은 쓰였으니, 너희들은 내가 죽거든 돌아가도록 하여라" 하였다.[60]

허완은 충주에서 우병사 민영과 만났다. 두 병사는 그곳까지 오는 동안 군졸들이 며칠 동안을 주야로 달려오느라고 피로할 뿐 아니라 급양도 제대로 안 되어 더 이상의 무리한 행군은 하지 말아야 전투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 약속하기를, "아침 일찍 사졸에게 밥을 먹여서 남한산성으로 진격하자" 하였다. 그러나 안부종사(按部從事, 관찰사 종사관) 도경유(都敬兪)는 망령되게 제멋대로 행동하여 본시 장사(將士)의 인심을 잃은 자인데, 제군(諸軍)을 독촉하여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진병(進兵)하여 적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허완이 말하기를, "사졸이 멀리서 왔고 날씨가 추워서 얼고 굶주렸는데, 위협해서 억지로 행군하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도경유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군관들 중에서 섣부른 출진을 반대한 우영군관(右營軍官) 박충겸(朴忠謙)의 목을 베어 군사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를 본 허완이 말하기를, "하늘의 뜻이다. 대사(大事)가 글렀구나" 하였다.

1636년 섣달 그믐날 허완의 군사들은 남한산성을 30여 리 앞둔 광주 쌍령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날은 폭설이 내리고 몹시도 추워서 군사들이 꽁꽁 얼었다. 허완은 할 수 없이 도평리 곤지암천변에 진을 치고 안동영장 선세강을 선봉에 세워 막게 하였으며, 중앙에 본진을 차려 정예 포수 300명을 배치하고 중군 이인남으로 하여금 본진의 방어를 맡게 하였다.

정월 초사흘 미명에 수천의 적이 기습해 왔다. 허완의 선봉군이 북을 치며

60) 『江漢集』「陪臣傳」에서 인용하였다.

포수들이 총을 쏘아대니 포성이 진동하고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허완의 군진에서는 승세를 타고 적의 기마 수십 필을 탈취하였으며, 오랑캐는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때 화약이 바닥난 선봉 선세강의 군진에서 화약을 더 달라고 다급히 소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적들이 돌연 선봉진을 향하여 돌입하였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고, 선세강의 군사들은 소요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선봉군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당초에 화약을 2냥씩 배분했는데, 훈련이 안 된 사졸들이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화약이 떨어졌던 것이다. 화약을 더 배분하라고 급히 지시했으나, 이미 오랑캐들이 목책을 넘어 창과 단칼로 공격해와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아군에는 포수와 사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군관들만이 검을 가지고 있었고, 사졸들은 포수가 가진 조총 이외에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선세강의 선봉군이 무너지고, 적이 허완의 진 중앙으로 밀려들자 대부분의 사졸들은 창검에 죽거나 도망하기에 바빴다. 특히 허완의 중군 이인남(李仁男)이 적이 공격해오자 사졸들과 함께 진을 이탈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허완의 본진은 방비 할 병력이 없었다. 허완의 비장(裨將)과 노복(奴僕)이 말을 대령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나, 허완은 이미 병사로서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여 비장과 노복을 내보내고 차고 있던 패도를 꺼내 자신의 목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다. 당시 허완은 68세였다.

『강한집』에서는 허완의 쌍령전투 장면과 최후 순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남한산성이 불과 삼십 리 인데 날씨가 매우 추워서 군사들이 꽁꽁 얼었다. 허완과 민영이 산 아래에 진을 쳤다. 정예 포병 수백 명을 선발하여 산 위에 웅거하였다. 다음 날 어둑어둑할 때에 군대를 풀어 남한산성으로 진군하게 했다. 선발부대가 이미 떠나고 산꼭대기의 병력도 하산을 시켰

는데, 청군의 날쌘 기병들이 산 북쪽에 잠복해 있다가 허완의 군진에서 정병들이 다 하산하는 것을 보고 이에 재빨리 달려 산 위로 올라갔다. 허완 휘하의 군사들이 산을 에워싸고 진을 쳤는데, 바로 청군이 수천 기병으로 허완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허완 진에서 북을 치며 적을 맞이해 전투를 하니 포성이 진동하였다. 청군들이 탄환을 맞고 죽은 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허완이 승세를 타고 청군의 기마 수십 필을 탈취하였다. 청군이 퇴각하였고 너댓번 이와 같이 하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때에 안동병진에서 초약(硝藥)이 떨어졌다고 소리치자 청군이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돌격해오니, 허완의 병진이 소란하였다. 중군 이인남(李仁男)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허완이 기가 막혀 힘을 다해 싸웠지만 휘하 장병들이 모두 전사를 하였다. 군사가 다 없어졌는데 군관 성응천(成應天)이 허완을 부축하여 말에 태워 고삐를 잡고 끝내 놓지를 않는다. 허완이 위태하다고 말하면서 너는 걸어가고 나는 말을 탔다. 너는 나보다 먼저 군문을 나서라 하니, 응천이 그 말을 듣고 먼저 나가니까 허완이 말에서 내려 패도(佩刀)를 뽑아 자결하니, 그때의 나이 69세였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장군들을 포상하는데, 우병사 민영, 안동영장 선세강, 상주영장 윤여임, 그리고 창원부사 백선남 등을 포상하고 후손들을 녹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좌병사 허완은 포상에서 누락되었다. 이는 경상감사 심연의 장계에 허완은 생사를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심연은 경상도 근왕군의 본진을 이끌고 여주까지 와서 선봉으로 올라온 좌 · 우 병사의 군진이 적에게 궤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쫓아 와서 적과 싸워야 하거늘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조령으로 철수하였던 인물이다.

결국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638년에 가서야 허완의 용전 자결 사실이 밝혀져서, "비록 적을 격파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쳤으니,



허완 신도비

충신(忠臣)의 의(義)다" 하였다. 인조가 명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의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었으며, 시호(諡號)를 충장(忠莊)이라고 내리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였다.[61]

오랑캐가 물러가자 두 아들이 적중(賊中)에 들어가 부친의 시신을 거둬 예를 갖추어 객지인 충주(忠州)에 장사 지냈다가 3년 뒤에 청주(淸州)의 청천(靑川) 송면(松面)에 개장(改葬)하였다. 한편 종사관 도경유는 형벌로 평해(平海)로 유배되어 가다가 용인 양지에서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었다.

허완은 천성이 바르고 근엄하여 예로써 사대부를 대접하고, 군대를 다스릴 때에도 비천하다고 멸시하거나 친근하다고 사사로이 대한 일이 한 번도

61) 備局啓曰 : "許完於雙嶺之戰, 兵敗自刎, 而當初慶尙監司狀啓以不知去處爲言, 故褒嘉之典, 獨及於矣. 今者本道査啓之言, 明有證左, 令該曹, 依閔梓例, 褒贈爲當." 上從之. 仁祖實錄 16年 3月 28日.



허완 묘

없어서, 이것으로 사졸의 마음을 얻었다. 벼슬이 높아진 뒤에도 항상 번진(藩鎭, 변방)에 있었으며 조금도 자신을 위해 일을 도모한 적이 없었다. 그는 말하기를, "국가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목숨을 바쳐 전하에게 보답하여야 되니, 어찌 염치를 버려가면서까지 자손을 위하여 계책하겠는가" 하였다.

집안에는 대부인(大夫人)이 이미 82세이고, 형(兄) 둘과 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화기애애하였으며, 조카를 아들같이 대하니 종족(宗族)이 진심으로 좇았다. 자제(子弟)를 가르칠 때에는 독서로 교육을 삼으며, 사치를 금지하고 유학자처럼 자처하였다. 불의(不義)를 부끄러워함을 오욕(汚辱)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이 하여, 비록 친척이라도 권세 있는 자를 피하기를 반드시 덫이나 함정을 피하듯 하며, 평소부터 사귄 벗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근엄하게 하였다. 1623년(인조 1) 계해년 중흥(中興) 이후에 공신귀인(功臣貴人)이 다 공의 옛

친구지만 반드시 자기를 굽혀 낮추니, 그의 고아하고 엄중함이 이와 같았다.

아들은 둘인데, 허장(許𤦲)과 허립(許岦)이다. 허장은 생원으로 문학과 덕행이 있었으나 난이 있은 뒤에는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고 남쪽으로 이사가 살았는데, 불행히 일찍 죽었다. 허립은 현감을 지냈다.

허완의 묘소는 현재 충남 청양군 미당리 벌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하에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찬술한 신도비가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彙編』, 『練藜室記述』, 『南漢日記』, 『江漢集』, 『丙子日記』, 『新安世稿』, 「許完神道碑文」

경상우병사 민영의 한



민영 족보

민영(閔栐)의 자는 정보(正甫)이고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부친은 병조참판을 역임한 여경(汝慶)이다. 광해군 때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쳐 1629년(인조 7) 이산부사(理山府使)로 나갔고, 1631년에는 의주부윤(義州府尹)이 되었다. 그해 혜산첨사(惠山僉使)로 옮겨 북방 오랑캐의 약탈을 막아 공을 세워, 1635년 10월에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어 진주 감영(監營)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1636년 12월 21일 경상감사 심연으로부터 격문을 받았는데, 북쪽의 오랑



민영 충신 정려문

캐들이 침노하여 부득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파천(播遷)하여 고립무원의 지경에 있으니, 즉시 근왕군을 출동하라는 것이었다. 민영의 감영에는 정규군으로 2,500명이 있어야 하나, 당시에는 몇 백 명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즉시 진주와 인근 군현의 현감들에게 속오군을 소집하라는 영을 내리고 출진을 서둘렀다. 이때 진주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한 하계인(河繼仁), 정복초(鄭復初) 등을 불러 속히 출정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명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22일 우선 1,000명의 군사를 확보하여 진주를 출발, 급히 달려 그날 밤에 대구감영에 도착하여 감사 심연을 만났다. 민영이 진주를 떠나기 전 그의 측실이 울면서 사양하라고 하였으나 민영은, "왕실이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지경인데 내가 가서 맹세코 오랑캐들을 물리칠 것이다. 네가 감히 내 가는 길을 막으려 하느냐?"하면서 꾸짖으며 출발하였다.

감사 심연은 전 평양서윤 도경유를 종사관으로 삼았으며, 종사관의 통솔하에 내일 당장 남한산성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때 전 절충장군(折衝將軍) 허득량(許得良)과 전 현감 허복량(許復良)을 만났다. 허득량은 백전노장으로 병사 5,000만 주면 오랑캐를 무찌르고, 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그만큼의 병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 병력을 줄 수도 없다고 판단한 민영은 뒤에 감사가 본진을 구성하여 뒤쫓아 올 것이므로 우선 함께 출발 하자고 하였다. 그때 종사관 도경유가 허득량은 믿을 만하니, 그에게 병사를 주자고 제의하였으나 민영은 듣지 않았다. 배시량은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첨정을 지내다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에서 상중에 있을

때 호란이 나자 민영의 군진으로 합세하여 함께 출발하였다.

주야로 남한산성을 향해 말을 달려 12월 23일 충주에 도착하였다. 민영은 군관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남한산성으로 어영군 8,000명을 이끌고 충주에 도착하였다는 장계를 올렸다. 좌 · 우 병사의 군사를 모두 합해도 8,000명이 안 되는데, 아마도 감사가 이끌고 올 본진의 병력을 통틀어 장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종사관 도경유는 군사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 주야로 행군하여 지쳐 있었으나 속히 행군하기만을 재촉하였다. 남한산성을 향하여 출발하려는데, 군관 박충겸이 종사관 도경유의 심한 독촉에 대하여 병사 민영에게 "너무 무리하게 행군을 하면 남한산성에 도달한다고 해도 추위에 떨고 제대로 급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도 없거니와 동사자가 속출하니, 무리한 행군은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옆에 있던 종사관 도경유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임금이 산성에 포위되어 있는 마당에 주야로 달려가야 하거늘 일개 군관이 지엄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박충겸의 목을 베었다. 이에 민영도 할 수 없이 군진을 향해 급히 행진 할 것을 명령하니, 군사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소매를 잘라 간편히 하고, 주야로 달려 1636년 12월 30일 광주 쌍령에 이르렀다. 좌병사 허완의 진과 마주한 후 지금의 초월읍 대쌍령리 산 중턱에 진을 치기로 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벽을 단단히 쳤다. 그에 앞서 허완과 민영은 탄식하기를, "병법도 모르는 문관이 저처럼 날뛰기만 하니 우리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여 오랑캐와 접전을 한다 해도 불리할 것이다"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무리한 행군을 계속하였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 현감 허복량(許復良)이 경안교 근처로 나아가 적의 척후병을 사살하고 오랑캐 병사 두 명을 잡아왔다. 오후에 다시 경안교로 나갔으나 이번에는 매복하였던 적이 쏜 화살에 명중되어 전사하고 말았다. 민영은 크게 놀라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매장(假埋葬)하고 다음과 같이 제문(祭文)을 지어 제를 지

내도록 하였다.

狂虜勢陸梁　미친 오랑캐 세력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愧我無籌策　나는 부끄럽게도 대책이 없구나
復矢招英魂　전쟁을 회복하여 영혼을 초청 하고자 하나
蒼茫曉月黑　멀고 아득 하기만 하여 새벽달이 검게만 보이네

다음 날인 정월 초사흘 미명에 오랑캐의 기병들이 좌진을 기습하였다. 민영이 기계(奇計)를 잡고 진법을 통하려 했으나 불리함을 알고 든든한 벽에서 오랑캐군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이 깃발을 세우고 공격을 명하니, 좌진에서 총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선봉장 선세강이 목책(木柵) 부근에서 군사들을 독려하며 분전하여 처음 공격 해온 오랑캐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아군 병사들의 화약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빨리 화약을 달라고 소리쳤다. 이에 오랑캐들이 아군의 화약이 떨어진 것을 알고 총 돌격하여 좌진의 목책을 넘어 들어왔다. 화약이 떨어진 조총은 막대기에 불과하였으며, 적이 공격 해오자 우리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에 바빴다. 목책을 넘다가 적의 창검에 찔려 죽거나 밟혀 죽은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선봉장 선세강은 끝까지 분투하였으나 적의 화살에 맞아 순절하고 말았다. 선봉군이 무너지면서 중앙에 있던 허완의 정예군은 총 한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좌진을 무너뜨린 적은 우진으로 연하여 공격 해 왔다. 민영은 그제야 벽을 열고 적의 공격에 맞섰다. 적이 민영의 우진으로 공격 해오자 일제히 총을 쏘아 많은 적이 쓰러졌다. 적이 주춤하여 물러나니, 이번에는 민영의 진에서 화약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으며, 민영은 감분관(監分官)으로 하여금 속히 화약을 배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민영의 군진 복판에 쌓아 두었던 화약더미



민영 묘

에 난데없이 불붙은 화승이 떨어져 폭발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화약의 폭발로 감분수령(監分守令) 2명과 근처에 있던 군사 100여 명이 폭사하였다. 민영의 진영은 순식간에 화약 연기와 군사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를 알아차린 오랑캐군은 민영의 군진으로 돌입하여 백병전(白兵戰)이 시작됐다. 그러나 아군의 병사들에게는 백병전에 응전할 군사도, 무기도 갖추지를 못했다. 주력 무기인 조총과 활은 백병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민영은 휘하의 일부 장수들이 진을 이탈하면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감사 심연의 종사관 도경유는 가장 먼저 진을 이탈하여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반면 허득량, 허복량 등 민영의 휘하 장수들과 상주영장 윤여임, 창원부사 백선남 등 용맹한 장수들은 끝까지 용전분투하다가 모두 순절하고 말았다. 민영도 휘하의 막비가

말을 대령하고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탈출하여 도모하자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끝까지 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순절하고 말았다. 만약 진중의 화약더미가 어이없게 폭발하지만 않았어도 민영의 군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민영이 순절한 1637년 정월, 이때 그의 나이 51세였다.

인조가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났고, 적들이 물러간 후인 1637년 2월 26일 조정에서는 민영과 윤여임, 선세강 등 영남 근왕군의 지휘관들을 포상하고 관직을 추증하여야 한다는 장계가 처음 올라왔다. 인조는 아뢴 대로 하라 하고, 늙은 부모가 있는 이에게는 월봉을 제급하고, 자손을 녹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민영은 병조판서에 추증(追贈)되고, 충장(忠壯)이란 시호(諡號)를 하사받았다. 윤여임, 선세강, 백선남 등도 함께 포상받았으며, 숙종 때에 충신으로 정려(旌閭)하였다.

민영의 묘는 당초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었으나, 지금은 충북 음성군 생극리 선산으로 이장하였다. 종손가에서 보관 중이던 그의 기록물들은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개인 소장의 기록물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錄』, 『南漢志』, 『丙子日記』, 『備邊司謄錄』

공청도병사 이의배의 쌍령의 한



이의배 증직 교지

이의배(李義培)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의백(宜伯)이고, 시호(諡號)는 충장(忠壯)이다. 1576년(선조 9)에 장령(掌令) 이흡(李洽)과 모친 여흥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예로서 대대로 문관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배가 무과에 응시하고 급제하여 그의 부친이 섭섭해 하기도 하였다.

1599년 24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며,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과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보령현감(保寧縣監)에 제수되었으나 이의배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대신(臺臣)들이 반대하여 체임되었다. 1608년 부친상을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3년 상을 치른 후, 광해군(光海君)이 집권하여 시사(時事)가 날로 그릇되어가는 것을 보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었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자(陞資)되어 명천부사(明川府使)가 되었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켜 인조가 공주로 몽진하였을 때, 이의배의 아들 목(穆)이 그의 외숙인 부원수 완풍군(完豊君) 이서(李曙)를 따라가서 송도에서 반란군을 막으려 하였으나 관군이 패하면서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하였다. 이때 이목(李穆)이 적정을 살피려고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반란군에게 잡혔고, 그들의 항복 권유를 끝내 뿌리쳐 이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의배는 북쪽 고을에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애통함에 관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직하고 돌아와 장사를 지냈다.

얼마 후 이의배는 전라좌수사로 승진하였으며, 이내 인동부사(仁同府使)로 임명되었다. 1630년에는 한천군(韓川君)에 보작(補爵)되고,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전임되었다. 이어 1631년에는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자(陞資)되었고, 이듬해에는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다. 임기를 마친 후에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이 되었다가 황해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1635년에는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체임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병자호란이 발발한 1636년에는 공청도 병마절도사(公淸道兵馬節度使)로 있었다. 호란(胡亂)의 급보를 접하자, 자기 병영(兵營)과 해미영장 이근영(李根永), 전봉장(前鋒將) 이차형(李次衡)을 필두로 비장(裨將) 이억(李檍)과 안삼오(安三五), 그리고 그의 종제(從弟) 이천배(李天培) 등의 군관들과 더불어 속오병(束伍兵)을 소집하여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산(瑞山)의 해미병영을 출발하였다. 그때 이의배는 환갑의 나이였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아우에게 집안을 부탁하고, 그의 부인 이씨(李氏, 완풍군 이서의 누이)에게 명주로 행전을 만들도록 한 후, 푸른 비단으로 끈을 만들어 오게 하여 다리에 비단 끈

을 감고, 명주행전을 쳤다. 그 까닭을 묻자 이의배는, "장차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이니, 생사를 알 수 없다. 후일 이것으로 표시를 삼아 시신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출발하였다.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는 문관이었지만 청주 감영(監營)에서 인근의 병사들을 규합하여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이의배에게는 병력이 별로 없었다. 서산, 홍성, 예산 등지의 속오군으로 겨우 편성하였던 것이다. 이의배의 군사는 며칠 만에 죽주산성에 도착하였다. 죽주산성은 지금의 안성에 있는 작은 성으로 남한산성까지는 60여 리 거리에 있었다. 오랑캐군은 광주 탄천과 헌능(獻陵), 그리고 산성의 남문과 동문 밖으로 10만 대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백전노장 이의배는 자기 휘하의 군사력으로 오랑캐군과 전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른 지역의 근왕군과 합세하기 위해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해미영장 이근영과 선봉장 이차형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진격 명령을 해달라고 재촉하였다. 왜냐하면, 남한산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조정에서는 이의배가 죽주산성까지 왔으나 겁을 먹고 성안에 도사리고 있으니 참형(斬刑)해야 한다는 상소(上疏)가 빗발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었던 이의배는 전군이 진격하기 보다는 해미영장 이근영(李根永)과 이차형(李次衡)을 선봉장으로 삼아 선발로 보내 적정(敵情)을 살피도록 지시했고, 선봉군은 죽주성을 나와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봉군은 용인에 이르러 오랑캐들의 기습을 받아 전멸하고 말았다. 오랑캐는 대부분이 기병(騎兵)이었지만, 이근영의 선봉대는 속오병으로 구성된 보병이었기에 기병이 기습하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당했던 것이다. 이때 이근영과 이차형도 전사하였다.

이의배는 경상 좌 · 우 병사가 근왕군(勤王軍)을 이끌고 광주(廣州) 쌍령(雙



이의배 신도비각

嶺)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휘하의 남은 군사를 인솔하여 1637년(정축) 1월 2일 광주의 쌍령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경상 우병사 민영을 만나 그의 진영으로 들어가 그 옆자리에 진을 치고 대기하였다.

이윽고 쌍령에서의 전투가 벌어졌으나 그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오합지졸의 군병들은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진을 이탈하기가 일쑤였고, 민영의 진영에서는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100여 명이 폭사하는 등 군진이 요동하여 군사들이 도망가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되었다. 오랑캐는 그 틈을 타서 조선군의 본진을 향하여 총 공격을 가하여 왔다. 『강한집(江漢集)』「배신전(陪臣傳)」에는 이의배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의배가 쌍령에 진을 쳤는데, 오랑캐가 진격하여 오니, 의배는 호랑이가죽 옷을 입고 진의 앞에 서서 적에게 활을 쏘기를 거듭하였다. 장군을 돕던 모든 장수들은 전부 도망을 갔는데, 홀로 이억과 조축생이 남아 있었다.

졸지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민영의 군진은 장수들만 남게 되어, 이의배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화살을 달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도록 쏘아댔다. 그러나 화살마저 동이 나자 창을 가져오라 하여 수 명의 오랑캐를 무찔러 죽이니, 그의 비장 안삼오와 하인 귀복(貴卜)이 말을 대령하고 탈출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안 된다. 일이 이지경이 되었으니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이다. 너는 목숨을 보존하여 내 시신이나마 거두어라" 하였다.

막료들과 병사들이 모두 도망가고, 비장 이억과 영노(營奴) 조축생(曺丑生), 그리고 그의 종제 이천배(李天培) 만이 남았다. 이억과 이천배는 이의배의 주검을 목격하고 통분하여 남은 군사 100여 명과 함께 적진으로 돌격하였다. 영노(營奴) 조축생은 병사 이의배를 끝까지 호위하다가 함께 전사하였다. 그의 종제 이천배는 당시 나이가 19세로 대단한 용력을 지녔으나, 형의 주검을 보고, 잔여 병사를 모아 최후로 적진으로 돌격하였으나 수십 명의 오랑캐를 죽이고 휘하 장졸과 더불어 장렬히 전사하였으니, 그는 당시에 미혼이었다.

이의배의 손자 여발(汝發)은 나이가 16세로 이의배가 출정하면서 서산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피란시켰는데, 조부의 패전 소식을 듣고, 친척들과 함께 쌍령에 이르러 시신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영노(營奴) 조축생의 아내가 싸움터에 가서 자기 남편의 시체를 찾았는데, 우연히 옆을 보니 이의배의 시신이 있었다. 쑥을 꺾어서 덮고, 목패(木牌)로 표시를 해두고 돌아와 이의배의 손자 이여발에게 알렸다. 이여발이 친척들과 다시 가서 보니, 얼굴 모습이나 수염에는 손상이 없었고, 오직 왼쪽 배 아래와 겨드랑



이의배 묘

이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갑옷과 옷은 오랑캐 병사들이 모두 벗겨가 버렸고, 다리 아래쪽의 흰 명주 행전과 비단 띠만 남아 있었다. 시신을 모시고 돌아와 덕산 선산에 장례를 치렀다. 이의배는 완풍군(完豊君) 이서(李曙)의 누이를 배필로 맞아 1남을 두었는데, 이괄의 난 때 순절한 이목(李穆)이다. 부자가 모두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것이다.

그는 풍채와 의용(儀容)이 단아하고 장중하며, 성질이 인자간묵(仁慈簡默)하여 지조가 굳고 확실하여 평상시 맑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피복은 언제나 빈한한 선비와 같았다. 술을 좋아했으나 취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

병자호란이 지난 후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다가 후에 의정부 영의정 한천부원군(韓川府院君)으로 가증(加贈)하고 충장(忠壯)이라는 시

호(諡號)를 내리고 예관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또한 정려(旌閭)를 내려 이의배와 아들 이목을 함께 불천위(不遷位)할 것을 허락하였다.

묘는 예산군 봉산면 봉평리 선영에 있고, 신도비는 묘하에 있는데,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의배의 위패는 광주(廣州) 정충묘(精忠廟)에 봉안되어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錄』, 『禮山郡誌』, 『南漢日記』, 「李義培神道碑文」, 『韓山李氏族譜』, 『醉菴實紀』

안동영장 선세강의 쌍령의 한


선세강 영정

선세강(宣世綱)의 본관은 보성(寶城)이고, 자는 사거(士擧)이며, 호는 매곡(梅谷)이다. 1577년(선조 10) 2월 진사(進士) 선봉장(宣鳳章)의 8남매 중 둘째 아들로 전라도 장흥(長興)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27세 되던 1603년에 부친의 권유로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고, 1618년(광해군 9) 벽단첨사(碧團僉使)로 나가 활동하였으며, 이어 경기중군(京畿中軍)으로 발탁되었다. 영평산성(永平山城)을 구축할 때 책임자로 총감독을 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완공한 공으로 어사검(御賜劍)을 받기도 하였다. 홍주영장(洪州營將)을 거쳐 안동영장(安東營將)으로 임명되어 있을 때인 1636

년(인조 14)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경상감사 심연(沈演)으로부터 속히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라는 격문을 받고 출정 준비에 바빴다. 그때 그의 3남 선척(宣滌)이 따라 나서려고 하자, "지금 국난을 당하여 나는 특명을 받았으니,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장수로서 소원이었다. 너는 안동진(安東鎭)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부와 연락하며 군수(軍需)를 잘 조달하여 위국진력(爲國盡力)하고, 내가 사지(死地)에 부임(赴任)함을 개의치 말아라"라고 하였다. 경상좌병사 허완(許完), 우병사 민영(閔栐)과 함께 수천 명의 병사를 영솔(領率)하고 1636년 12월 30일 광주 쌍령에 도착하였다.

경상 좌병사 허완의 중군으로 임명되어 쌍령전투에서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진을 칠 때는 병사 허완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허완은 지금의 광주 초월읍 도평리 곤지암천변과 산 밑 동리에 진을 구축하여, 무리한 행군으로 지친 병사들의 원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감사의 종사관 도경유의 독촉도 있어 좀 더 남한산성 가까이에서 전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곳 쌍령에서는 임시로 진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세강의 의견은 적의 수가 아군보다 많고, 대부분이 기병(騎兵)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병으로 편성된 아군으로서는 산 위에 진을 치고 대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허완은 우리 군사가 노출되면 안 되니, 이 골짜기에 숨어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함이 옳다고 하였다. 선세강뿐만 아니라 예하 장수들의 의견도 선세강과 같았으나 결국 허완이 주장(主將)이므로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목책(木柵)을 치고 병력을 배치하는데, 일등 포수와 정예 초군(招軍)에게 군진의 중앙을 방어하게 하고, 하등 포수와 속오군(束伍軍)들을 외곽에 배치하여 1인당 화약 2냥씩을 배분하였다. 포수들이 총을 마구 쏘아 화약을 낭비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선세강과 막료(幕僚)들은 정예 포수를 외곽에 배치하여 적이 공격해



선세강 사당 포충사

올 경우 즉시 격퇴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허완은 중앙의 본진을 탄탄하게 방어해 지휘부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1637년 정월 초사흘 미명에 오랑캐들은 영남 근왕군의 쌍령 진지를 기습 공격 했다. 먼저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좌병사 허완의 진을 공격하였다. 도평리 옆 현산 마을 뒷산인 국수봉 능선 위에 깃발을 세우고 병졸 몇 명을 아군 진지 앞으로 보냈다. 앞에 선 오랑캐 병졸은 깃발을 휘두르면서 무어라 지껄이더니, 뒤이어 수십 명의 적병이 나타나 모두 30여 명이 되었다. 이를 본 아군 진지에서는 조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앞에 섰던 적병이 쓰러지고, 적의 군관 한 명이 즉사하였다. 외곽의 포수들이 연속으로 총을 쏘아대니, 적병은 감히 공격을 못하고 주춤하였다. 그런데 이때 아군 진영에서는 선봉(先鋒)의 군사들이 화약이 떨어졌으니, 화약을 더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당초에 화



선세강 묘

약을 2냥밖에 못 받았으므로 조총수들은 화약이 떨어져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린 적병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뒤에서 달려오던 수백의 기병으로 하여금 우리 진 앞의 목책을 부수고 총 공격하도록 명령하니, 오랑캐들의 기병 수백 기가 한꺼번에 좌병사의 진으로 돌격해 왔다. 화약을 증량 분배할 시간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뒤이어 또다시 수천 명의 오랑캐 기병이 들이닥쳤다.

선세강은 휘하의 군관들인 권극상, 김몽린, 그리고 의병장 손종로, 윤충우 등을 독려하여 조총 대신 활로 적을 막으라고 영을 내리면서 자신도 연거푸 활을 쏘아대며 적을 막기에 분주하였다. 그러나 적의 기병들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 오므로 당하기가 어려웠다.

선세강은 활과 검으로 수많은 적을 죽였으나 결국 자신도 쓰러졌으며, 휘



보성선씨 충신 5명을 기리는 사당 오충사

하의 장수들도 전사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때 관졸(官卒) 모리금(毛里金)이 시체더미 속에 숨어 있다가 선세강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와 보니, 검을 손에 잡은 채로 아직 죽지 않았고 정신이 남아 있었다. 모리금이 선세강을 흔들며 "장군님!" 하고 부르니, 눈을 뜨고, "네가 모리금이 아니냐? 시종 나를 구해주니 과연 의사(義士)로구나. 내가 죽는 것은 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이 패하였으니, 장차 나라일이 걱정이로구나"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칼을 모리금에게 주었다. "이 칼은 영평산성을 쌓았을 때 상감께서 하사하신 칼이다. 소홀히 버릴 수 없는 것이니, 네가 가지고 가서 우리 집 사람에게 전해다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사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향년 61세 환갑이었다. 한편 선세강의 전투사실을 기록한 『강한집(江漢集)』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의 오랑캐군이 군사를 잠입시켜 남한산성을 포위함으로 경상좌도 절도사 허완에게 들어가 중군이 되어 선세강은 안동진을 거느리는 영장이 되었다. 쌍령에 이르렀는데, 관찰사 종사관 도경유(都敬俞)가 와서 모든 군진(軍陣)을 감독하였다. 내일 아침에 일찍 진병(進兵)하라고 령을 내리니, 허완이 말하길, "날이 매우 춥습니다. 사졸(士卒)들이 밤낮으로 달려왔으므로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진군하여 오랑캐를 만난다면 반드시 요행은 없을 것입니다. 진을 산 위로 이동하여 밥을 먹여 진군하여야 합니다" 하니 도경유가 노하여 말하길, "남한산성이 삼십 리가 채 안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새벽에 진군 하겠소. 거스르는 자는 베어버리리라" 하였다. 허완이 제장에게 말하길, "종사관이 병법(兵法)을 모르는 자인데 망령되게 스스로 삼남군(三南軍)을 지휘 한다고 하니, 국사를 그르치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새벽에 군진이 이미 발진을 하였다. 청군의 기마병이 산 북쪽에 매복하였다가 산 위에서 말을 달려 공격하니, 허완의 군사가 크게 혼란하였다. 그때에 안동진의 병사들 진영에서 초약(硝藥)이 떨어졌다고 소리치자 청군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병사를 모아 급히 허완군을 공격하여 오는데 절도사의 중군으로 있는 이인남(李仁男)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선세강이 혼자 힘이 다하도록 싸우다 죽었다.

장흥의 선세강 본가에서는 근왕군으로 출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장남 선오(宣澳)와 그의 아우들이 부친의 안후(安候)를 알기 위해 안동진으로 찾아갔다가 군진이 패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선세강도 순절하였을 것으로 짐작하여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관졸 모리금이 선세강의 하사검(下賜劍)을 전하였다. 모리금은 쌍령에서의 전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세강이 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쳐 주었다. 수일 후에 선세강의 자제들이 쌍령의 전장까지 찾아가 보니, 시체가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속에서 간신히 부친의 시체를 찾았는데, 얼굴은 생시와 같으나, 머리와 가슴에 화살 맞



선세강 증직 교지

은 자국이 여러 곳 있었다. 신발로 머리를 고여 놓았는데, 이는 관졸 모리금이 수시(收屍)를 한 것이었다.

호란이 끝난 후 인조는 선세강을 병조참판에 증직하고, 명정(銘旌)을 보내어 장흥까지 운구하도록 하여 고향 선산에 장사하도록 하였다. 1862년(철종 13)에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선세강의 묘소와 사당은 전남 장흥군 안양면 성자동에 있는데, 포충사(褒忠祠)와 강당이 있다. 또한 보성군 보성읍에는 오충사(五忠祠)가 있는데, 보성 선씨 선조 중에 다섯 분의 충신을 기리고 제향하는 사당이다. 여기에 선세강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錄』, 『江漢集』, 『練藜室記述』, 『五忠祠誌』, 『南漢志』, 『丙子日記』, 『由由軒集』, 『廣州市史』, 『寶城宣氏族譜』

상주영장 윤여임의 충절

윤여임(尹汝任)의 본관은 파평이고, 자는 성지(聖之)이며, 호는 구봉(九峯)이다. 1590년(선조 23) 임진왜란 호종공신(扈從功臣) 파릉군(坡陵君)인 부친 윤찬(尹儹)의 아들로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19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내외의 무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사과(司果)로 한직에 머물렀다. 1622년(광해군 14) 훈련원첨정 이정배(李廷培)와 함께 조총(鳥銃)·환도(環刀)·대포(大砲)·화약 등을 만들어 포상을 받아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 1622년 10월 30일에 기록된 그의 공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병기 도감(兵器都監)이 아뢰기를, "전 군수 김응창(金應昌)을 계하(啓下)하여 낭청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 지 이미 16개월이 지났습니다. 훈련원 첨정 이정배(李廷培), 전 사과(司果) 윤여임(尹汝任) 등은 달수가 김응창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감독하여 제조한 병기는 조총(鳥銃)이 9백여 자루, 환도(環刀)가 6백 개, 대포가 90개, 화전(火箭)이 1천 5백 개이고, 갑옷과 투구가 모두 35벌이며, 여러 가지의 병기도 보통 숫자보다 많은데



윤여임 묘

모두가 정교하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이정배는 이번 가을에 황연도(黃延道)에 차관으로 가서 1개월 이내에 철(鐵) 3만여 근을 사들이는 데 심력을 다하였고, 윤여임은 염초청(焰硝廳)의 일을 겸하고 있으면서 오가며 감독하여 6개월 이내에 구워낸 수량이 무려 1천 2백 60근이었으니, 노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염초 감자관(焰硝監煮官) 김범(金範) · 안진(安璡)은 밤낮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심력을 다하였으니 역시 가상스러운 일입니다. 전례에 따라 시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가자(加資)하고 김범은 하삼도의 변장(邊將)에 제수하라" 하였다.[62]

62) 壬戌十月三十日壬辰兵器都監啓曰: "郎廳前郡守金應昌啓下察任, 已過十六朔之久. 訓鍊僉正李廷培, 前司果尹汝任等, 朔數雖不及於金應昌, 而其所監造鳥銃九百餘柄, 環刀六百柄, 大炮九十位, 火箭一千五百枝, 甲冑具三十五部, 各樣兵器, 優於常數, 無不精利. 加以李廷培, 則今秋受差黃延道, 一月之內, 貿鐵三萬餘斤, 務盡心力尹汝任則兼察焰硝廳, 往來監董, 六朔之內, 煮取之數, 多至一千二百六十斤, 勤苦最多. 焰硝監煮官金範, 安璡, 晝夜不離, 盡心竭力, 亦爲可嘉, 似當照例施賞 皇恐敢啓." 傳曰: "竝加資. 金範, 下三道邊將除授."



윤여임과 백선남을 함께 모신 백산서원



윤여임 충신 정려문

윤여임은 병기(兵器) 전문가로 많은 공을 세웠고, 여러 관직을 거쳐 1636년(인조 14) 봄에 상주영장(尙州營將)으로 부임하였다. 그해 겨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러 급히 근왕군을 소집하여 출정하라"는 경상감사 심연의 격문을 받고 속오병을 소집하고 휘하 무관들과 향리에 있던 무관 출신들을 소집하였다. 창원부사로 있는 동향인 백선남에게도 연락하여 부족한 병력을 빨리 보충하도록 요청하고, 제일 먼저 남한산성을 향하여 출진하였다. 남한산성에 이르는 길목인 광주의 쌍령까지 주야로 달려갔지만 적병이 이미 길을 차단한 상태였다. 쌍령에서 윤여임의 상주군은 경상 우병사 민영에게 배치되어 진을 구축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민영과 종사관 도경유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즉 도경유는 좀 더 남한산성 가까이 가서 청군과 싸워야 하니 진군하자고 하였으나 민영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은 더 가까이 가면 전세가 불리할 것이므로 이곳 쌍령에 진을 치고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쌍령 우측에 진을 구축하기로 하여 목책을 세우고, 암벽을 방패삼아 진을 치게 되었다.

정월 초사흘 새벽에 적이 기습을 감행해 아군의 좌진을 무너뜨리고 그 여



윤여임 정려각



윤여임과 백선남의 위패

세로 우진을 공격해 왔으나, 우진에서는 단단히 방어하여 공격해 오는 선두의 적 수십 명을 물리쳐 적으로 하여금 주춤하여 퇴각하게 하였다. 이에 휘하 군사와 함께 적을 공격하여 승세가 있었으나, 병사들에게 화약을 급히 분배하는 도중에 진 안에 쌓여있던 화약더미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약의 폭발로 감분관(監分官) 2명과 병사 100여 명이 폭사하게 되니, 진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병사들은 도망하기 바빴고, 그 틈을 타서 오랑캐 무리들이 우진 안으로 총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그러나 화약이 없는 아군의 조총은 막대기에 불과하였으며, 쓸 수 있는 무기는 활만 남았다. 윤여임은 애마의 고삐를 풀어주고,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뜻을 굳히고 군사를 독전하여 계속 활을 쏘아댔다. 그의 화살은 적에 명중하여 여러 명의 적을 죽였으며, 그의 다섯 손가락은 모두 마모되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소매를 잘라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許身殉國 不得終孝(나라 위해 몸을 바쳐 임종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혈서를 썼다. 그리고 그의 노복에게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갖다드리라고 하고는 적과 부전(赴戰)하였으나 결국 장렬히 순절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가족들이 쌍령에 달려와 간신히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그의 몸에 박힌 화살이 부지기수였다고 전한다. 윤여임의 모친은 아들의 혈서를 보고 울면서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이 죽을 곳을 얻어 나라 위해 싸우다 죽었으니 기특하고 장하다"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운구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행하도록 하여 윤여임의 고향 김제 백산에 장사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1637년 2월 윤여임은 민영, 선세강 등과 함께 최초로 증직(贈職)되었는데,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영원군(鈴原君)에 추봉(追封)하여 포상하고 충신으로 정려하였다.[63]

또한 왕이 명하여 자손을 녹용(錄用)하고 가족에게 월봉을 지급하게 하였다. 윤여임은 그의 동료인 당시 창원부사 백선남과 함께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청곡사(靑谷祠)와 백산면 하서리 백산서원(白山書院)에 배향되었다. 백선남과 윤여임은 김제 출신의 동갑내기로, 같은 해에 무과에 등제하여 함께 출사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함께 병조참판에 추증된 것도 조정의 배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산서원은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제15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에 소재하고 있다. 현지 유림들이 매년 향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彙編』, 『金堤市史』, 『梅山集』, 『湖南節義錄』, 『坡平尹氏鈴陽君派譜』

63) 備局啓曰: "卽見慶尙監司沈演狀啓, 右兵使閔梓, 終始力戰, 兵敗之時, 軍官下卒, 扶擁上馬, 則再三却馬, 終不避走. 尙州營將尹汝任, 安東營將宣世綱等, 交鋒之日, 奮不顧身, 力戰而死云. 此三人死國之忠, 誠極可嘉, 請竝加褒贈." 答曰: "依啓. 其子孫錄用, 其有老親者, 月俸題給, 葬需及喪柩護送事, 一體施行." 仁祖實錄 15年 2月 26日.

창원부사 백선남의 용전


백선남 묘갈

백선남(白善男)의 자는 수여(秀汝)이고,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해부사(金海府使)를 역임한 부친 백광호(白光浩)의 장남으로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효성스러웠고, 용모가 준수하였으며,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다.

1603년(선조 36)에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광해군의 패륜정치(悖倫政治)에 실망하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에 완풍군 이서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다. 1631년(인조 9) 공청도 수군절도사에 특별히 제수되었고, 1633년에는 부호군이 되었으며, 이듬해 1634년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있으면서 군량(軍糧)과 군기(軍器)를 잘 비축하여 인조로부터 말 한필을 하사받기도 하였

다. 그 공으로 1635년 창원부사(昌原府使)에 특별히 제수 되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감사 심연(沈演)으로부터 격문을 받아 발병(發兵)할 것을 지시받았다. 당시 김해영장(金海營將) 황이중(黃履中)의 병이 중하여 백선남이 대리하여 출정한 것인데, 때는 1636년(丙子) 12월 27일 낮이었다. 백선남은 격문을 받자마자 부리(府吏)에게 나무 조각을 깎아 오라고 하여 작은 명패(名牌)를 만들어 성명을 새긴 후 상투 속에 넣었으며,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속옷으로 갈아입었다. 동생인 인남(仁男), 의남(義男)과 헤어지면서 이르기를, "내가 전장에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니, 시신을 찾을 때 이것으로 식별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28일 아침 백선남은 병사들을 일으켜 창원에서부터 북쪽을 향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폭설이 내리고 바람도 심하게 불었지만 백선남은 단지 털옷 한 벌만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먼저 향우(鄕友)인 상주영장(尙州營將) 윤여임(尹汝任)에게 달려갔으나 윤여임은 이미 남한산성을 향해 출발한 뒤였다. 계속하여 병사를 이끌고 달린 끝에 이듬해인 1637년 정월 2일에야 광주 쌍령(雙嶺)에 도착하였다. 혹한의 날씨에 눈마저 쌓여 행군이 어려웠고, 거리가 워낙 먼 창원에서 출발한지라 다른 지역의 장수들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쌍령에는 경상도 좌 · 우 병사와 충청도의 병사가 각기 진을 치고 있었다.

다음 날인 정월 3일 미명에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허완과 민영, 그리고 충청병사 이의배의 진이 연속으로 무너졌다. 이때 백선남의 군사는 불과 300여 명으로 매우 적은 병력이지만 정병에 속하였다. 그는 이의배의 군진이 허약함을 간파하고 이의배 진의 북쪽 산기슭에서 돌진해오는 오랑캐군을 향해 투석으로 공격하여 많은 적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적들은 산을 배경으로 하여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여오니, 세 병사(兵使)의 진이 모두 궤멸되었다. 백선남은 오랑캐의 진으로 치달려 들어가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종래 순절하고



백선남과 윤여임을 함께 모신 청곡사



청곡사묘정비

말았다.

백선남이 적의 화살을 맞고 운명하기 직전 창원부리 황시헌(黃是憲)이 옆에 있었다. 백선남은 주머니에서 창원부의 부인(符印)을 꺼내주면서 "나는 이제 명을 다했으니, 그대는 살아 돌아가 이 부인을 잘 보관하였다가 새로 부임하는 부사에게 드려야한다" 하고 장렬히 순절하였다. 황시헌이 부인을 받아 손에 꼭 쥐고 있을 때 오랑캐군이 달려와 손에 쥔 것을 내 놓으라고 하자, 황시헌은 꼭 움켜쥐고 놓지를 않았다. 그러자 오랑캐군은 황시헌의 팔을 검으로 내리쳤다. 오른 팔이 잘려나가자 황시헌은 왼팔로 부인을 옮겨 잡고 놓지를 않았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다시 황시헌의 왼팔도 내리쳤다. 황시헌은 그렇게 처참하게 최후를 마쳤으니 당시 그의 나이 31세였으며, 백선남의 군사 100여 명도 이때 함께 전사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백선남의 애마가 창원부 동헌 앞에 돌아와 비명을 질렀다. 두 아우는 백선남이 전사 한 것을 알아채고 가족이 함께 주야로 달려 광주 쌍령에 이르렀다. 산처럼 쌓인 시체 속에서 백선남의 시체를 찾았는데, 과연 목패와 얼룩진 옷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백선남은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贈職)되었다. 창원부에서는 동헌 앞에 백선남을 기리는 청정비를 세웠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都護府使白侯善男淸政碑

於戱我使 可泯其跡	어허! 우리 사또 그 훌륭한 자취가 희미해질 수도 있겠구나.
政淸留犢 志甘果革	정사는 맑아 미물에까지 미쳤고, 뜻이 좋다면 과감히 혁신했도다.
民懷其惠 士哀其死	백성은 그 은혜를 되새기고, 선비들은 그 죽음을 슬퍼하노라.
短碣一片 遺愛千禩	작은 비석 하나이지만, 아름다운 그 자취는 천년을 가리라.
丁丑十月 日	정축(1637) 10월 일



백선남 청정비

백선남 청정비는 지금도 창원시 용주공원 안에 보존되어 있다. 백선남은 당시 상주영장 윤여임(尹汝任)과 동향(同鄕)으로 전라도 김제 출신이다. 함께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공교롭게 같은 날 순국하였으니 참으로 드문 일이다.

조정에서는 김제의 청곡사는 물론 윤여임의 부친 파릉군(坡陵君) 윤찬의 위패를 봉안한 백산사에도 윤여임과 함께 배향하도록 배려하고, 두 충신을 똑 같이 병조참판으로 증직하고 정려(旌閭)하였다.

백선남의 가세(家世)는 충의(忠義)로운 집안이다. 숙부 백광언(白光彦)은 임진왜란 때에 공주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여 병조판서에



백선남 충신 정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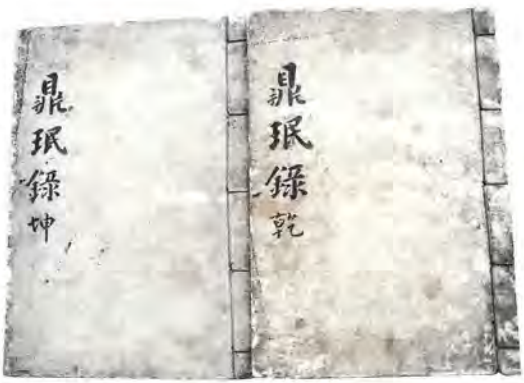
증직되었고, 족숙 사림(士霖)은 이순신(李舜臣)과 더불어 왜군과 싸우다가 한산도(閑山島)에서 전사하였다.

창원부리 황시헌(黃是憲)은 백선남 곁에서 함께 전사하였다. 황시헌은 숙종 때에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추증하고 정려하였다. 한편 백선남과 황시헌의 장렬한 순국 장면은 「문창제놀이」라고 하여 충절을 추모하고 기리는 민속놀이로 민간에 전해왔는데, 1980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제5호로 지정되었다. 창원시에서는 매년 3회가량 「문창제놀이」 재연행사를 공개 시연하고 있다. 백선남의 묘소는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선영에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昌原邑誌』, 『尊周彙編』, 『湖南節義錄』

용장 이억의 한 맺힌 순국과 부인 박씨의 정절



정민록

이억(李檍)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여량(汝樑), 호는 신암(愼菴)이다. 1615년(광해군 7) 3월에 충청도 덕산(德山)에서 현감 이석립(李碩立)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도량(度量)이 있어 희로(喜怒)에 변함이 없고, 움직이고 멈춤에 법도가 있었으며, 자라면서 문무(文武)를 겸비하여 병서(兵書)를 읽고, 활쏘기와 말을 잘 탔다. 공부를 열심히 해 무과(武科)에 우두머리로 급제하여 일도(一道)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강개(慷慨)한 기질이 있어 항상 의분(義奮)을 생각하고,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나라를 위한 마음가짐이 본디부터 있었다. 1636년 병자호란

이 발발하였을 때 그의 나이 22세였다.

충청병사 이의배가 호서지방에 충의(忠義)로운 이억이 있음을 알고 천거하여 조정으로부터 격문을 받았다. 마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을 물리고 모친께 말씀드리기를, "짐승 같은 오랑캐가 창궐하여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계시니 신하된 자로서 분하고 근심이 됩니다. 어찌 격문을 받고도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니, 모친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는 이어서 처 박씨를 돌아보고, "늙으신 어머니를 잘 모시기 바라오. 그리고 또 어린 것을 잘 보호하여 주시오" 하고는 의대(衣帶)를 갖추어 입고, 노복 덕금(德今)을 데리고 가족들과 헤어져 집안의 장정들을 이끌고 충청병사 이의배(李義培)의 군진으로 들어갔다. 이의배의 군진은 해미영장 이근영(李根永)과 부장 이차형(李次衡) 등의 장수들과 이의배의 종제 이천배(李天培)를 비롯한 젊은 장수 여러 명이 약 2,000명의 병력으로 서산에서 출발하였다.

이의배의 군사는 12월 26일경에 죽주산성(竹州山城)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적의 동태를 살펴본 병사 이의배는 용인을 지나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목인 탄천(炭川) 부근에 5만이 넘는 오랑캐군이 진을 치고 남한산성을 공격하려는 것을 알았다. 남한산성에 파천하여 고립된 조정에서는 파발(擺撥)을 보내, 이의배에게 하루속히 진격하여 오랑캐를 무찌르고 성에 갇혀있는 왕을 구하라고 독촉하였다. 남한산성의 조정에서는 이의배가 겁을 집어먹고 진격하지 않는다며 당장 처단하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런데 백전노장 이의배는 오랑캐의 진세를 보니, 그의 군사로 지금 진격하면, 전원이 몰살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서 죽주산성에 있던 해미영장 이근영(李根永)과 이차형(李次衡)이 "무리를 해서라도 진격을 해야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며 선봉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의배는 할 수 없이 이근영을 선봉장으로 삼고, 이차형을 부장으로 삼아 진격시



이억 묘

켰다. 그러나 그들은 용인을 지나 탄천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오랑캐군의 기습을 받고 전원이 몰상당하고 말았다.

죽주산성에 남아있던 충청 근왕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침울한 가운데, 마침 영남에서 근왕군 수천 명이 광주의 쌍령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사이 정축년(1637)이 시작됐고, 이의배는 정월 초하루에 남은 군사 1,000여 명을 인솔하여 쌍령으로 가서 경상 우병사 민영의 근왕군과 합세하여 민영의 군진 옆에 진을 치게 되었다.

이억은 병사 이의배의 비장(裨將)으로서 항상 그의 곁에서 지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였다. 정월 초사흘 미명에 오랑캐의 기습이 시작되어 영남의 좌진(左陣)이 무너졌고, 연하여 적들이 우진으로 공격하였으나 민영의 군사들이 굳게 방어하여 오랑캐들은 좀처럼 진으로 돌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억 충신 정려문



이억 정려각

민영의 진중에 쌓여있던 화약더미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100여 명의 군사들이 폭사하고 굉음에 놀란 병사들이 진을 이탈하여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의배의 진영도 혼란스러워졌다. 병사(兵使) 이의배를 비롯한 군관들이 달려드는 오랑캐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여 싸웠으나 역부족이어서 진은 곧 무너졌고, 이의배도 장렬히 순절하였다. 비장 이억은 흩어져 도망하는 군사들에게, "임금이 욕을 당하고 장군이 위태로운 가운데 용전하다가 쓰러졌는데, 구차하게 너희들만 살려고 하느냐"며 큰소리로 꾸짖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하여 재배하고 나서 푸른 군복을 찢은 후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자기의 성명을 써 노복 덕금(德今)에게 주면서, "나는 이제 스스로 떠난다. 우리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주고 내가 죽었음을 알려라. 어린 아들이 장성하거든 보여주라고 해라" 하였다. 덕금이 "이곳을 탈출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을 대령하였으나 이억은 오로지 적을 향해 손가락이 헤어지도록 연신 활을 쏘아댔을 뿐이다. 이윽고 화살이 바닥나자, 시석(矢石)을 적진으로 날려 몇 놈의 오랑캐를 쓰러뜨리고 이어서 검을 쥐고 적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결국 검은 부러지고 몸에는 수십 창을 맞아 장렬히 순절하였으니, 당시 이억의 나이 23세였다.

다음 날 이억의 애마(愛馬)가 안장에 혈서가 적힌 옷자락을 걸고 돌아와 대문 밖에서 울어댔고, 집안사람들은 비로소 이억이 전장에서 해를 입었음을 알았다. 노복 덕금이 살아 돌아와서 이 사실을 자세히 알렸다. 이억의 애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않더니 다음 날 애석하게 죽고 말았다. 가족들이 이억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쌍령으로 달려갔으나, 오랑캐들이 시신이 쌓인 곳에 불을 질러 모두 훼손되었으므로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초혼으로 대신하고 돌아와 의관으로 덕산 선영에 장사하였다.

한편 이억의 부인 죽산(竹山)박씨는 당시 열아홉으로, 첫 아들은 강보에 쌓여있었다.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번 자진하려 하였으나, 늙은 시모(媤母)와 어린 아들 때문에 차마 결행하지는 못하였고, 6년 동안이나 여막(廬幕)에서 살아 주위 사람들마저 슬프게 하였다.

박씨는 임종 할 때 유언하기를, "장군의 의대(衣帶)를 나의 관 속에 함께 넣어 달라"고 간절히 당부하였으며, 이억의 묘에 합장하였다.

이억이 죽은 지 65년이 지난 1702년(숙종 28)에 이르러서야 덕산현(德山縣)의 현감과 유림(儒林)들의 상소에 의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의 증직(贈職)이 내려졌으며, 충신(忠臣) 정려(旌閭)도 함께 내려졌다. 이억의 순절을 특히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당시 현직 군관도 아니면서 그와 이의배의 노복들이 탈출하자고 하였을 때에 그곳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오랑캐와 싸우다가 목숨을 버린 의협심과 충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억의 묘는 충남 예산군 봉산면 금치리에 있고, 묘하에는 정려각(旌閭閣)이 있는데,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정려각 옆에는 이억의 애마총(愛馬塚)이 있어 지금까지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錄』, 『鼎珥錄』, 『禮山郡誌』

현감 손종로의 분투



손종로 묘갈

손종로(孫宗老)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고경(考卿)이다. 중종(中宗) 때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고, 이조판서를 역임한 경절공(景節公) 손중돈(孫仲暾)의 현손(玄孫)이다. 1598년(선조 31) 경주(慶州) 강동(江東)에서 판관(判官)을 역임한 부친 손시(孫時)와 모친 영월신씨(寧越辛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7세에 부친이 돌아가시어 백씨인 주부공이 양육하였다.

1615년(광해군 7)경부터 북방의 오랑캐가 창궐하여 오만하게 다가오자, "사나이가 학문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외침을 받을 위험에 있으니, 마땅히 무술(武術)을 익혀 전장에 몸을 던져



손종로의 재실 단고사

야 한다"고 하면서 붓을 던지고 궁술(弓術)과 마술(馬術)을 익혔으며, 1618년 21세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의 혼정(昏政)이 계속되자 벼슬길을 단념하고 향리에서 모친을 봉양하며 살았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인 1631년(인조 8)에 비로소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12월 의영고(義盈庫)의 주부(主簿)가 되었으며, 1633년에 남포현감(藍浦縣監)에 임명되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있을 때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되었다는 소식과 근왕군(勤王軍)을 편성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라는 경상감사 심연의 격문을 접한 손종로는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편안히 집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훈공(勳功)을 세워 몸을 나라

에 맡겨 녹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마땅히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모친에게 고하였다. 모친이 이르기를, "너는 진실로 우리 손씨 집안의 아들이다. 내가 흰 솜으로 만든 배자를 간직해 전해오는 것이 있는데, 이는 화살을 방어 할 수 있으니, 가히 오늘날 너를 위하여 주게 되었구나" 하면서 건네주니, 손종로는 모친에게 큰 절을 하고 그것을 받았다.

집안 식구들에게는 "내 걱정은 말고 노모를 잘 봉양하여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은 나중에 나의 시신을 찾으려면, 좌측 어깨의 흑사마귀와 어머니께서 주신 명주옷으로 징험을 하여라" 하고 출전하였다. 그는 활과 검을 들고 노복(奴僕) 두 사람을 거느린 채 의병들과 함께 떠났는데, 무예가 있는 향리 사람 신상뢰(辛商賚)와 박홍원(朴弘遠)이 함께 나섰다. 신상뢰는, "우리의 군사는 미약하니, 죽령(竹嶺)을 넘어 원주영장(原州營將)에게로 가서 합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손종로는 경주에서 출발하여 죽령의 험한 고개를 넘자면 조령(鳥嶺)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인데, 그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임금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 길을 돌아서 갈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행군을 하여 조령을 넘어 충주와 이천을 거쳐 이듬해 정월 초하룻날 광주(廣州) 쌍령(雙嶺)에 이르러 더 이상 전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오랑캐들의 척후가 나타나 길이 막혀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의 선봉대가 이미 쌍령에 진을 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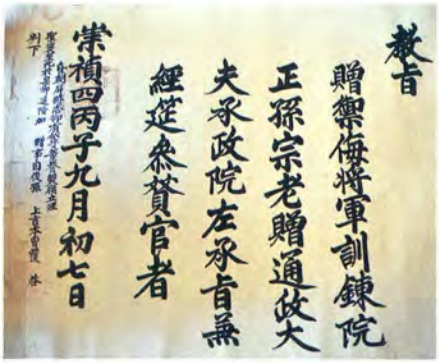
손종로는 좌병사 진영에 배치되었다. 좌병사 허완과 그의 휘하 장수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손종로는 눈물을 흘리며,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는 임금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길이 막혀 저들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으니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였다. 사실 근왕군은 쌍령에 진을 치고 오랑캐와 대적할 계획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랑캐의 척후가 나타났기 때



손종로 충신 정려문



손종로 노복 억부 충노 정려문



敎旨
贈禦侮將軍訓鍊院
正孫宗老贈通政大
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者
崇禎四丙子九月初七日

손종로 증직 교지



敎旨
淑人趙氏
贈淑夫人
者
崇禎四丙子九月初七日

손종로 처 한양조씨 증직 교지

문에 우선 쌍령에 진을 친 것이며, 모진 한파(寒波)와 많은 적설(積雪)로 인하여 진지를 구축하기에는 너무나도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정월 초사흘 먼동이 트면서 오랑캐의 기병(騎兵)과 보병이 기습을 감행하여 왔다. 적들은 근왕군이 도평리(島坪里) 벌판과 현산(지월리) 마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는, 도평리 뒷산과 현산 마을 뒤 국수봉 자락으로 올

라가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하였다. 처음에는 30여 명의 기병만을 보내 좌병사 진영의 목책(木柵)까지 다가오면서 산발적으로 공격을 해 왔다. 이에 선봉에 섰던 선세강의 지시에 따라 손종로는 휘하 군사에게 발포를 명하여 일제히 활과 조총(鳥銃)을 발사하였다. 앞에 있던 자들이 쓰러지자 적들은 놀라서 퇴각하였다.

그러나 아군은 1인당 2냥씩 밖에 배부하지 않아 화약은 곧 떨어졌고, 화약을 빨리 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적진에까지 들렸다. 적들은 이 틈을 타 공격을 가해 목책(木柵)을 넘어 수백의 기병과 보병이 좌병사의 진으로 들이닥쳤다. 근왕군의 선봉진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안동영장 선세강이 진두지휘하며 활을 쏘아댔으나 유시(流矢)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사기를 잃은 선봉진 아군 병사들은 도망하거나 혹은 목책에 막혀 적의 창칼에 무수히 쓰러졌다. 손종로의 막하 박홍원이 그에게 다가와 소매를 끌면서 목책을 넘으면 살길이 있으니,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빨리 탈출하자고 하였다.

이에 손종로는, "장수가 죽을 곳을 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복을 불러 "너는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다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노복 억부(億夫)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적에게 화살을 날려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적의 위세가 워낙 강하여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40세였다.

손종로는 현직에 있지도 않았고 병권(兵權)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자진해서 의병을 모아 참전한 것인데,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순절하였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노복과 박홍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이런 사실을 행장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아들 손수(孫鎏)와 조카 손집(孫鏶)이 쌍령의 전쟁터로 달려가 시신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워낙 많은 시신들이 쌓여있는데다가, 오랑캐들이 시신에 불을 놓아 식별할 수가 없었으며, 혹 사마귀나 명주방탄복으로도 징험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의관(衣冠)으로 초혼



정충각



낙선당 실기

(招魂)한 후 경주 땅에 돌아와 그것으로 장례를 치렀다.

난리가 끝나고 처음에는 훈련원정(訓練院正)에 증직되었다가 정조(正祖) 때에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가자(加資)되었으며, 동시에 충신(忠臣) 정려(旌閭)가 내려져 노복 억부와 함께 고향 마을에 정려각(旌閭閣)이 세워졌다.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에는 400여 년 된 손종로의 생가와 정려각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옥으로 지은 생가에는 그의 12세 종손 손영호(孫濚鎬) 씨가 살고 있는데, 사당에는 불천위(不遷位) 위패가 안치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중요민속자료 제73호로 지정되었고, 정려각은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261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그의 정려각 옆에는 쌍령전투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손종로와 함께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노복 억부(億夫)의 정려각이 나란히 서 있는데, 손종로의 후손들이 잘 보존하여 오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허묘(虛墓)이지만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에 묘소가 있으며,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찬한 비석이 묘 앞에 있다. 채제공은 손종로의 비문에서 "박홍원이 탈출하자고 하였을 때 살고자 하였다면 능히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오직 죽음으로 보국(報國)함이 그의 참 뜻이었다"고 써놓았다.

부인은 한양조씨(漢陽趙氏)인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외증손녀이다. 손종로가 순절한지 20년 후에 별세하여 부군과 합장을 하였다.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수(鎃), 차남은 흠(欽)이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脩周彙編』, 『樂善堂實記』, 『嶠南誌』

민영의 부장
허득량 · 복량의
분전

허득량(許得良)의 본관은 김해(金海)이고, 자(字)는 국필(國弼)이며, 호(號)는 상무헌(尙武軒)이다. 부친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허용로(許龍老)이고 모친은 동래정씨(東萊鄭氏)로 교리(校理) 정남웅(鄭南雄)의 딸이다. 1597년(선조 30) 정월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범인과 차별되었으며, 갈력(竭力)이란 글자가 팔에 있어 기이하게 여겼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경사(經史)를 통달하고, 주자(朱子)의 『근사록(近思錄)』을 여러 번 탐독하며 자랐다. 19세에 상경하여 김상용(金尙容), 김상헌(金尙憲) 두 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교유(交遊)하여 학문을 닦았다.

어느 날 개연히 붓을 던지고 말하기를, "이 세상에 대장부로 태어나서 성현(聖賢)의 위업을 이루지 못할진대 마땅히 힘을 내어 왕실을 도와 위엄을 만방에 떨칠 것이지, 어찌 한낱 글만 읽는 선비가 되어 한가하게 허송세월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신경진(申景禛)[64]의 막하(幕下)로 들어가 무술(戊戌)을 연

64) 신경진은 임진왜란 당시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한 신립(申砬) 장군의 장남으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장수로 싸웠고, 후에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허득량 묘

마하였다. 병서(兵書)를 통달하고 용맹이 뛰어나더니, 1620년(광해군 12) 무과(武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지냈고, 1624년(인조 2)에 이괄의 난을 당하여 인조로부터 금군별장(禁軍別將)을 제수 받아 장만(張晩), 유백증(兪伯曾)과 더불어 안현(鞍峴)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 무훈을 세우니, 절충장군(折衝將軍) 호군(護軍)에 제수되었다. 1628년에 벼슬을 그만 두고 향리에 돌아와 작은 서재(書齋)를 짓고 상무헌(尙武軒)이라고 편액(扁額)을 달았으며 입공보절(立功報節)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1636년 겨울에 오랑캐인 청병(淸兵)이 갑자기 침입하여 나라의 운명이 창황하게 되었다. 왕은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몽진(蒙塵)하고, 오랑캐군 10만



용강서원

이 성을 포위하여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감사(監司) 심연(沈演)의 전갈을 받았다. 이에 허득량은 분연히 궐기하여 가족들과 작별하며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도다.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 입신(立身)하여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으니, 마땅히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은혜를 갚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야 하니, 어찌 집안의 일을 생각 하리오. 다만 가련한 것은 내 집안의 다섯 살 먹은 외동아들을 늦게나마 두었는데……" 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자손이 없다가 나이 40이 넘어 겨우 아들을 두었던 것이다.

그의 종제 허복량은 현감(縣監)을 지내다가 향리에 와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마을 근처의 속오병(束伍兵) 수백 명을 모아 곧바로 경상감영으로 달려가

감사 심연을 만났다. 그는 심연에게 "보병 5,000을 내게 주시면 곧바로 남한산성으로 가서 적의 선봉과 싸워 종묘사직의 치욕을 씻고, 우리 신민(臣民)의 원통함을 위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그러나 감사는 머뭇거리며 허락하지 않았다. 감사의 종사관 도경유(都慶兪)가 곁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 형제의 용무(勇武)는 내가 친히 아는 바이니, 감사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심연은 5,000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에 대신 우병사(右兵使) 민영(閔栐)의 군사를 도와 싸우도록 허락하였다.

광주(廣州) 쌍령(雙嶺)에서 민영의 군진과 합류하니, 민영이 크게 환영하며 매사에 자문을 받아 군무를 처리하였다. 좌병사 허완의 진영에 가서 상황을 돌아 본 허득량이 민영에게 이르기를, "병사 허완이 병졸들에게 화약을 단지 2냥씩만을 지급하니, 이는 적과 싸울 때에 부족할 것이므로 최소한 5~6냥씩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건의 하였다. 그러나 민영의 생각도 허완의 판단과 같아서 "부족한 화약을 많이 지급하면, 적과 대적할 때 함부로 소진 할 우려가 있으니, 우선 2냥씩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허득량은 또 "좌병사 진지의 위치가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 평지여서 산 위에서 아래로 적이 공격하여 온다면 지극히 방위하기가 어렵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다. 이번에는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의 군진만이 선봉에서 막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재삼 간청하였으나 이도 통하지 않았다. 이때 선세강의 생각도 허득량과 같아서 아무리 혹한 속이라도 산 위에 진을 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허완의 작전은 남한산성을 향하여 좀 더 진군 할 계획이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군사들을 혹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정월 초 사흘 새벽, 적의 선봉 33인이 나무 방패를 들고 현산(見山) 마을 뒷산인 국수봉 근처에서 좌병사의 진으로 공격하여 왔다. 이에 아군 외곽의 선세강 진영에서 조총을 쏘아 적군의 선봉 중 용맹한 자가 맞아 죽었다. 적들이 두려워하는 듯 머뭇거리며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아군 진영의 포수



허득량 애마의 백마분



허득량 증직 교지

들이 연속으로 총을 난사하였으나 한 놈의 적도 맞추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화약만 소진되었다. 선세강 진영의 장졸들이 빨리 화약을 달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가 적의 군중까지 들리니, 적이 그 말을 알아듣고 다시 전진하여 목책 가까이까지 들이닥쳤다. 이때 안동영장 선세강이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그러자 잠깐 사이에 적병이 사방에서 협공하여 우리 군진의 선봉이 크게 무너지고 말았다. 목책에는 시체가 가득 쌓이고 남은 군사들은 우병사의 진영으로 달아나거나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다.

좌병사 허완의 중앙 군진도 무너지고 말았다. 중군 이인남이 스스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좌군의 본진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다. 허완은 비장(裨將)이 말을 대령하고 타라고 하였으나 스스로 패도를 뽑아 자결하였다.

적병이 우병사의 진을 향하여 온다는 전갈을 받고, 허득량은 포군 수백을 전대(前隊)에 배치하고 말에 올라 지휘하여 쳐들어오는 적을 향해 총을 쏘아 적의 선봉대를 궤산시켰다. 수십 급을 참획하는 등 승첩(勝捷)의 기세가 보이자 허득량은 득의양양하여 적의 뒤를 쫓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봉의 병사들이 화약이 떨어져 감분관(監分官)에게 독촉하여 화약을 보급 받고자 하였다. 감분관은 군사들에게 화약을 더 배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분을 시작

하려는데 갑자기 불붙은 화승(火繩)이 화약 더미에 떨어졌다. 불길이 하늘에 솟아오르고 화약이 폭발하는 괴음과 함께 온 진중은 화약연기로 가득했고 주변에 있던 군사 100여 명과 함께 감분관 두 사람도 폭사하고 말았다. 아군 진영은 연기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여 군병이 도망하느라고 서로 짓밟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적이 우리 군진이 크게 요란함을 보고, 그 틈을 타서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들이닥쳤고, 우병사의 진에서도 이탈하는 군사가 속출하였다. 허득량이 크게 놀라 외진(外陣)에 나와 보니, 아군이 헤아릴 수 없이 죽고, 적병이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그가 창과 칼을 빼들고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치고 박고 싸워서 적병을 수 없이 죽였으나 적의 창에 수십 군데나 찔렸다. 힘이 다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병사 민영과 더불어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종묘사직을 어찌하리오. 남한산성이 멀고 머니, 이 소식을 누가 전할꼬!" 하고 진 앞에 나서서 칼을 빼어들고 적을 꾸짖으며 숨을 거두었다. 이때 허득량의 나이 40세였다.

허득량이 전사하던 날, 그는 사태가 불리함을 알고, 진중가서(陣中家書)를 백마 안장에 끼워 넣고 서둘러 말을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해가 질 무렵 전쟁터에서 600리나 되는 그의 집에 그의 백마가 도착하여 발을 구르며 슬피 울거늘, 부인이 크게 놀라며 나가서 말안장을 살펴보았는데, 다만 몇 조각의 서신뿐이었다. 부인이 대성통곡하고 기절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운명하였고, 백마 또한 몇 길을 뛰다가 죽었다. 허득량은 나라를 위하여 죽고,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고, 말은 주인을 위하여 죽었으니, 장렬한 그 자취는 고금에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집안도 별로 없이 다섯 살 된 어린아이만 있을 뿐이니, 그가 전사한 뒤에 운구도 못하여 관(官)에서 운구하여 향리에 장사지냈다.

부인 밀양박씨는 참봉 박세범(朴世範)의 딸이다. 유일한 혈육이던 다섯 살 아들은 부인이 운명하기 전 몸종에게 양육을 부탁하였다. 종제 허복량도 경상우군 진영에서 싸우다가 절의를 지켜 죽었으니, 문중충절(門中忠節)이 역사



상무헌유고

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한편 허득량의 다섯 살 난 아들 허계(許誡)가 성장하여 아들 넷을 두어 그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조 순조(純祖) 때에 이르러서야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증직(贈職)되고, 부인도 정부인(貞夫人)에 추증(追贈)되었다. 1696년(숙종 22)에 충렬묘(忠烈廟)를 세웠다가 1804년(순조 4)에 용강서원(龍岡書院)으로 이건(移建)하였다. 용강서원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尙武軒遺稿』, 『嶠南誌』

경상감영 비장 이서우의 충절

이서우(李瑞雨)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字)는 무경(茂卿)이다.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8세손으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증병조참판 부친 이광복(李光復)과 모친 영천(永川) 최씨 사이에서 1584년(선조 17) 6월에 칠곡군 지천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임진왜란 때에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지내고 의병을 일으켜 공훈을 세워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이서우는 11세 때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 밑에서 자랐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학문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하지만 그의 체격이 우람하고 호방하여 모친은 장수재목이라고 생각하여 무관(武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붓을 던지고 무예(武藝)를 닦는데 힘써 드디어 1618년(광해군 10)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북방의 수자리를 살면서 정탐사(偵探使)로 변경을 왕래하며 공을 세우기를 여러 번 하였으며, 그의 실력을 비변사(備邊司)에서 인정하고,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이 체찰사(體察使)로 있을 때에 막부(幕府)에서 자문에 응하였다. 1632년에는 용양위(龍驤衛)의 병절교위(秉節校尉) 부사과(副司果)



이서우 묘

로 승진하고, 1633년에 경상감영(慶尙監營)의 비장(裨將)으로 발탁되었다.

그의 휘하에는 500명의 병력이 있었고, 군기(軍器)를 항시 준비하느라 군졸들을 이끌고 김해지방에서 화살을 만들 대나무를 벌채 하였으며, 휘하 장졸들을 열심히 훈련시켰다.

1636년 겨울, 여느 날처럼 김해에서 전죽(箭竹)을 벌채하고 있었는데, 감사 심연(沈演)으로부터 북쪽의 오랑캐가 침범하여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몽진(蒙塵)하였고, 오랑캐군에게 완전 포위되었다는 격문(檄文)을 받았다. 감사는 이서우에게 지체 없이 막하 군사 500을 인솔하여 좌 병사 허완(許完)의 휘하로 들어가 남한산성으로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서우는 옷소매를 뿌리치고 일어나 군사들에게 이르기를, "북쪽 오랑캐가 우리를 제압하고 나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 할 수 없는 것이니, 각자 군장(軍裝)을 챙기고, 정비하여 영하(營下)에 집합하여 내일 출발 하도록 만전을 기하라" 하고, 밤새워 군기와 군량을 준비하여 다음 날 출발하였다.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집에 들러 모친에게 하직 인사

조차 드릴 겨를이 없었는데, 그의 모친이 집에서 호란(胡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가족을 이끌고 길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우가 말에서 내려 모친에게 절하고 말씀 드리기를, "국운(國運)이 중도(中道)에 쇠락하니 후금의 오랑캐가 창궐하여 성상(聖上)께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남한산성에 포위된 지경에 이르러 계십니다.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것은 천지간의 떳떳한 의리입니다. 소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감히 다른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정이 여기에 이르러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승패는 하늘에 달려 있고, 생사는 명운(命運)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애틋한 사랑과 인정을 끊으시고 소자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모친은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기쁜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효도하였으니, 이제는 반드시 나라에 충성을 다 하기 바란다" 하고 색실로 아들의 전포(戰袍)에 꿰매주면서, "전쟁터는 죽는 곳이니, 내가 이 때문에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마부 박철(朴鐵)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이 반드시 나라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알아두어라" 하였다. 그의 모친은 임진왜란 때에 부군(夫君) 이광복이 의병을 일으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경험 하였던 것이다. 하직을 하고 떠나려 할 때에 처자(妻子)가 매달리며 통곡하자 이서우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쓸데없이 그러지 마시오.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서 나의 일을 잊게 하시면, 내 비록 죽더라도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오" 하고는 즉시 말에 올라 채찍질하여 달려 나갔다.

날씨는 혹한이 계속됐고, 눈이 겹겹이 쌓여 행군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이서우는 좌병사 허완의 군사와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의 군사와 함께 주야로 달려 12월 30일 광주(廣州) 쌍령(雙嶺)에 도착하였다.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청나라 오랑캐의 군대가 지척에 널려 있어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우선 쌍령에 진을 치기로 결정하여 좌병사

허완의 진영은 도평리(島坪里)와 현산(見山) 마을 산 밑에 진을 구축하고, 우병사 민영의 진영은 대쌍령리에 진을 구축하였다.


이서우 묘비

쌍령의 지세(地勢)를 살펴 본 이서우는 아무리 혹한 속에 있더라도 군진(軍陣)은 반드시 능선 위에서 남한산성을 향하여 구축함으로써 공격해오는 적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主將)에게 건의하였다. 영장 선세강과 기타 많은 장수들의 의견도 똑같았다. 그러나 총 지휘관인 병사 허완의 작전은 달랐다. 허완은 무기도 부실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부분의 병력이 굶주리며 힘든 행군을 계속하여 동사자(凍死者)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선 위로 병력을 배치하면 동사자가 계속 나올 것이며, 군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전투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도평리 곤지암천변(昆池岩川邊)과 국수봉(國守峰) 밑에 진을 치고, 조총수(鳥銃手)에게는 화약 2냥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외곽에는 중등포수와 하등포수를 배치하고, 정포수(精砲手)로 중앙을 지키게 포진하였다.

정월 초사흘 새벽 오랑캐군이 처음에 300여 기로 기습 해오자, 외곽의 포수들이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적이 퇴각하였다. 이때 포수들이 화약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화약이 떨어졌다는 것을 간파한 적은 일제히 재공격하며 사방에서 수천의 기병이 기습하여 들어왔다. 목책(木柵)이 부서지고 마침내 좌영(左營)의 군진으로 돌격해 들어와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무기라고는

활과 조총밖에 없는 아군 군졸들은 화약 없는 조총으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일부 병사들은 탈출하여 도망가고 나머지는 적의 칼날에 무참히 쓰러졌다.

이서우의 부대는 주로 활로 무장하였는데, 백병전에서는 활이 별무소용이었다. 군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시체를 밟고 넘어가다가 적의 칼날에 쓰러지는 참혹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서우는 하늘을 찌를 기세로 사령기(司令旗)를 세우고, 화살을 뽑아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도록 쏘아대며 태연자약하였다. 마부 박철이 다급함을 알고 말을 끌고 앞으로 나와 "일은 이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니, 이서우가 대답하기를, "대장부가 적을 토벌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죽을 뿐이다. 어찌 여우나 쥐처럼 숨어 나라를 저버리겠느냐. 너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기억하여라. 여기가 내가 죽는 곳이다. 네가 만약 살아 돌아가게 되면 이 사실을 모두 우리 집에 알려라" 하고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적을 맞아 싸우다가 활을 쥔 채 적의 칼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다.

박철이 도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정월 초사흘 새벽에 패전한 사실을 전하니, 모친이 통곡을 하며, "내 아들이 죽을 곳에서 죽었으니, 비록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내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는 즉시 세 명의 손자들에게 명하여 박철과 함께 쌍령으로 달려가 시신을 찾아 수습하게 하였다. 시신은 과연 전에 서서 싸우던 곳에 있었는데, 옷자락의 색실 무늬가 뚜렷하게 보였다. 마침내 관을 받들어 돌아와 장례를 치렀다.

왕실에서는 이서우에게 중훈대부(中訓大夫) 군기시(軍器寺) 부정(副正)을 추증(追贈)하였다. 이서우의 실기인 『충절록(忠節錄)』 1권이 전해온다. 묘는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聳周彙編』, 『嶠南誌』, 『副正公忠節錄』

안동진 영교 김몽린의 분투

김몽린(金夢麟)의 본관(本貫)은 안동(安東)이고, 자(字)는 성서(聖瑞)이며, 낙애(洛厓)는 그의 호(號)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좌의정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으로 1584년(선조 17) 부친 부위(副尉) 김흥려(金興礪)와 모친 선산(善山)박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8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효경의 대목을 즐겨 읽었다. 14세 때인 1597년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성인과 다름없이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 글을 읽는 틈틈이 궁마(弓馬)를 익혀 동생 몽웅(夢熊)과 함께 1621년(광해군 13)에 무과(武科)에 함께 급제하였다.

안동진영(安東鎭營)에 영교(營校)로 배치되어 1636년(인조 14) 12월 병자호란 당시에는 안동영장 선세강의 휘하에서 참모로 복무하였다. 경상좌도의 군사가 근왕병을 일으켜 출정할 때에 선세강은 그의 용맹을 인정하여 전위대(前衛隊)의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그는 노모가 계심으로 사양하였으나 모친께서 이르시기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니, 나를 생각하지 말고 어서 출정하여라" 하시므로, 그는 동생과 영장(營將)의 부장(副將) 권극상(權克常), 안동부리(安東府吏) 권용휴(權用休) 등과 함께 안동영(安東營)의 병사들을 인솔

하고 엄한 군율로 다스리면서 진군을 시작하였다. 열흘을 밤낮으로 달려 광주(廣州) 쌍령(雙嶺)에 도착하였는데, 경상 좌병사(左兵使) 허완(許完), 우병사(右兵使) 민영(閔栐), 충청병사(忠淸兵使) 이의배(李義培)가 각각 진을 쳤는데 상황을 보니, 이곳 전투에서 살아남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아우를 불러 말하기를,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노모(老母)에게 하직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너는 영을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이 길로 필마(匹馬)로 달려 집에 가서 어머니께 하직인사를 드리고 올 것이다" 하고는 말을 달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다. 모친이 깜짝 놀라며 "임금님이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계시는데, 너는 어째서 돌아왔느냐?" 하며 물었다. 김몽린이 말하기를, "어머님께 마지막 하직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 아들은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모친은 "장하다 내 아들아, 어서 가거라" 하며 배웅하려는데, 그의 아들 상경(尙敬)이 그를 따르려고 나섰다. 그는 엄하게 꾸짖으며 이르기를, "너는 늙으신 할머니를 잘 모셔야한다" 하고는 말을 달려 쌍령(雙嶺)으로 돌아왔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새벽에 그의 진영은 오랑캐의 습격을 받았다. 전위대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김몽린은 선세강 영장과 함께 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적과 마주하여 일제히 조총과 활로 사격을 가하여 5~6명의 적을 격살(擊殺)하였다. 이에 오랑캐군이 주춤하면서 물러서는데, 우리 병사들이 화약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오랑캐들이 알아듣고, 일제히 목책(木柵)을 넘어 공격해 들어왔다. 우리 병사들은 당황하여 도망갔고, 영장 선세강이 앞장서서 독전하며 싸웠으나 유시(流矢)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김몽린은 부장(副將) 권극상과 힘을 합쳐 남은 병사들과 더불어 북을 울리며 적을 향해 활을 쏘아대며 전력을 투입하며 버티었다. 그러나 주장(主將)인 허완이 패도(佩刀)를 뽑아 자결하는 바람에 군진(軍陣)은 완전히 붕궤(崩潰)되었다.



김몽린 묘

김몽린의 사졸(士卒) 남묘생(南妙生)과 화살을 나르는 병졸 송두선(宋斗善)이 후일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곳을 일단 물러나자고 제의했으나 김몽린은 정색을 하며, "이곳은 내가 죽을 자리이다. 너희들은 나를 간사한 잡배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남은 근력을 다하여 적에게 달려들어 수십 명을 죽이고 몸에 십여 창을 맞았다. 그는 칼을 어루만지며 분개하면서 "장수로서 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죽으니,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전하랴" 하며 울부짖었다. 그의 동생 몽웅(夢熊)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역전(力戰)하다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최후로 말을 몰아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과 싸우다가 결국 오랑캐의 창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아들 삼형제와 조카들이 호란이 끝난 후 쌍령(雙嶺)으로 달려와 시신(屍身)이라도 찾아 장례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오랑캐들이 쌓인 시신들 위에



낙애행적

불을 놓아 찾을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의관(衣冠)으로 초혼(招魂)하여 풍산(豊山) 괴정 선산에 장례를 치렀다. 봉분을 쌓고 장사를 치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일고 운무(雲霧)가 하늘에 뻗쳤다. 이날 밤에는 무덤에서 말 울음소리와 군진의 쇠북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묘소에 풀이 몇 년간 말라 죽었다고 하며, 훗날 묘소 앞에 대나무 한 그루가 나서 자랐으므로 모두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1637년에 사도시주부(司導寺主簿)에 증직하고, 1656년(효종 7)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追贈)하였다.

배위는 숙부인(淑夫人) 예천임씨(醴泉林氏)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후손이 영달하였다.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에 있다.

| 참고문헌 |

『尊周彙編』, 『洛厓行蹟』,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嶠南誌』

임진왜란의 소년병 박우의 용전



박우 위패

박우(朴瑀)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중헌(仲獻)이며, 호는 기포(杞圃)이다. 부친은 증 공조참의 박경연(朴慶延)이며, 1576년(선조 9)에 청도(淸道)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역사에 능통하고 지혜가 밝아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청도에서는 박우의 집안에서 모두 14명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때 박우의 나이 17세였으나 기개가 있고, 영리하여 그의 숙부(叔父)인 의병장 박경전(朴慶傳)을 따라 나섰다. 나이는 어리나 궁마(弓馬)에 재능이 있어 삼촌의 총애를 받고 자랐으므로 삼촌도 기꺼이 그를 받아들여 마침내 화살 통을 끼고 의병진에



박우의 위패를 봉안한 용강서원

합류하였다.

어린 소년으로서 청도 의병진의 운문산(雲門山) 전투에서 적의 시석(矢石)이 쏟아지는 곳에서 접전이 벌어지면 언제나 선봉이 되어 적을 무수히 사살하였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적의 칼날에 맞은 흔적이 있었다. 그는 어렸으나 지혜가 있어 전투 시에 여러 차례 교묘한 책략을 장수들에게 제안하여 적중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논공행상을 할 때에 그는 어린 소년으로 참전하여 그의 공적을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 녹훈(錄勳)되지는 못하였다.

1603년(선조 36) 별시(別試)에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서북(西北)의 변방으로 배치되어 풍상을 겪으면서 힘든 것을 꺼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다. 1622년(광해군 14)에 수어사(守禦使)의 막하(幕下)에서 복무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났을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황해도 병사(兵使) 남이흥(南



박우의 재실 경포재

以興)의 막하에서 전 부사 박영서(朴永緖)와 더불어 난적(亂賊)들을 마장(馬場)과 저탄(猪灘) 등지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싸워 물리쳤다. 이괄의 난이 평정 된 뒤에 그 공을 인정하여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錄勳)되었고, 1630년 남포현감(藍浦縣監)에 제수되었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한가로이 보내고 있었다.

1636년 겨울 박우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수도 한양이 청나라 오랑캐에 의해 점령되고, 왕은 남한산성으로 파천(播遷)하여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되어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비록 환갑의 나이지만 행장(行裝)을 갖추면서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고 있는데, 신하된 자가 목숨을 아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사당(祠堂)에 고유(告由)하고, 집안사람들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급히 서자(庶子) 상룡(尙龍)과 두 가동(家僮)을 데리고 남한산성을 향하여 밤낮으로 달려가다가 도중에 광주(廣州) 쌍령(雙嶺) 부근



박우 묘

에서 충청병사 이의배(李義培)를 만났다. 박우가 "나라가 위급하게 되어 급히 달려왔으니, 참전하고자 합니다"라고 고하니, 이 병사(兵使)가 말하기를, "연세도 많은데 남한산성까지 들어가기는 가시밭길입니다. 잠시 머무르시되, 형세가 급한지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박우는 기꺼이 참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장담하였다. 쌍령에서는 이미 경상 좌병사 허완(許完)의 진영과 경상 우병사 민영(閔栐)의 진영이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죽주산성으로부터 하루 늦게 도착한 이의배의 군사들은 미처 진을 구축할 시간이 없어 민영의 군진 옆에서 적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박우의 실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적세(賊勢)가 풍우(風雨)처럼 거세고, 적의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것이 마치 고슴도치의 털 모양같이 보였다."

적의 기병들이 목책을 넘어와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최후를 마

칠 결심을 하고 애마를 풀어주었다. 이 전투에서 박우는 단검과 창으로 적의 흉봉(凶鋒)을 무릅쓰고 쳐들어가 많은 적을 죽였다. 비록 세력이 꺾이고 힘이 다하여 온몸이 피투성이였지만 끝까지 힘써 싸웠다. 그러나 붉은 화살이 박우의 가슴에 박혔고 그는 스스로 활촉을 뽑아 손에 쥐고 적의 칼날 앞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아침, 그의 나이 향년 61세였다.


敎旨
通訓大夫行藍浦
縣監洪州鎮管兵
馬節制都尉朴瑞
贈通政大夫戶曹
參議者
乾隆六十年閏三月二十五日

박우 증직 교지



임진란 14의사비각

그의 서자 상룡(尙龍)이 적이 물러난 후에 부친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 밑에 가매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경할 때 묵던 주막에 부친의 말이 와 있었다. 아들 상룡이 통곡을 하며 말을 어루만지니, 말도 또한 소리치며 울었다. 주인이 말하기를, "모일(某日)에 말이 홀연히 길게 울며 집으로 들어오니, 진실로 장군께서 전사하셨음을 알았소. 비통함을 이기지 못해 이 말을 거두어 이곳에서 기르고 있었소" 한다. 말을 몰고 청도의 본가로 돌아온 상룡이 집안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식구들이 통곡하며 쌍령으로 달려가 시신을 찾아 입관하였는데, 안색을 보니 생시와 똑같았다. 청도의 본가로 운구하여 청도 칠엽산(七葉山) 선영에 장사하였다.

1759년(정조 19) 경상도 관찰사 조진택(趙鎭宅)이 박우의 충절을 조정에 보



국역14의사록

고하여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追贈)되었다.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에는 임진왜란 때 공훈을 세운 밀양 박씨 14의사(義士)의 위패를 모신 용강서원(龍岡書院)이 있는데, 박우의 위패도 여기에 모셔졌다. 또 청도군 이서면 칠엽리에 묘소가 있으며, 경포재(景圃齋)라는 재실(齋室)이 있다. 후손들이 조상의 보국정신을 이어오면서 제향을 받들고 긍지를 가지고 세거(世居)하여 오고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十四義士錄』, 『嶠南誌』, 『淸道郡誌』, 『尊周彙編』

의병장 김엽 삼형제의 충절

김엽(金燁)의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며, 호는 송암(松菴)이다. 조부는 김천상(金天祥)이고, 부친 김진고(金振古)의 4남 중 장남으로 의성군 봉양에서 태어났다. 동생으로 김욱(金煜), 김찬(金燦), 김환(金煥)이 있다. 그의 부친도 무과에 급제하여 집안의 4부자가 모두 무관이었다.

어려서부터 군사의 진영을 만들며 놀 정도로 무예에 관심이 많았고,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 하였으며, 문장 또한 뛰어났다. 1620년(광해군 12) 동생 김욱 · 김찬과 함께 무과에 급제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성의 의병장 신적도(申適道)를 따라 의병을 일으켜 그의 막하에서 천총(千摠)으로 문경(聞慶)의 조령(鳥嶺)에 이르렀으나, 이미 조정이 청나라와 화친했다는 소식에 의병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의 아우 욱과 찬에게 이르기를, "오랑캐 적도(賊徒)들이 졸지에 침범하여 임금이 난을 피하여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였으니, 군주(君主)가 욕을 보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어찌 편안히 집안에만



김엽의 삼충단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위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세 아들이 전쟁터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사정(私情)으로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인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막내아우 환(煥)이 있으니, 부모님을 봉양함에 큰 걱정이 없다" 하고 드디어 눈물을 뿌리면서 부모님께 하직하고 일정을 급히 하여 안동영장(安東營將) 선세강의 진영으로 출정하였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새벽, 광주 쌍령에서 경상좌병사의 군진에 속하였던 삼형제는 선세강 영장의 선봉대에 배치되어 적의 기습을 받았다. 전세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역전(力戰)에 역전을 거듭하여 적의 머리 수십 급을 베고, 이어서 오랑캐의 말을 빼앗아 타고 적의 기병과 마주하여 싸우는데, 말이 갑자기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진에 빠졌다. 삼형제가 서로 돌아보며 소리치기를, "우리들이 죽을 곳이 여기다" 하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몇 놈의 적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김엽의 나이 51세였다.



김엽 삼형제의 사당 정곡사 비각

이러한 사실을 그의 마졸(馬卒) 막생(幕生)이 도망쳐 와서 전하자, 김엽의 막내 동생인 김환이 형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집안사람들과 함께 광주 쌍령에 이르러 시신을 찾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의관으로 초혼하여 고향 의성 분토리 선영에 장사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조정에서 포장(褒奬)하여 김엽에게는 훈련원첨정, 그의 두 아우에게는 훈련원주부를 증직(贈職)하고, 그의 부친 진고(振古)에게는 만포첨사(滿浦僉使)를 제수하였다. 『삼충실기(三忠實記)』가 전해 오고 있으며, 『존주록(尊周錄)』에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의성의 한 선비가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광주 쌍령(雙嶺)을 지나면서 읊은 시 한 수가 전해오는데 다음과 같다.

삼형제가 모두 적에게 굽히지 않다가
적의 칼날에 순절(殉節)하였는데

그들의 넋은 쌍령(雙嶺) 골짜기에서 거두지 못하였으나 거친 산중의 여우와 살쾡이가 장사지냈고
충성스런 넋은 바람 속에 흩어져 위안 받지 못 했네
열렬한 기품(氣品)과 늠름한 기상(氣像)은
쌍령(雙嶺)에서 죽지 않았고
충직(忠直)은 송백(松柏)이 되었고
절의(節義)의 굳셈은 바위가 되어 남았구나



김엽의 재실 삼충재 편액

이들 삼형제의 경우는 한낱 무과(武科) 출신으로 아무런 직책이 없었으므로 국난(國難)에 나가지 않았어도 누가 책망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만약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절의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더욱 훌륭하다고 하겠다.

의성군 봉양면 분토동에는 김엽 삼형제의 사당인 정곡사(正谷祠)와 재실 삼충재(三忠齋)가 있고,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유품인 말안장과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삼충실기(三忠實記)』의 목판(木版)도 아울러 보관되어있다. 그의 후손들이 매년 정곡사에서 제향하고 있다. 분토동에는 「삼충단비(三忠壇碑)」가 세워져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錄』, 『三忠實記』, 『嶠南誌』, 『義城邑誌』

안동영장 중군 권극상의 쌍령전사



권첨정공사적

권극상(權克常)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字)는 이숙(彝叔)이다. 시조는 고려의 태사행이고, 사재감정(司宰監正) 권재성(權再成)의 5남 중 막내아들이다. 어렸을 적에 뛰어나게 영리하고 글을 잘하여 그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성년이 아직 안 되어서부터 시골에 있으면서 노부모를 모시느라고 과거를 보지 않았다. 부모가 병환이 났을 때 형제들은 꺼리는데, 권극상은 왼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드렸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형제들이 함께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 예를 치르느라 고생스러웠다. 사람들은 권극상의 사는 집을 가리켜 오효당(五孝堂)이라 하였다.

오랑캐들이 날뛰고 우리 조정을 드나들 때 권극상은 분개하였고, 적개심의 지조가 있었다. 겸하여 무예에 정통하였다. 1621년(광해군 13)에 안동부에서 무과 과장이 열렸는데, 권극상은 부중에 들어가 활을 빌려 쏘았다. 한 번에 적중하니 병과(丙科)로 합격 하였다. 1622년에 영변에서 수자리를 살았는데, 한창 뻗어나갈 때 형들의 상을 연속으로 당하여 벼슬할 의욕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1636년(인조 14) 겨울에 북의 오랑캐가 침범하여 안동진에서는 영장 선세강이 안동부사와 더불어 안동진 내에서 재주 있는 용사를 선발하는데, 권극상이 천총(千摠)에 기용되었다. 적이 이미 한양에 들어왔고, 임금은 다행히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였다고 한다. 안동영장 선세강은 그를 중군장(中軍將)으로 승진시켜 날마다 출진에 대처하느라 분주하였다.

집에 돌아와 가묘(家廟)에 결별을 고유하고, 아들 감(鑑)과 며느리 주씨(朱氏)를 불러 말하길, "나라의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나의 의기로 어찌 사는 것을 탐하겠느냐? 안동영장의 격문도 받았고, 이제부터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고 왕을 구하러 떠나야 한다. 나는 왼손에 칼자국이 있고, 우측 다리에 흑점이 7개가 있다. 전쟁 후에 시체를 찾을 때 이것으로 징험을 삼아라." 며느리는 울면서 솜으로 조끼를 만들어 드리고, 시어머니의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드려 알게 하였다. 아들 감(鑑)이 쫓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안 된다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평일과 같이 속오군을 데리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군복을 입고 검을 차고 따라와 야단을 쳐 돌아가게 하였다. 영장과 함께 좌병사 허완의 휘하로 들어갔다. 허완이 늙어서 지모(智謀)가 없었는데, 광주 쌍령에 군사를 멈추고자 하므로 권극상과 선세강이 다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은 아래쪽이 강이어서 전투할 곳이 아니오. 임금님이 포위망 속에 계시니 마땅히 밤새도록 달려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허완이 듣지를 않는다. 허완은 벽을 맞대고 자기 스스로는 정병(精兵)으로 가려 거느리고, 늙고 허약

한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 진을 치고 여러 날을 머뭇거리며 진격도 아니 하고 또한 척후도 없었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새벽, 적이 고지를 점령하여 아군보다 전투하기에 우세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권극상은 영장과 더불어 각각 나무 밑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죽기로 싸웠는데, 그 즈음에 유시(流矢)에 안동영장 선세강이 맞아 전사하였다. 권극상은 큰 활을 잡고 예안군(禮安軍)을 부르며 "화살을 다오" 하였으나 그의 군졸은 "화살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보여 마치 다섯 손가락이 낚시 바늘처럼 되었다. 연속으로 우진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우진은 꼼짝도 않았다. 권극상 휘하의 묘생(卯生)과 두선(斗善)이란 노복이 권극상을 이끌며 진을 빠져 나가자고 하였으나, 그는 화를 내며 말하길, "너나 도망가거라.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묘생과 두선은 도망을 갔다. 권극상은 적의 화살에 맞았고 진외로 탈출하다가 적의 창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51세였다.

권극상의 부인은 한양조씨인데, 효자 검의 따님이다. 그의 나이 30에 부인 조씨가 별세하였으나 다시 재취를 하지 않았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권감(權鑑)이다. 그는 전쟁 중에 부친의 엄명으로 감히 따라 나서지를 못했다. 쌍령에서 우리 군이 궤멸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감(鑑)이 허리에 패도(佩刀)를 차고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길, "부친의 시신을 모시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종형 두 사람, 노복 도년(道年) · 종일(從一)과 함께 쌍령을 향해 떠났다. 도중에 적을 만나 두 노복이 울면서 다투어 죽기로 애원하였는데, 적이 감(鑑)을 보고 사립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노복이 슬픔을 말하니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

권극상이 순절한지 한 달이 넘었다. 시신이 상하여 인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시신을 찾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 시신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이니, 동쪽계곡 잔디 위에 권극상의 시신이

있었다. 활은 손에 있었고 마치 산사람 같았다. 아들 감(鑑)이 가슴을 만지니 시신에 온기가 있는 것 같았다. 가슴에 박힌 적의 화살을 뽑고 상처를 살피니, 선혈이 점점이 흐른다. 순절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여러 사람이 지금 막 운명하신 시신 같다고 하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적이 목책에 불을 놓았는데, 강가의 잡초를 따라 불에 다 타고 시신 옆 까지 탔으나 권극상의 시신은 범하질 않았다. 입고 있던 옷자락만 조금 불에 탄 흔적이 있을 뿐이니, 열사(烈士)의 시신에는 하늘도 차마 불을 접근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큰아들이 시신을 감싸 안으면서 다시 소생하길 간절히 빌어보았다.

많은 유족들이 쌍령 전쟁터에서 자기 가족의 시신을 찾기에 분주한데, 그 마을 사람이 권극상 아들의 효심에 감동되어 칠성판을 갖다 주어 염습을 하여 운구하여 돌아오다가 비가 내리므로 지체가 되었다. 홀연히 비몽사몽간에 권극상이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날이 이미 밝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권극상에게 쌍령에서 전장을 탈출하여 다음을 도모하자고 말을 대령하던 남묘생과 송두선이 돌아와서 통곡을 하며 말하길, "장군의 절의가 저렇게 높고 높으신데 우리들은 살아 왔으니 함께 죽지를 못했고, 그 절의를 얻지를 못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다시 장군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큰아들은 남묘생 등과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하길, "전쟁에서 패할 당시에 너는 우리 아버지 곁에 없었느냐? 너는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느냐? 나를 속이지마라" 하니, 남묘생이 말하길, "우리가 진을 탈출하여 오다가 장군을 돌아다보니, 장군께서 몸을 뛰어 진 밖으로 나오시기에 나는 생존하실 줄 알았지 전사하실 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상세히 말하여, 권극상의 진중의 일들이 남묘생 등 권극상의 휘하 생환 군졸들의 구전(口傳)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해 4월 7일 안동 풍북 입암산(立巖山) 곤향(坤向)에 장사 하는데, 인근에



권극상 충신 정려문



권극상 정려각

서 조객 수백 명이 조문하여 고인의 충절을 기렸다. 저녁때 서기(瑞氣)가 하늘에 뻗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묘소에 가보니 봉분이 터져서 관이 보였다고 하였다. 오월에는 조정에서 사도시주부(司導寺注簿)로 증직하고, 후에 다시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에 추증(追贈)되었다. 숙종 때에 충신으로 정려(旌閭) 하였다.

권극상의 성품이 청렴하여 부와 노비(奴婢)를 원수같이 버리고, 재산과 돈을 주어도 비의(非義)라고 받지를 않았다. 아들 감(鑑)은 종신토록 추모하고

가슴에 찬기가 있고 딱지가 지더니 마침내 냉병으로 죽었다. 3남 4녀를 두었다. 권극상은 유가(儒家)에서 자라 효제(孝悌)를 행하였다. 문을 버리고 무예(武藝)를 취하여 국난에 급히 결사를 하였다. 그의 죽음은 충효의 정신이 가문에 스스로 전해옴이 있어 가능 하였다고 본다.

권극상의 충신 정려각(旌閭閣)은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대추월 부락 선산 밑에 있고,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장여골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柱江文集』, 『訥隱集』, 『尊周彙編』, 『安東邑誌』, 『洛厓集』

의성 김득민 부자의 충절

김득민(金得民)의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이각(伊覺)이며, 호는 설강(雪崗)이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희생된 김일손(金馹孫)의 현손이다. 1585년(선조 18) 부친 김치방(金致邦)과 모친 안동김씨 사이에 청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학문을 닦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향시에 응시하여 합격되지 못하자 뜻을 바꾸어 무관이 되기를 바랐다. 드디어 붓과 책을 놓고 무예를 닦아 육도삼략(六韜三略)을 읽어 병법을 터득하고 1621년(광해군 13) 무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으로 부사과(副司果)에 출사하여 복무하게 되었으니 당시 나이가 37세였다. 그 뒤로 부모의 병환이 연이어 중하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향리인 의성(義城)으로 내려와 6~7년을 보냈다. 향리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병마의 진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궁술과 검술을 익혔다.

1636년(인조 14) 겨울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모든 군관들이 시급히 근왕하라는 격문을 받고, 즉시 군복으로 갈아입고 말채찍을 들고 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안사람들과 이웃에서는 그를 만류하였다. "그대의 용맹과 지혜



김득민 묘

를 잘 알고 있지만 적은 10만이 넘는다는데 당할 도리도 없거니와, 그대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오로지 단기(單騎)로 참전한다는 것은 주린 호랑이에게 고기 덩이를 던져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말렸다.

김득민은 소리쳐 말하기를, "나는 왕실로부터 녹을 받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관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임금이 근심이 있으면 신하는 수치스럽고, 임금이 수치스러우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법이다. 난리에 몸을 숨기는 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는가?" 하면서 출발하려는데, 큰아들 호영(鎬永)이 말을 타고 따라 나섰다. 김득민은 아들에게 "집안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너는 집안일을 맡아서 잘 지키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그러나 아들 호영은 울면서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데, 자식이 어찌 집이나 보고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대답하였다. 드디어 아

버지는 아들을 거느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노복 한 사람과 함께 주야로 달려 조령(鳥嶺)으로 달려갔다. 조령에 다다르니, 여러 지역에서 의병들이 많이 와서 모여 있었다. 그때 풍설이 심하고 혹한이 계속되었으며, 그믐 무렵이어서 밤이면 캄캄하였다. 의병들은 풍찬노숙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의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여 몹시 괴로워하였다. 병사들은 눈을 녹여 밥을 짓고, 물도 구할 수 없어 눈을 먹어야 했다.

12월 30일 광주 쌍령에 도착하여 좌병사 허완의 진으로 들어가 선세강 선봉장 진영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듬해인 1637년 정월 초사흘 먼동이 트자, 적의 기습을 받았다. 김득민이 맨 앞에서 의병들과 함께 적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조총과 활로 공격하니, 앞에 있던 적이 쓰러졌다. 적이 잠시 물러갔다가 재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선봉군은 일제히 조총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아군 진영에서 화약을 더 달라는 소리가 빗발쳤다. 적은 화약이 떨어진 것을 간파하고, 일제히 목책을 넘어 기병들이 창검을 들고 공격해 왔다. 이에 아군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어 도망가는 병사와 적과 맞부딪혀 싸우는 병사가 한꺼번에 뒤엉켜 목불인견이었다. 김득민은 검을 빼어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수십 명을 격살하니 적들이 빠져나갔다. 또다시 적의 숫자가 더하여 공격해 왔고, 그는 말을 재촉하여 적진으로 돌격하고자 하였으나 말이 나가지를 않았다. 김득민은 "나 홀로 나가리라" 하면서 단신으로 칼을 휘둘러 나가면서 풀을 베듯 적을 베면서 적진 앞에까지 갔고 적들이 몰려와 김득민을 에워쌌다.

검광(劍光)이 번개같이 번쩍이면서 적을 수십 명 더 베었으나 적의 창검이 김득민의 몸 여러 곳에 박혔다. 그때 아들 호영이 노복을 급히 불러 "너는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라.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전사하셨는데, 아들이 어찌 죽지 않으랴." 노복은 극구 말리면서 이곳을 탈출하자고 하였으나 호영은 뿌리치고 적진에 뛰어들어 적 여러 명을 죽이고 결국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

다. 당시 김득민은 51세였고, 아들 호영은 28세였다.

노복은 간신히 진을 빠져나와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리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기절하였다. 김득민의 집안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 쌍령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여 의관으로 초혼하여 향리에 장사하였다.

김득민의 부인 경주김씨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부 의성김씨에게 하는 말이, "너는 어린 것이 셋이나 딸렸으니 잘 기르고 집안을 잘 이어나가야 한다. 나는 너의 시부(媤父)를 따라갈 것이다" 하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곡을 하다가 9일 만에 별세하였다. 한 집안에서 세분이 함께 나라를 위해 순절하였던 것이다.



김득민 부자 유허비

나라에서는 김득민에게 사도시주부(司導寺主簿)를 증직하고, 아들 호영에게는 훈련원봉사를 증직하였다. 또한 향리의 사림들이 사당을 세우고 춘추(春秋)로 향사(享祀)하였다. 고종 때에 김득민은 좌승지(左承旨)에 추증 되었고, 아들 호영은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추증되었다.

김득민의 묘소는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동마을에 있고, 그의 사당인 경의당은 대원군 때 훼철되었다. 1961년에 충효각(忠孝閣)이 세워졌으며, 김득민의 실기로 『설춘양세행장록(雪春兩世行狀錄)』이 있다.

| 참고문헌 |

『雪春兩世行狀錄』, 『嶠南誌』, 『義城邑誌』, 『忠孝錄』

금산(김천) 의병장 이언의와 의마총(義馬塚)


配芝山襄武侯公諱基興公周堂四男二女男殷龍
殷鵬殷維殷龍女李益祥吳汝建殷龍子貴弼
殷鵬子筵聖茂公殷龍于枝和枝芳殷雅子
連琳亭林成林署云以下繁不載嗚呼 國家
於丙子死事之人褒奬之至矣武肥以崇秋武如
之義諡而獨公則以一忠壯開題書褒識者恨之然
狗國曰忠新衰曰壯異日如武為公請節惠之典又
何俟他乎武肥此忠壯二字其於公之初之熙合矣
孚銘曰
雙旗擁鼓鵲高巢蚊蜻微忠壯國穡之老不召不募
不騙不東慨然赴義模陣以沒頭戴賢明身殉一國何
以致此非血性慷慨卓犖能之乎
通訓大夫前寧縣監兼尚州鎮管兵馬節制都尉李
鍾祥撰

성주이씨세보 쌍령전투 기사

이언의(李彦儀)의 본관은 성주(星州)이고, 자는 윤즉(胤則)이다.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의 후예이며, 1600년(선조 33) 7월 16일 감천(甘川) 도평에서 이동근(李東根)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총명하였다. 부모가 별세하자 6년을 시묘하였다. 그는 힘이 장사였으며, 의협심이 강하여 불의를 좌시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왕이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근왕군으로 의병을 모집한다는 경상감사의 격문(檄文)을 본 뒤, 집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임금이 위급한 지경에 놓여있는데, 내 비록 초야(草野)에 묻혀 있으나 어찌 나만 편안히 집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사재(私財)를 털어 인근



이언의 묘

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상주영장(尙州營將) 윤여임(尹汝任)의 휘하 의병장으로서 남한산성을 향해 출정했다. 광주 쌍령(雙嶺)에 이르러 우병사 민영의 선봉장으로 선임되어 처음 적이 좌진(左陣)을 무너뜨리고 우진(右陣)을 공격해올 때, 맨 앞에 서서 공격해오는 적 수십 명을 패퇴시켰다. 그러나 우진 안에서 화약더미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언의의 의병들이 많이 폭사하였다. 우진의 군사들이 놀라 당황하며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적이 그 틈을 이용하여 총공세로 나오게 되자, 화약 없는 조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언의는 있는 화살을 모두 쏘아대며 분전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결국 우진도 무너졌고, 이언의 의병장도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그날이 1637년(정축) 정월 초사흘로 전사할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이때 금산군(金山軍)의 기감관(器監官) 정은신(鄭殷臣), 군량감관(軍糧監官) 허



이언의 묘표



이언의 의마총과 의마비

홍인(許弘仁), 초관(哨官) 김진백(金晋伯) 등도 쌍령에서 이언의 의병장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언의의 집에서는 쌍령전의 패보(敗報)를 접하고 즉시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출발을 서둘렀는데, 이언의의 애마(愛馬)가 의관을 안장 밑에 달고 집 앞에 당도하였다. 놀란 가족들은 의관을 거두었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쌍령으로 사람을 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와 소룡(沼龍) 땅에 초혼장(招魂葬)을 지냈다. 애마는 집에 돌아온 후 먹지도 않고, 슬피 울며 몇 날을 지내다가 죽고 말았다. 이언의 묘소 밑에 의마분(義馬墳)을 만들고 표석을 세웠다.

뒤에 경상감사가 왕에게 주청하여 조정에서는 이언의에게 충장위(忠壯衛)를 증직하였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영모재(永慕齋)를 지어 지금까지 향사(享祀)하고 있다. 묘는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소룡골에 있다.

| 참고문헌 |

『金泉市誌』, 『嶠南誌』

청송 의병장 윤충우의 애사

윤충우(尹忠祐, 1587~1637)의 본관은 파평이고, 호는 쌍령이다. 시조인 윤신달(尹辛達)의 26세손으로, 1587년(선조 20)에 태어났다. 윤충우는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여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글 읽기를 좋아하여 15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능히 읽고 글짓기도 뛰어났다고 한다. 성년이 되어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대장부가 어찌 집안에서 글귀나 짓고 바둑이나 두며 소일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고는, 그때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 등의 무예를 익히는 데 열중하였다.

1621년(광해군 13) 무과에 급제하여 군관이 되었다. 관서지방에서 군관으로 근무하다가 중앙으로 들어와 좌위(左衛)에 소속되어 부사과(副司果)의 직책을 맡았다. 그 후 훈련원첨정이 되어 일을 하다가, 1634년(인조 12)에 퇴역하여 고향인 청송(靑松)으로 돌아왔다.

당시에 북쪽의 오랑캐들이 빈번히 조선을 왕래하며 혹은 협박하고, 공갈도 하면서 우리 조정을 어지럽게 농락하고 있었다. 그는 정묘호란 때에도 인조를 강화도로 호종하여 공을 세웠으며, 고향으로 낙향한 후에도 지역의 젊

은이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며 지냈다.

1636년 겨울 북쪽의 오랑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오자, 안동부사(安東府使)로부터 의병을 모아 출정하라는 격문을 받았다. 윤충우는 집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내대장부는 살아서는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죽어서는 조국의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위란에 처한 국왕을 구해야 하니, 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내일 출정할 것이니, 모두 활과 장비를 갖추고, 군량을 짊어지고 이 마당으로 집하라"고 일갈하여 젊은이들이 무장을 갖추어 집합하였다. 같은 향리의 신수(申樹)라는 무관을 부장으로 삼아 10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출정하였다.

남한산성을 향하여 밤낮으로 행군하여 정월 초하루에 광주 쌍령에 도착하여, 좌병사 허완의 진에 배치되었다. 윤충우는 선봉장 선세강의 휘하로 들어가 선봉군이 되었다. 그의 의병들은 보잘 것 없는 활로 무장한 시골 장졸들이었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이었다. 정월 초사흘 미명에 적의 기습을 받자, 선봉에 섰던 그의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의 부장 신수(申樹)도 옆에 있었는데 보이지를 않는다. 윤충우는 결심한 듯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검을 빼어들고 적과 마주쳐 십여 명을 해치웠다. 그러나 적의 숫자가 워낙 많은지라 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선봉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며칠 뒤 그의 애마(愛馬)와 유서(遺書)만이 돌아왔다.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 적의 세력이 만분 시급하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소. 비록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들 어찌 전쟁터에서 내 시신을 찾으리오. 이 글을 보내는 날을 나의 죽은 날로 아시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



윤충우 묘

> 오. 난리 중에 모자가 헤어짐 없이 서로 의지하여 잘 살아 남기를 바랄 뿐이오. 글을 써 놓고 보니 슬프고 민망하오.
>
> 정축년 정월 초하루 雙嶺에서[65]

윤충우는 쌍령에서 순절할 당시 향년 51세였다. 그는 늦게 아들을 두어 당시 4~5세 정도였던 것 같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었으나 병자호란에 의병으로 참전하여 쌍령에 이르러 적세를 파악해 보니, 도저히 살아서 돌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의 부인 염씨(廉氏)에게 유서를 미리 써서 말안장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다. 윤충우의 애마가 돌아오자 집안에서는 급히 서둘러 그의 시신이라도 찾아 장례를 치르려 쌍령에 와서 찾아 헤매었으나, 끝내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의관으로 초혼하여 고향 선산에 장례를 치렀다. 그의 묘 맞은편에 애마도 묻어주었다.

65) 奇夫人廉氏書 賊勢萬分時急我生還未可必雖不還亂尸原濕之中何以索我以此書發之日爲我死日而所掛戀者覺兒耳若母子相依保無流離失所之歎則幸也此外有何望臨紙憫然 丁丑元日 在雙嶺『雙嶺殉節錄』에서.

윤충우의 부장 신수(申樹)는 쌍령에서 탈출하여 이천에서 패잔병들에게 윤충우의 소식을 듣고자 하였으나 적진으로 필마(匹馬)로 달려가는 것만 보았다고 하므로 남은 의병들을 인솔하고 고향 청송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면서 윤충우 의병장을 기다리다가 1639년 정월 초사흘에 위령제를 지냈다. 그의 제문 내용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지금 내가 형을 대신하여 참전하였던 향리(鄕里)의 장졸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군병들의 예의범절이 전과 같이 의젓하여 대오(隊伍)가 상존하고 있고, 형께서만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군중에게 묻기를,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윤 장군의 가족을 도와야 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앞다투어 물질을 내놓았습니다.[66]

1808년(순조 8)에야 조정에서 명을 내려, 고을의 부사(府使)로 하여금 윤충우의 충의정신(忠義精神)을 기리는 사당을 짓도록 하였다. 명을 받은 부사는 마을 뒷산 기슭에 사당을 짓고 이름을 '상렬사'(尙烈祠)라고 하였다. 윤충우의 충절이 알려져 군기시(軍器寺) 판관(判官)에 증직되고, 『병자순절록(丙子殉節錄)』에 올랐다. '상렬사'는 100여 년간 춘추로 제사를 지내다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다.

윤충우의 실기라고 할 수 있는 『쌍령순절록(雙嶺殉節錄)』이 전해오고 있으며, 『주강문집(柱江文集)』에도 윤충우의 행장이 실려 있다. 묘는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3리에 있다.

| 참고문헌 |

『雙嶺殉節錄』, 『柱江文集』, 『靑松郡誌』

66) 『雙嶺殉節錄』에서 발췌하였다.

황시헌의 충절과 문창제놀이

황시헌(黃是憲)의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도부(道夫), 아버지는 황집생(黃執生)이다. 황시헌은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발발할 당시 창원도호부(昌原都護府)의 부리(府吏)로 지방 관리였다.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전국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들에게 속히 근왕군을 편성하여 왕을 구하라는 격문이 발송되었을 때 창원도호부 부사 백선남(白善男)에게도 경상감사로부터 격문이 하달되어 김해영장(金海營將)을 대신하여 급히 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해영장 황이중(黃履中)이 중병으로 누워 있어 출정치 못하게 되어 그를 대신하여 백선남이 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황시헌은 당시 창원도호부사 백선남을 배종(陪從)하여 창원 김해의 군사들과 함께 출정하였다. 남한산성을 향하여 주야로 달렸으나 거리가 워낙 멀어 1637년 1월 2일에 남한산성을 30리 앞둔 경기도 광주 쌍령(雙嶺)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좌병사 허완(許完)과 우병사 민영(閔栐), 그리고 충청병사 이의배(李義培)가 각각 진을 치고 있었다. 황시헌은 상주영장(尙州營將) 윤여임(尹汝任)의 진으로 백선남 부사가 편입되어 우병사 진에 합류하게 되었다. 쌍



황시헌 묘

령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에 적병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창원부사는 창원도호부를 상징하는 부인(府印)을 몸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황시헌에게 넘겨주며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부인(府印)을 잘 간직하였다가 네가 살아 돌아가거든 후임 부사에게 인계하도록 하여라" 하고는 장렬히 전사하였다. 부사와 수행 관리들이 전사하고, 군졸들이 도망쳤지만, 황시헌은 백 부사로부터 넘겨받은 부인을 움켜쥐고 적과 대항하였으나, 적은 황시헌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 그가 놓지 않자 오랑캐는 칼로 황시헌의 팔을 내리쳤고, 황시헌은 재빨리 다른 손으로 부인을 움켜쥐었다. 오랑캐가 또다시 남은 한 팔을 내리쳤고, 결국 적의 칼에 양팔이 잘리고도 입으로 물어 부인을 지키려다가 31세의 나이로 순절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참 할 수가 있는가.

황시헌의 충절은 창원도호부를 비롯하여 경상도 각 부(府)와 현(縣)에 널리 알려져 향리(鄕吏)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귀감(龜鑑)으로 삼게 되었고, 창원부에서는 백선남 부사와 황시헌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해마다 정



황시헌 정려각 충절각


황시헌 충절비

월 초사흘이면 동헌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황시헌은 현종 때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추증(追贈)되었다. 숙종 때에 아들 황우룡(黃羽龍)이 선친의 행적을 조정에 알렸다. 관찰사가 지시를 받고 행적을 조사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후, 1689년(숙종 15) 5월 25일 정려를 내렸다.[67] 후손들이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에 황시헌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충절비(忠節碑)를 세우고 정려각인 충절각(忠節閣)을 건립하였다.

창원 지역에서 전해 오는 민속놀이 중 '문창제놀이'가 있는데, 이는 황시헌의 충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창원도호부의 역대 부사들이 황시헌의 제삿날에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관기로 하여금 진혼무를 추게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음복 음식을 나누어 주어 놀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군노(軍奴) 한 사람이 황시헌의 처

67) 창원부리(昌原府吏) 황시헌(黃是憲)을 정려(旌閭)하였다. 황시헌은 병자(丙子)의 난(亂)에 부사(府使) 백선남(白善男)을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달려 가다가 광주(廣州) 쌍령(雙嶺)에 이르러 싸움에 패하자, 황시헌이 부인(府印)을 허리에 매고 백선남의 주검 곁에서 죽었는데, 이에 이르러 그 아들 황우룡(黃羽龍)이 조정에 상언(上言)하였다. 도신(道臣)이 부중(府中)의 고로(故老)에게 물으니, 모두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황우룡의 말과 같았다. 그래서 이 명이 있었다. 『숙종실록』 15년 5월 25일.



문창제놀이



황시헌 증직 교지

참한 순절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한 것이 오늘날 전하는 군노놀이로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었다고 한다.

문창제놀이는 일제강점기에 단절되었다가 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정경수가 창원노인회의 자문을 받아 놀이 형태를 4과장으로 구성하여 재현하였다. 1980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으며, 황시헌이 광주 쌍령에서 순절한 날짜인 매년 음력 1월 3일 창원시 서상동에서 공개 재연행사로 행해지고 있다. 황시헌을 추모하는 문창제놀이는 농민들의 꾸밈없는 가무이자 놀이로서 일반적인 민속놀이가 예능을 본위로 함에 반하여 충신을 기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색을 지닌다. 즉 놀이는 전 4막으로 꾸며졌는데, 1막은 황시헌과 백선남의 제향(祭享)이고, 2막은 진혼무(鎭魂舞), 3막은 가극으로 황시헌의 전사 장면을 재현하고, 4막은 뒤풀이로 농악놀이라고 한다. 창원시에서는 '문창제놀이보존회'가 있어 해마다 문창제놀이를 거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錄』, 『昌原市史』, 『昌原의 傳統』, 『昌原邑誌』, 『昌原의 얼을 찾아』

김충선의 남다른 충정과 쌍령용전



김충선 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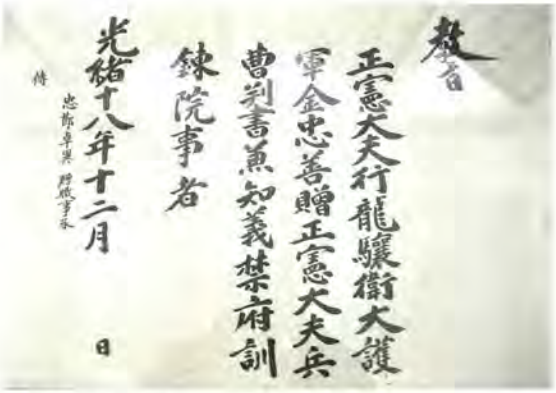
김충선(金忠善)은 본래 일본 사람이다. 본관은 사성김해(賜姓金海)이고, 자는 선지(善之)이다. 일본 이름은 사야가(沙也可)이며, 1592년(선조 25)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때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막하 장수로 병력을 이끌고 왔는데, 그때의 나이가 22세였다. 그는 중하(中夏)의 문화를 사모하는 뜻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오랑캐와 같은 일본에 태어나서 오랑캐의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찌 영웅의 한스러운 일이 아니랴" 하면서 탄식하였다고

한다. 임진년(1592)에 가토 기요마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치려고 할 때, 김충선은 이유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그르게 생각하였으나, 그의 담력과 용맹이 뛰어났으므로 가토는 그를 선봉장으로 삼았다.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부산포에 상륙하니 그때가 4월 13일이었다. 상륙하여 인심 풍토를 살펴보니, 난리가 덮치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절과 겸양(謙讓)의 풍속이 있고, 의관(衣冠)과 문물이 평소에 듣던 바와 같은지라, 비록 본국의 명령을 받고 무기를 들고 나오기는 하였지만 조선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났다. 이에 경상병사(慶尙兵使) 박진(朴晋)에게 강화서(講和書)를 보냈다.

조선 조정에서도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받아들였다. 그 뒤 왜란(倭亂) 7년 전쟁 중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栗) 휘하에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거느리고 온 2,000명의 병력으로 왜적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특히 조선군에게 조총(鳥銃)과 화포(火砲) 제작법을 전수하여 이를 자체 생산하여 신무기로 사용하게 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그는 김응서(金應瑞) 장군과 각별한 사이여서 김응서 장군의 신도비문에 김충선의 용맹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왜란이 끝나자 도원수 권율과 어사 한준겸의 장계로 그에게는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姓名)을 하사하였다. 본관(本貫)은 사성김해(賜姓金海)로 하였다. 처음에 관작(官爵)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내렸다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북방에서는 만주 여진족(女眞族)의 침노가 자주 일어나서 조정이 큰 걱정을 하였는데, 이때 선조가 김충선을 불러 보고 방어책을 묻자 가장 중요한 요새지(要塞地)를 자기가 방어하겠다고 자청하여 북방에서 10년을 하루같이 지켰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김충선은 54세였다. 이괄이 그에게 격문을 보내 왔는데, 그 글을 보고 분개하여 격문을 찢어버리고, "이런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그의 사자(使者)를 쫓아 버렸다. 난은 광주(廣州) 묵방리에서 이괄이 그의 부하에게



김충선 증직 교지

살해당하면서 끝났지만 이괄에게 동조하여 그의 부장으로 참여한 자 중에 과거 김충선의 휘하 부장이었던 서아지(徐牙知)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이괄이 죽자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의 용맹이 워낙 뛰어나 관군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서아지를 속히 제거하라고 명하였고, 김충선은 계략을 세워 서아지를 제거하였다. 김충선은 그 공으로 조정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사패지(賜牌地)를 하사 받았으나 이를 받지 않고, 상소를 올려 수어청(守禦廳)의 둔전(屯田)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달성군 가창 녹동의 한 골짜기에서 은거하여 살았다.

1636년 겨울, 만주의 오랑캐들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범하여 왔을 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그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150여 명의 의병과 수하 장수를 이끌고 한양을 향하여 출정하였다. 그의 휘하 장졸들은 모두 조총(鳥銃)과 도검(刀劍)으로 무장한 채 경상 좌우병사의 군사들보다 먼저 출발하였다. 폭설과 한파로 행군이 매우 어려웠으나 주야로 달려 남한산성 앞에 다다랐으나 적세가 풍우와 같아 산성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경상도 병사들이 광주 쌍령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의병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가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을 만났다. 양 병사는 김충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때 김충선의 전투 상황을 그의 장남 김경원이 문집 『모하당집(慕夏堂集)』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좌 · 우 병사들이 공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서로 다투어 받아들이려 하므로 여기도 저기도 가지 않고 軍卒 一百五十名을 거느리고 五里 밖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모하당집

그날 밤 子時와 丑時경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리며 아침까지 이어져 날이 밝아 살펴보니, 鐵甲을 한 胡兵들이 구름 같고 개미떼 같은데, 넓은 들판에 가득하고 창검이 해를 가린다. 公께서 軍卒에게 호령을 하시되 대오를 엄히 정돈하고 軍旗를 百步 밖에다 세우고 軍衆에게 명령을 내리되, "胡兵이 百步 안에 들지 않아서 발포하는 자는 참하리라" 하고 열을 三隊로 나누어 총을 장진하여 발포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호군의 선봉대가 방패를 들고 징소리와 북소리를 크게 울리며 고기를 꿰듯 깃발을 휘두르며 진격 해오는데, 위세와 살벌한 기세는 무지개와 같다.

공께서는 친히 앞선 놈들을 직접 공격하니 호병의 선봉이 탄환을 맞고 낙마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오랑캐의 후군이 양쪽에서 맹렬하게 질풍같이 닥쳤다. 공께서는 친히 북을 울리며 군졸들을 지휘 하시는데, 卯時부터 辰時까지 사격을 계속하였다. 시체가 산같이 쌓였고 피가 도랑에 가득하게 흘렀다.

胡軍들은 시체에 걸려 앞으로 나가질 못 했다. 오랑캐들은 시체를 치우느라 야단이었고 한 사람이 지날 길을 확보하여 오고가며 적이 저항을 할 수가 없어 징을 울리며 퇴각을 하였다.

공께서는 후미를 쫓아 발포하며 추격하여 慶安橋까지 十五里 거리에 적의 시체로 땅을 뒤덮어 죽은 적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다만 적의 코를 벤 것

이 전대(戰袋)에 가득하여 전대에 담긴 그 수효를 셀 수가 없었다. 호병이 능히 저항을 못하였는데, 후발대가 선봉이 되어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 그 후진을 먼저 침범하니 우병사 민영의 진영이었다. 또한 우진에서도 오랑캐에게 얼마동안 발포를 할 즈음에 화약고에서 화약이 폭발을 하고 불이 나는 바람에 좌우의 양 진영이 다 패하고 말았다. 공께서 호병이 승기를 잡는 것을 보고 분개하시더니 연세가 육십이 넘으셔서 능히 당신이 앞장을 못 서시고 副將 김계충(金繼忠) · 김융수(金戎守) · 김성인(金誠仁) · 김귀성(金貴成)에게 이르기를, "능히 胡陣에 쳐들어가 수급을 많이 가져오는 자는 반드시 큰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니, 네 사람이 명을 받고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오랑캐 진영으로 모두 공격해 나갔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오랑캐들이 과연 쓰러졌는데, 계충 · 융수 · 귀성이 두 번째 충돌하여 수급을 많이 베고 돌아 왔다. 그러나 성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쪽저쪽으로 오랑캐를 죽이다 힘이 다하고 형세도 고립되어 적의 칼 아래 죽었다. 공께서 그 충성과 용맹하게 죽는 것을 보시고 나라를 위하여 함께 죽고자 하였으나 한갓 죽음만이 유익함이 없는 고로 임금님을 모셔야 하겠다고 산성으로 들어가니 오랑캐와 和議가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울분이 일어 죽으려 하였으나 죽은들 어찌할 수가 없으며 또한 스스로 죽음을 성공한다 해도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어서 적의 코를 가득 담은 전대를 땅에 던져 버리고 칼도 던지고 화가 치밀어 크게 곡을 하며 남은 병사를 이끌고 남으로 돌아 오셨다.

기록을 살펴보면, 김충선은 쌍령에서 15리 밖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는 우병사 민영의 진에서 5리 밖이어서 고개를 넘어 경안천 쪽으로 내려와 길옆에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김충선은 여기서 매복하였다가 적의 기병이 민영의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조총으로 공격하였던 것이다. 새벽에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아침 7시경부터 9시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다. 김충선은 조정에서 오랑캐들에게 항복한 것을 지극히 분하게 생각하며 울분을 터



녹원서원 전경

트리며 귀향 하였던 것이다. 김충선은 1642년 향년 72세로 달성 녹동에서 별세하였다. 김충선에 대한 기록은 성해응(成海應)이 편찬한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김충선은 왜인이다. 일본명은 사야가(沙也可)이고 만력 임진년에 일본 豊臣秀吉이 명나라를 친다고 길을 빌리자고 하면서, 먼저 우리를 침범하였다. 팔도의 병사들이 일어났다. 加藤清正이 선봉에 섰는데, 사야가는 가등청정의 부대에 속하여 장병 3천으로 선봉에 섰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관과 문물이 중국과 같음을 보고, 숭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의 장졸들에게 살상과 약탈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아호(雅號)를 모하당(慕夏堂)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우리나라에 귀의하여 박진(朴晉) 김응서(金應瑞) 장군과 함께 싸워 여러 차례의 혁혁한 전공을 쌓았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김충선이라고 성과 이름을 내려주고, 본관은 김해로 하였다. 김충선은 감격하였으며, 관작(官爵)이 자헌대부에 오르게 되었다.



김충선 묘

인조 초에 이괄(李适)의 반란이 있을 때에는 먼저의 항왜군 300명이 이괄에게 가담하여 영변에 주둔하였다가 이괄과 함께 반란군이 되었다. 그들 중에 서아지(徐牙之)라는 자가 가장 용맹하였는데, 날아다니는 왜군이라고 하였다. 그가 밀양으로 도망하였는데, 김충선이 마침내 그를 참하였다. 그 공으로 사패지(賜牌地)와 노복들을 받았으나 김충선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병자년 오랑캐가 광주(廣州)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늙은 몸이지만 군사를 이끌고 쌍령에 이르러 싸웠으나 병사들이 패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하니, 통곡하며 종내 귀향하여 여생을 마쳤다. 김충선은 인동 장씨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역시 명문거족이었다.

金忠善 倭人也 始名沙也可 萬曆壬辰 日本豊臣秀吉將犯天朝 以假道名 先寇我 擧其八道兵 以加藤淸正爲前駈 沙也可屬淸正 將兵三千爲左先鋒 旣入我境 見衣冠文物與中州同 慨然慕之 禁其卒無殺掠 自號慕夏堂 遂降我 從朴晉

金應瑞戰 屢立奇勳 朝廷賜姓名金忠善 籍金海 忠善感之 海防十年不懈 進階至正憲大夫 仁祖初 李适叛 先是降倭三百屬适 屯寧邊 與适同誅 徐牙之者最勇 號稱飛倭 亡至密陽 爲忠善所斬 以功賜田民 忠善辭不受 丙子虜圍廣州 忠善時已老 從軍至雙嶺 兵敗而媾亦成 卽痛哭歸以終 忠善娶仁同張氏家 亦名族也(卷之五十六)

김충선의 묘는 달성군 가창면 녹동리에 있고, 그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하는 녹동서원(鹿洞書院)이 있으며, 서원 안에는 신도비가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慕夏堂集』, 『歷代人物考』, 『研經齋全集』, 「金應瑞神道碑文」

금한룡 형제의 쌍령 용전

금한룡(琴漢龍)의 본관은 봉화(奉化)이고, 부친은 금제순(琴悌筍)이다.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고을 현감이 금한룡 형제에게 국가의 위란이 닥쳐 출정하도록 권유하자 처음에는 모친의 상중이어서 꺼려하다가 형제들이 상의하여 "아무리 모친의 상중이지만 국가가 위란에 처했으니, 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형제가 모친의 묘소에 가서 통곡하며 상복을 태운 다음,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효도를 못하고 전쟁터로 떠나는 불효한 자식을 용서하시옵소서. 모자간의 정분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위란에 처했으니, 나라를 위하여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잔을 올립니다"라고 제문을 지어 독축하고, 수십 명의 의병을 모아 경상 좌병사 허완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허완은 그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출진하게 하였다.

금한룡이 출전할 때에 동생 해룡(海龍)과 막룡(漠龍)도 함께 출전하였는데, 해룡이 둘째이고 막룡이 막내였다. 쌍령에 이르니, 이미 전세가 불리하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금해룡은 동생 막룡에게 "너는 돌아가 가사를 돌보도록 하

라" 하고 둘째 해룡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려고 하자 해룡이 형의 소매를 잡고 울면서 이곳을 탈출하자고 매달렸다. 형은 칼로 동생이 잡은 옷소매를 끊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여러 명의 적을 죽이고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동생 해룡은 "형이 죽고 동생이 살아남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형의 뒤를 따라 오랑캐 수십 명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금한룡과 동생 해룡은 훈련원 첨정(僉正)에 증직되었다.[68]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尊周彙編』,『奉化郡誌』

68) 후손을 찾지 못하여 묘소와 행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모친상중 쌍령에서 분투한 배시량

배시량(裵時亮)은 본관이 성산(星山)이고, 자는 자명(子明)이다. 참판 배흥립(裵興立)의 아들로 1604년(선조 37) 8월 19일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무예(武藝)를 익혀 1630년(인조 8) 무과에 장원급제 후 훈련원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1635년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상중(喪中)에 있을 때인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고향 성산에서 경상감사의 격문을 받고, 상주(喪主)이지만 국가가 위란에 처하여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오랑캐에게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상중이라고 가만히 집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閔栐)의 군문으로 들어가 중군이 되어 출전하였다. 쌍령에 이르러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군사들을 지휘하여 많은 적을 무찔렀으나 경상 좌우병사가 모두 전사하는 패전의 상황에서 남은 군사를 이끌고 충주로 후퇴하였다. 군진을 정비하여 재공격 하려고 준비 중에 인조가 항복하여 그곳에서 군대를 해산하였다.

1638년 이후 숙천부사(肅川府使) · 경상좌도 우후(虞侯)를 거쳐 양주목사



배시량 묘

(楊州木綵), 1645년 공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46년 유탁(柳濯)의 반란을 토평(討平)한 공으로 영국공신 일등(寧國功臣一等)에 오르고 또한 충훈부(忠勳府)에 기록되었다. 1651년(효종 2) 당상(堂上) 선전관이 되고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제수 받고 임금을 뵈었을 때, "각 고을의 형세(形勢)야 말로 국토방위와 직결되는 데도 절진(節鎭)을 도리어 경시하고 심지어 부임하길 꺼려하니 경이야말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효종(孝宗)의 간곡한 부탁을 받기까지 했다. 언젠가는 북벌(北伐)하여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씻으려는 효종의 뜻을 받들어 부임지에 나아가 전심전력 국방에 헌신하였으며 민폐를 덜어주고 나만 못한 종족(宗族)을 지성껏 보살펴 보는 이가 모두 그 결백하고 우애로움에 감탄했다 한다.

언젠가 그의 어머니가 이미 분배된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려(배시량은 그의 아버지 홍립이 만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외 자손을 불러 모았을 때, "내게 딸린 재물 외에는 아버지의 청덕(淸德)으로 끼치신 것인데, 이제 와 자손이 되어 그 많고 적음을 계산하려 하니 이것이 어찌 아버지의 높은 덕에 누가 되

지 않겠습니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모였던 사람이 다 그 지성에 감동하고 부끄러워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배시량은 1656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官)을 거쳐 1657년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각 고을을 순시하다 장수(長水)에 이르러 죽으니 그때 나이 54세였다. 효종은 큰 재목을 잃었음을 애통해 하여 삼도감사열읍수령(三道監司列邑守令)에 명하여 호상(護喪)하게 하고 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웅담리 수좌골에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許穆撰 墓碣」

함께 전사한 우성적과 노복 귀동이

우성적(禹成績)의 생몰과 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존주휘편』과 『승정원일기』 등에서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의 후손과 묘의 소재는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우성적의 본관(本貫)은 단양(丹陽)이다. 상주(尙州)에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 출사한 후 병자호란 당시에는 상주에 거주하면서 상주영(尙州營)에서 중군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상주영장 윤여임(尹汝任)의 휘하 장수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閔栐)의 군진에서 활약하였다.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하다가, 광주 쌍령에 이르러 오랑캐와 격전하여 많은 적을 물리치고 역전 분투하였다. 그러나 좌 · 우의 진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거나 도망하였다. 이때 그의 노복이었던 귀동(貴同)이 말을 타고 속히 진을 탈출하자고 권유하였으나, 그는 귀동에게 "나는 곧 죽는다. 너는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이라도 거두어다오" 하면서 적진으로 돌입하여 많은 적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귀동이 옆에서 지켜보고, "이미 주인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진대 소인인들 어찌 주인을 위하여

죽지 않을 수가 있으리오" 하면서 적에게 대항하다가 급기야 주인의 시신 옆에서 따라 죽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군진에서 살아 돌아온 군졸들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전쟁이 끝난 후 나라에서는 우성적에게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증직하고, 정려(旌閭)하였으며, 귀동에게도 정려를 내렸다. 우성적과 함께 상주영에서 군관으로 참전한 진주의 하계인(河繼仁), 정복초(鄭復初), 상주장관(尙州將官) 강홍신(姜弘信) 등에게도 증직과 정려를 내렸는데, 하계인은 중 찰방, 정복초와 강홍신은 훈련원 첨정을 증직하였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彙編』, 『紀年便攷』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尊周彙編』, 『練藜室記述』, 『南漢日記』, 『江漢集』, 『丙子日記』, 『新安世稿』, 「許完神道碑文」, 『尊周錄』, 『南漢志』, 『備邊司謄錄』, 『禮山郡誌』, 「李義培神道碑文」, 『韓山李氏族譜』, 『醉菴實紀』, 『五忠祠誌』, 『南漢志』, 『由由軒集』, 『廣州市史』, 『寶城宣氏族譜』, 『金堤市史』, 『梅山集』, 『湖南節義錄』, 『坡平尹氏鈴陽君派譜』, 『昌原邑誌』, 『鼎珉錄』, 『樂善堂實記』, 『嶠南誌』, 『尙武軒遺稿』, 『副正公忠節錄』, 『洛厓行蹟』, 『十四義士錄』, 『淸道郡誌』, 『三忠實記』, 『義城邑誌』, 『柱江文集』, 『訥隱集』, 『安東邑誌』, 『洛厓集』, 『雪春兩世行狀錄』, 『忠孝錄』, 『金泉市誌』, 『雙嶺殉節錄』, 『柱江文集』, 『靑松郡誌』, 『昌原市史』, 『昌原의 傳統』, 『昌原의 얼을 찾아』, 『慕夏堂集』, 『歷代人物考』, 『硏經齋全集』, 「金應瑞神道碑文」, 『奉化郡誌』, 「許穆撰 墓碣」, 『紀年便攷』, 『山城日記』, 『瀋陽日記』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 일조각, 1995

朴光雲, 『忠貞公 鄭雷卿傳記』, 대학사, 2007

全海宗, 「女眞族의 侵寇」,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姜世求, 「雲溪 鄭雷卿의 殉國에 관한 一考察」, 『문명연지』 제19집, 한국문명학회, 2007

정충묘지

발간후기



정충묘는 광주시의 제 1 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역사적인 문화재로서의 보존 형태로 보거나 그 위치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충묘가 위치한 곳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입사(立祠)되어 있어서 개인재산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고, 원래의 정충묘 위치가 개발에 밀려 도로로 편입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왕명으로 건립하였던 제단이나 단비가 개발로 인하여 모두 훼실(毁失)되었음은 후세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갖추어 정충묘 사우(祠宇)를 당시의 전쟁터인 대쌍령리를 벗어나기 보다는 대쌍령리 또는 도평리 내의 합당한 장소로 이건하여 아직 봉안되지 못한 병자호란 당시 쌍령에서 순절한 수많은 의병장과 각 영장(營將) 및 장수들의 위패를 봉안하여 각도 병마절도사와 함께 제향을 받들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향할 위패를 봉안하자면 지금의 정충묘 사당은 너무도 협소하여 위패를 봉안 할 수 없는 실정이니, 광주시 당국과 각계 문화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건(移建)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제안 하는 바이다.

광주시에서 매년 제향을 받들고 있는 백제시조 온조왕의 숭렬전, 병자호란 삼학사를 중심으로 한 5위의 현절사와 병자호란 쌍령전에서 전망장군들을 위한 정충묘 제례는 불변의 전통 제향이므로 정충묘를 확고한 자리에 이건하여 후세에 나라를 위하여 순절한 위인들을 숭모하는 우리고장 우국충정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정충묘의 이건은 우리고장 숙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박광운**

精忠廟誌 · 쌍령의 恨

펴 낸 날 | 2011년 12월 20일

펴 낸 이 | 남재호(광주문화원장)

지 은 이 | 박광운(광주향토문화연구소장)

교　　정 | 이성복(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연구원)

일러스트 | 민유이

제　　작 | 홍익문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7-2
전화 : 02-2274-8110 **팩스** : 02-2271-0951
www.hongeeg.com

디자인 · 편집 | 김은주(홍익문화 · Team Manager)
김란(홍익문화)

광주문화원 ⓒ 2011
이 책은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廣州文化院

